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어학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정보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의 특수성

- 일본어, 미얀마어와 대조 연구를 바탕으로 -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정 승 철

한국어 정보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의 특수성

- 일본어, 미얀마어와 대조 연구를 바탕으로 -

지도교수 권 재 일

이 논문을 언어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정 승 철

정승철의 언어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화제는 언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한국어처럼 화제를 필수적으로 실현하는 언어는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 중 하나를 반드시 명세한다. 반면, 서술은 모든 언어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 연구는 표면에 드러나는 술어 구조에 더 집중해 왔다. 이를 '술어 중심 관점'이라 한다면, 본 연구는 '화제 중심 관점'을 택한다.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는 화제 구조를 직접 드러내는 구문이 발달해 있다. 그러므로 세 언어를 기준으로 유형론적 대조 연구를 수행하면, 언어별 화제 구문의 특수성과 화제 중심 정보구조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화제의 본질은 정보를 조직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조명함으로써, 정보구조가 언어 구조의 보편적 체계임을 확인하고, 그 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화제 구조의 기본적 구성과 세부적 작동 기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화제 중심 언어관, 인지언어학, 의미-텍스트 이론, 배경-초점 이론 등을 근거로 하여, 화제 중심의 정보구조 모델을 수립한다. 둘째,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구문의 대조 연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화제 구조의 보편성을 가늠한다. 셋째, 세 언어의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설득력 있는 분석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화제 중심 관점과 새 정보구조 모델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세 언어를

새로 분석한 경험적 근거, 언어학과 심리학의 전통을 이은 기능주의 언어학의 화제-평언 구조, 인지언어학의 주의 체계에 대한 인지적 설명, 의미-텍스트 이론의 정보구조 형식화, 형식의미론의 배경-초점 이론 등을 하나의 줄기로 엮어냈고, 장면화제, 심리 접근 경로, 윤곽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화제→{기반 [서술]}의 화제 구조를 정의하였다. 즉 화제는 정보의 출발점으로서 주의 체계의 심리 접근 경로를 따라 기반 정보를 활성화하고, 이 기반 정보에서 윤곽화를 통해 서술이 선택되는 동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 화제 구조는 인지언어학에서 구문 구조가 보편적 주의 체계를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참조점 설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참조점 설명은 참조점→{연계영역 [목표]} 구조에 대응되므로 본 연구의 화제 구조와 잘 부합한다. 이러한 화제 구조는 화제 구문으로 실현될 때, 이중 윤곽화를 통해 [화제]-[술어] 또는 [장면화제]-[술어]의 문장 구조로 나타난다.

둘째, 한국어는 화제 구조의 보편적 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언어로 판단된다. 한국어에 새로 정의한 화제 구조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한국어의 주어, 주격 중출, 보조사 등의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의 주격 중출은 화제의 진행에 따른 [화제]→{[하위화제]}→ … →{[서술]}의 화제 연쇄 구조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화제 구조의 세부적 기제를 잘 드러내 준다. 보조사 '-는, -가, -도, -만'은 화제→{[전경], 배경} 구조에서 전경-배경 정보간 대비를 표현하는 문법 현상으로, 각각 차별성, 부각성, 동일성, 유일성을 표현한다.

셋째, 기존 한/일 대조 연구에서는 일본어 화제 표지 '-wa'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되는 한국어 주격 표지 '-가'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어 화제 구문

이 오히려 화제 구조를 직접 반영하고, 일본어는 화제 구문의 실현에 일부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일본어는 지각 장면의 의문문과 일부 '이중 주어' 구문에서 '-ga' 주격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각적 화제 구조를 별도 범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중 주어문의 화제→{하위화제}→{서술} 구조의 특정 의미 유형에서 상위 화제 윤곽화에 제약이 있어 화제→[하위화제]→{[서술]}에 해당하는 구문으로 실현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넷째, 미얀마어에서 두 주격 표지 '-ha/-ka'의 차이는 설명하기 쉽지 않아 분석이 보류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미얀마어는 화제 표지는 없지만,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가 각각 '-ha'와 '-ka'로 실현되는 대립 체계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화제 구조의 부분적 작동 방식의 하나로서 배경 윤곽화 구조인 화제→{전경, [배경], …}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이론적 일반화와 대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화제 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론적 분류를 제안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제 표지의 유무에 따라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이다. 반면, 영어는 일부 유표적 구문을 제외하고 화제를 미명세하므로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이다. 미얀마어는 영어처럼 화제를 수의적으로 표시하지만, 화제 구조 내의 전경-배경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므로 '필수적 배경 명세 언어'이다. 이 세 언어는 화제 구조의 일부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므로 '화제 중심 언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구문의 특수성 연구가 언어 보편성에 관한 근원적 질문들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제 중심 관점의 접근을 통해 언어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술어 중심 관점

으로 다소 기울어진 언어 연구의 중심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 수립한 보편적 화제 구조는 인지언어학의 보편적 인지 체계 및 주의 체계의 기본 틀을 정보구조로 재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엄밀한 형식화를 추구하는 의미-텍스트 이론과도 잘 부합하므로, 구체적인 형식화의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다. 비록, 술어 중심의 논항 구조 연구 성과들은 반영하지 못했으나, 화제→{기반 [서술]}의 보편적 구조 속에서 윤곽화 내부의 부분 윤곽화 개념으로 접근하면, 기존 술어 중심 연구들과 결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필수적 화제 명세, 화제-평언, 정언문/제언문, 장면화제, 필수적 배경 명세, 배경-전경, 초점, 대조성, 인지언어학, 의미-텍스트 이론, 주격 중출, 이중 주어

학 번 : 2015-30036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 목적 및 배경 1

1.2. 연구 방법 9

1.3. 논의의 구성 18

제 2 장 정보구조 연구사 및 개념 정의 21

2.1. 개관 21

2.2. 화제 구조 연구 21

2.2.1. 화제-평언 구조 21

2.2.2. 화제의 특성 26

2.2.3. 정언문과 제언문 29

2.3. 초점 구조 연구 34

2.3.1. 배경과 초점 34

2.3.2. 총망라성과 대조성 36

2.4.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정보구조 연구 38

2.4.1. 한국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38

2.4.2. 일본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42

2.4.3. 미얀마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45

2.5. 인지언어학과 MTT 이론의 정보구조 관련 연구 48

2.6. 소결 51

제 3 장 한국어와 일본어의 화제 구문 대조 53

3.1. 개관 53

3.2. 기존 한/일 대조 연구 54

3.3. 한국어와 일본어의 정언 의문문/제언 의문문 대조.....57
3.3.1. 정언문-제언문의 세부 분류.....57
3.3.2. 제언 의문문의 대조.....59
3.3.2.1. 담화 신정보설, 신규 도입설, 화자 신정보설 비판..... 60
3.3.2.2. 제언 의문문의 성격과 일본어의 '-ga'의 제약..... 65
3.3.3. 정언 의문문의 대조.....68
3.3.3.1. 일본어 이중주어 불가능 구문..... 69
3.3.3.2. 일본어 이중주어 가능 구문..... 71
3.3.3.3. 의문문 화제 생략으로 인한 '-ga' 부각의 회피..... 72
3.4. 한국어와 대조를 통해 확인되는 일본어의 특수성.....74
3.5. 소결.....77

제 4 장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화제 구문 대조.....79
4.1. 개관.....79
4.2. 미얀마어 기존 연구 : 두 주격 표지 -ha와 -ka.....80
4.3. 구어체와 문어체, 그리고 '겉보기 구어체'.....86
4.4. -ha와 -ka의 기능.....89
4.4.1. -ha의 용법 재고찰.....89
4.4.2. 필수적 -ha : 배경 주격 표지.....94
4.4.3. 절대로 -ha가 불가능한 경우 : 초점의 존재.....97
4.4.4. 주어 구별 기능 : *-ka~ -ka / *-ha~ -ha.....103
4.5. 소결.....107

제 5 장 정보구조의 보편성.....111
5.1. 개관.....111
5.2. 화제 구조의 보편성.....112
5.2.1.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 : 대하여성과 장면화제.....112
5.2.2. 정언문과 제언문.....116

5.2.2.1. 정언문과 제언문 논의 검토 116
5.2.2.2. 정언문과 제언문의 재정의 118
5.2.3. 담화 구조 : 정언문과 장면화제의 관계 119
5.2.4.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 121
5.3. 정보구조의 본질 125
5.3.1. 초점의 의미와 배경의 활성화 범위 126
5.3.1.1. 대안 의미론과 구조 의미론 126
5.3.1.2. MTT의 레마와 진성 레마(Rheme Proper) 구분 128
5.3.1.3. 화제 구조와 초점 현상의 통합 130
5.3.2. 정보구조 : 화제-기반에서 서술을 윤곽화하는 동적 구조 135
5.3.3. 화제 구조의 인지적 설명과 형식화의 가능성 141
5.3.3.1.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지정과 이중 윤곽화 141
5.3.3.2. MTT의 정보구조 형식화 146
5.4. 소결 153

제 6 장 화제 구문의 유형론 155
6.1. 개관 155
6.2. 화제 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의 특수성 156
6.2.1. 일반 화제-장면화제 대립의 필수적 명세 158
6.2.2. 지각 장면화제 구문 161
6.2.3. 일본어 화제 구문의 추가 제약 165
6.2.4. 전경-배경 대립의 필수적 명세 167
6.3. 화제 구조 실현의 유형론 169
6.4. 소결 171

제 7 장 한국어와 정보구조 173
7.1. 개관 173
7.2. 주어의 재정의 필요성 174

7.2.1. 주어-술어 구조의 문제점 174
7.2.1.1. 화제로서의 주어와 술어 논항으로서의 주어 174
7.2.1.2. 의미 범주의 보편성과 형식 범주의 특수성 179
7.2.2. 술어 형식인 주어-목적어 논항으로서의 주어 185
7.2.3. 화제로서의 주어 검토 186
7.3. 주격 중출 구문과 정보구조 188
7.3.1. 화제의 다층 구조와 이중 주어 188
7.3.2. 이중 주어와 주격 중출 190
7.4. 보조사의 재해석 : 전경과 배경의 대비 193
7.4.1. 한국어 보조사의 초점 유형 193
7.4.2. 한국어 보조사의 대조 범위 195
7.5. 소결 197

제 8 장 결 론 199
8.1. 연구 요약 199
8.2. 정보구조 연구의 전망과 과제 202

참 고 문 헌 205

Abstract 219

약어 표기

ACC	accusative
ATTN	attenuative
BASE	base information
BG	background
CAUS	causative
CMT	comment
Comm-Dom	communicative dominance
CONT	continuative
DMorphS	deep morphological structure
DSyntS	deep syntactic structure
EMP	emphatic
EXCLAM	exclamative
FG	foreground
FOC	focus
FUT	future
IND	indicative
INFO	information unit
LOC	locative
MorphR	morphological structure
MorphS	morphological structure
MTT	Meaning-Text Theory
NEG	negative
NMZ	nominalizer
NOM	nominative
PART	participle
PF	perfective
PL	plural
PN	Proper Name
POL	polite

POT	potential
PRED	predication
PREV	preverb
PROG	progressive
Q	question
Q.wh	WH question
Q.yn	YN question
REL	relative
SBJ	subject
SemCommR	semantic communicative representation
SemCommS	semantic communicative structure
SemR	semantic representation
sem-R	semantic rheme
SemS	semantic structure
sem-T	semantic theme
SMorphS	surface morphological structure
SSyntS	surface syntactic structure
STG	stage topic
SyntR	syntactic representation
SyntS	syntactic structure
TOP	topic
{ } or BASE	base information
[ ]	profile
→	mental access path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문장의 의미는 화제와 그에 대한 서술로 구성된다.[1] 이 화제-서술의 의미 구조가 문장 구조로 실현될 때, 화제는 언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화제는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을 보이는데, 한국어는 이 대립을 필수적으로 명세하고 영어는 수의적으로 명세한다. 반면, 서술은 모든 언어에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언어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화제보다, 항상 표면에 드러나는 술어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더 집중해 왔다. 이를 '술어 중심 관점'이라 한다면, 본 연구는 '화제 중심 관점'을 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술어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화제 구조를 보편적 언어 구조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화제의 본질은 정보를 조직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조명함으로써, 정보구조가 언어 구조의 보편적 체계임을 고찰하고, 그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화제 구조의 세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언어학사 전반에 걸친 화제 중심 연구 전통을 계승하고, 인지언어학과 의미-텍스트 이론을 접목하여 화제 구조에 대한 인지적 설명과 형식적 모델 수립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 의미론 연구에서 발

---

1) 문장의 의미 또는 명제의 의미가 화제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시각은 언어 연구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서구 전통 논리학(term logic 또는 Aristotelian logic), Brentano(1874)의 정언문/제언문 구분, 프라그 학파의 테마-레마(theme-rheme) 개념, Strawson(1964)의 명제 판단 기반으로서 화제 개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화제-서술 중심 관점은 다양한 기능주의 언어 이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한 초점 관련 이론을 화제 중심 관점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형론적 근거로서,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관련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술어 중심 관점으로 치우친 언어학의 무게 중심을 화제 중심 관점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의 특수성 연구가 언어 이론의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언어 보편적 정보구조에서 화제는 의미적으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제의 문법적 실현은 언어에 따라 필수적이기도, 수의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언어 유형 분류로서, 화제를 반드시 실현하는 언어는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obligatory topic specifying languages)'이다.[2]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에 해당한다. 두 언어는 화제 표지의 유무에 따라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의 명확한 대립을 보이고, 이를 통해 화제 구조의 인지적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달리 화제 표지가 필수적이지 않은 언어들은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optional topic specifying languages)'라고 할 수 있다. 영어 등 대부분의 언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언어들은 유표적 화제 구문을 통해 화제를 명시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화제의 판단을 청자의 추론에 맡긴다. 미얀마어의 경우도 여기에 속하긴 하지만, 독특하게도 두 개의 주격 표지가 각각 전경 정보

2) 문법 범주의 필수적 표시(obligatory marking) 체계에서는, 범주의 대립(opposition)이 구문의 대립으로 직접 반영된다. 따라서 구문의 무표형(unmarked form)은 유표형(marked form)의 반대 범주 값을 실현한다(Bickel & Nichols 2007: 213). 반면 수의적 표시(optional marking)에서는 무표형에 범주 값이 미명세되어 두 범주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으므로, 무표형의 범주 값은 문맥이나 추론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수(number) 범주 표시는 일부 문맥을 제외하면 유표형 '-s'는 복수를, 무표형 '-ø'는 단수를 실현한다. 이와 달리, 한국어의 수 표시는 수의적이기 때문에 무표형이 단/복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고, 유표형 '-들'은 복수를 명확히 할 때에만 수의적으로 쓰인다.

와 배경 정보를 대립적으로 표시하는 '필수적 배경 표시 언어(obligatory background marking languages)'이다. 이는 화제에서 인출되는 정보가 전경과 배경으로 대립됨을 드러내 주는 문법 현상이다.

'필수적 화제 명세(obligatory topic specification)'로 인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심리적, 의미적 층위의 화제 구조를 직접 반영한 화제 구문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그리고 미얀마어는 '필수적 배경 표시'를 통해, 화제 구조의 한 측면인 전경-배경의 대립을 문법 표지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세 언어는 화제 구조 연구의 기준으로 삼기에 좋은 언어들로서 '화제 중심 언어(topic-oriented languages)'[3]라고 부를 수 있다.

기존 정보구조 연구의 한계

그런데, 기존 정보구조 연구는 이 '화제 중심 언어'보다 '술어 중심 언어(predicate-oriented languages)'[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술어 중심 언어는 앞에서 언급한 수의적 화제 명세

---

3) 화제 구조 관련 표지가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언어를 '화제 중심 언어'로 분류하였다. Li & Thompson(1976)는 Lisu, Lahu, 중국어, 한국어 등 '화제 부각 언어(topic-prominent)'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Lisu와 Lahu는 미얀마어와 함께 Lolo-Burmese어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화제 부각 언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기존 용어의 화제와 주어 개념이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전반에 걸쳐 '화제 중심 언어관'과 '술어 중심 언어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있게 '화제 중심 언어'라는 용어를 썼다.

4) 화제 표시가 두드러지지 않는 언어를 '술어 중심 언어'라고 분류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어는 화제를 별도로 표시하는 화제 구문을 가지고 있다(Li & Thompson 1976: 459). 영어를 예로 들면, 'John, he is intelligent' 같은 제시어 화제 구문이 있고, 'as for', 'about', 'speaking of' 등의 구문도 화제 표현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을 화제-서술 구조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취급한다면, 아마도 모든 언어는 '화제 중심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Wierzbicka(1975)는 당시 생성문법 연구자였음에도, 이러한 화제 구문이 표층적 '기본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보고, 모두 화제-평언의 심층구조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수의적 표시'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화제 구조의 일부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기제가 있는 언어에 한해서 '화제 중심 언어'로 분류하였다.

언어이다. 영어처럼 화제의 문법적 실현이 수의적인 언어에서 출발하면, 의미 층위에서 필수적인 화제를 수의적인 요소로 다루기 쉽다. 만약, 이렇게 화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한국어에서 증거성의 실현이 수의적이므로 증거성이란 의미 범주마저 언어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의미 범주로서의 시제, 상(aspect), 양태, 증거성 등이 언어 보편적 범주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단지 이 보편적 의미 범주들이 개별 언어 또는 특정 구문에서 실현되는 방식은 필수적일 수도 수의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유형론적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는 화제도 마찬가지로 의미 층위에서 필수적인 범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제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구조는, 마음 속 저장소에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의미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여 언어 구조로 조직해 내는 인지적 기제라 할 수 있다.[5] 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담화, 화용, 의미, 통사, 음운 측면 중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연구의 관점이 화제 구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술어 구조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술어 논리와 생성문법 등의 형식 언어학은 술어 논항 구조의 형식화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술어 중심 관점에서 생기는 몇 가지 경향을 띠게 된다. 대표적으로, 술어 논항 중심의

5) 본 연구는 언어 구조를 심리적,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는 소통 기능이 언어 구조를 결정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소통 기능의 구조는 Mel'čuk의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의 핵심 개념인 의미-소통구조이기도 하고,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지 체계 및 주의체계이기도 하다.

주어 개념을 들 수 있다.[6] 또한 주어-술어 구조를 보편적 구조로 보려는 경향도 이에 해당된다.[7]

물론 이러한 접근법들은 술어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언어를 형식화하여 이해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에서 출발하는 정보 처리의 인지적 과정과 언어 구조가 조직되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언어 산출보다 언어 해석에 설명을 집중해 왔고, 의미 정보를 조직해내는 핵심적 기제인 정보구조를 부차적 또는 병렬적인 기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구조는 언어 보편성보다는 개별 언어의 특수성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화제 중심 관점과 술어 중심 관점

언어학사적으로 접근할 때,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언어학을 크게 화제 중심 언어학과 술어 중심 언어학으로 나누어 보았다. 술어 중심의 언어 모델은 언어 구조를 해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따라서 청자 중심의 분

---

6) 주어의 정의는 다양하다. 그 중 영어와 같이 주격과 화제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인식되는 언어의 경우, 주격 중심의 주어-술어 구조를 상정하더라도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기존 주어 개념을 화제 중심 언어와 능격-절대격 정렬 체계 등의 언어 유형에 적용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은 거듭 지적되어 왔다.

7) 대표적으로 Chomsky(1965: 221)는 “기초적인(fundamental)” 주어-술어 구조를 심층 구조로 상정하고, 화제-평언 구조는 이에 대응되는 표층 구조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영어의 유표적 화제 구문 ‘John, he is intelligent’ 등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화제 중심 언어의 분석에서 출발하면, 화제 구조가 심층 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어 설명이 더 단순해진다. 사실 초기 생성문법의 심층-표층 구조는 화제 중심 언어관과도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화제를 중심으로 보면, 생성 규칙 ‘S→NP VP, VP→V NP’는 화제-서술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제에서 출발해서 NP(화제)-VP(서술)이 조직되는 과정이 내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층-표층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심층 구조인 화제-서술 구조를 표면 구조로 판단한 것에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석을 선호한다. 반면, 화제 중심 언어 모델은 주로 심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형식적 일반화보다는 언어의 인지적 기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Langacker 등의 인지언어학이 대표적이고, Mel'čuk처럼 엄밀한 형식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언어의 산출 과정에 더 주목하였고, 따라서 화자 중심의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8)]

술어 중심 언어학은 연역적, 합리주의적 모델이다. 먼저 형식적 일반화를 추구하고, 그 틀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해석해 나간다. 따라서, 일부 언어 분석만으로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 반면 화제 중심 언어학은 귀납적, 경험주의적 모델이다. 마음 속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일반화를 보류하고 다양한 유형론적 증거를 찾은 후에 일반화하려는 경향을 띤다.

두 관점 모두 소쉬르의 구조주의를 계승하고 있지만, 계승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술어 중심관은 (술어의) 구조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언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구조를 일반화'해야 한다. 따라서 표면으로 실현된 문장 구조에서부터 접근하게 되고, 이는 기의(signifié)보다 기표(signifiant) 측면에서 언어 구조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히 기표에서 기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가 중요해지므로, 언어를 해석적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형식 의미론과 생성문법이 형식적 일반화를 우선시하는 점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 일반화에 담화, 화용 요소를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일단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의미론과 통사론의

8) 두 관점이 명확히 양분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연구는 두 관점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관점이 언어 구조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과, 두 관점 중 어떤 관점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연구 방법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분석 대상이 문장 단위로 제한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화제 중심관은 소쉬르의 기의-기표 관계 중 기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의에서 기표가 도출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즉, (인지적, 소통적) 의미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 기능이나 인지적 작동 방식을 먼저 따져보게 된다. 그리고 이면의 기의로부터 출발하여 표면의 기표로 실현되는 과정, 즉 언어의 산출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기의에서 기표로의 실현 관계를 담당하는 구문[9]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 차이를 보면, 술어 중심 언어학에서 왜 중의성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표면 구조에서 해석적 접근을 하므로, 동일한 표면형에서 다른 의미가 도출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중의성을 설명하려면 구조의 차이를 제시해야 하고, 자연히 형식적 구조의 일반화가 우선시된다. 생성 문법과 형식의미론이 형식적 일반화를 중시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일부 언어 또는 하나의 언어만을 근거로 삼아 형식적 일반화를 하기도 한다. 정보구조 논의에서 화제 구조가 문장 구조에 부가적인 기제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화제가 문장 구조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언어에서 형식적 일반화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화제 중심 언어학은 중의성의 문제와 형식화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표면 구조가 아닌 이면의 의미 기능과 소통 기능에서 출발하므로, 의미가 문장으로 조직화되는 방식 즉 언어의 산출을 중시한다. 따라서 중의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형식화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

9) 구문은 의미극과 음운극으로 이루어진 상징 체계의 기본 단위이다. 소쉬르가 기호(sign)를 기의-기표 관계로 설명한 것을 충실히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구문은 상징 구조(symbolic structure)의 기본 단위로서 인지문법 핵심 개념이다(Taylor 2002: 541).

왜냐하면, 언어의 산출 방향에서 볼 때 중의성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기보다, 원래 다른 의미 구조가 언어 표현의 경제성을 위해 하나의 구문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면의 조직화 방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 또는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관념적, 철학적, 심리학적인 설명의 경향을 강하게 띠기도 한다. 정보구조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언어의 산출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화제의 본질적 기능인 대하여성과 이로 인해 주어지는 화제의 필수성을 중시하게 된다.

두 언어관의 장단점을 간단히 언급해보면, 술어 중심관의 장점은 일반화가 빠르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형식화를 통해 모호한 설명을 제거한다는 점이다.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등의 구분은 분리와 정복을 통해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언어 연구가 철학적 논의를 넘어 과학적 방법론을 지향하게 해주었다. 언어 분석에 있어 명확한 분석 틀과 기준을 제시하므로, 새로운 언어 현상이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 경우 설명이 쉽다.

술어 중심관의 단점은 일반화의 단계에서 내재하는 것들로, 성급하게 일반화할 경우 언어의 심리적, 신경생리적 실재와 괴리될 수 있다. 만약 전제가 틀렸다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논의들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 현상이 일반화한 이론과 다를 때,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론의 예외를 설정하거나, 설명을 시도하더라도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화제 중심 언어관은 심리적 실재를 추구하고, 유형론적 다양성 우선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관념적, 철학적 논의로 흐르는 경향과, 현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반화가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아직 우리가 가진 언어 구조의 실재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어,

통합적인 모델 제시가 힘들고 형식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구조를 보편적인 인지 능력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Mel'čuk의 의미-텍스트 이론처럼 치밀한 형식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두 언어관 사이에 간헐적인 논쟁이 있어 왔지만 거리를 좁히기보다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진 듯하다.[10] 술어 중심관, 즉 술어에서 출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은 언어 해석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리고 언어 산출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등의 약점은 관점을 전환할 때 충분히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제 중심관, 즉 화제에서 출발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취한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화제 구조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술어 구조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화제 중심 접근법을 취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화제 구조가 언어 구조의 보편적이고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술어 중심 연구 성과들과 접점을 찾는 것은,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하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설명한 화제 중심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간

---

10) 최근 대표적인 논쟁으로 Chomsky를 비판한 Ibbotson & Tomasello(2016)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 Max Planck 연구소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이자 언어학자인 Tomasello는, 생성문법에 대한 '조종(death knell)'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Horgan(2016)에 이 논쟁이 잘 소개되어 있다. Wierzbicka(2013)에서 영어 중심의 언어관에 대해 비판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omsky는 인지언어학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i 2013).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화제 중심 논의들을 '화제는 언어 처리의 출발점이고, 이 화제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언어 처리 방식이 곧 정보구조이다'라는 핵심 주장을 통해 하나로 엮을 것이다. 여기서 화제 중심 논의란, 전통적인 화제-평언 구조 관련 연구, 인지언어학의 주의체계와 윤곽화(profiling) 개념, 형식화 이론인 의미-텍스트 이론 등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구조 의미론에서 초점 설명을 위해 도입한 대안 집합 개념을 재해석하여 정보구조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 이론들을 종합하여 재정의한 화제 중심의 정보구조는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의 화제 구문을 새롭게 조명하여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달리 말하면, 세 언어의 화제 관련 현상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실증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한국어 구조에 대한 논쟁적인 해석을 제안하고, 한국어의 화제 구문이 지닌 특수성은 정보구조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화제 중심의 언어 연구 전통

모든 문장은 화제-서술 구조의 문법적 실현이다. 이는 전통적인 '화제-평언' 견해로서, 일찌감치 Weil(1844), Brentano(1874), Paul(1880) 등에서 시작되었고, Mathesius(1928), Firbas(1962, 1964) 등의 프라그 학파를 거쳐, Halliday(1967), Chafe(1976) 등으로 이어져온 전통적 기능주의 언어관이기도 하다.[11] 이 연구들이 공유하는 화제-서술 구조의 보편성은, 화제가 없는 문장도 암묵적 화제를 가짐으로써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

11)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서양의 전통 논리학(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또는 term logic)도 주어-술어라 할 수 있는 두 단위(term)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의 주어-술어 개념은 현재 통용되는 주어-술어 개념이라기보다, 화제-서술 구조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Sommers & Englebretsen 2000).

화제가 모든 문장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Strawson(1964)에 기반한 Gundel(1974), Erteschik-Shir(1997) 등의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 또는 '화제가 없는 듯한 문장의 화제는 장면화제'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Brentano(1874)를 계승한 Kuroda(1972, 1992, 2005), Sasse(1987), Lambrecht(1994) 등의 정언문/제언문 구분 논의를 검토하여, 이 구분이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으로 재정의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정언문/제언문은 화제 구조의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을 직접 반영하는 문장 유형이 된다.[12)]

초점 이론의 재해석

화제-서술 구조의 보편성에 초점 구조의 설명을 잘 결합하면, 정보구조의 세부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배경-초점 구조는 Jackendoff(1972)의 전제(presupposition)-초점 구조를 계승하여, Rooth(1985, 1996), Krifka(1991), Partee(1991) 등의 구조 의미론(structured meaning semantics)에서 완성되었다. 이들은 배경-초점 구조에서 배경을 잠재적 명제 집합, 즉 대안 집합으로 보았다. 단, 문장의 의미를 술어논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점은 본고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문장의 의미를 정보구조가 동적

---

12) Kuroda(1972)의 정언문/제언문 구분은 문장 유형이고, Brentano(1874)의 정언 판단/제언 판단(또는 이중 판단/단일 판단)이란 의미 유형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제언 판단 또는 단일 판단으로 생각한 '비가 온다' 같은 제언문도 장면화제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제언문도 장면화제에 대해 정언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판단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이 가능하다.

a. 장면화제의 여부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
b. 명시적 화제와 암묵적 화제

여기서 (b)의 문제는 동일 화제 진행에 따라 화제가 생략되는 화제생략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철수가 [FOC밥을] 먹었다'와 같은 논항 초점 구조의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본고는 (a) 장면화제를 정언문/제언문 구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조직화를 통해 구문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의미론의 대안 집합 개념은, 문장의 의미가 단순 명제 정보가 아닌 배경 정보와 초점 정보로 조직됨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이 '배경에서 선택된 초점'이란 설명을 인지언어학의 기반-윤곽 개념과 연결하여 정보구조 재정의에 활용할 것이다.

인지언어학과 MTT 이론을 활용한 정보구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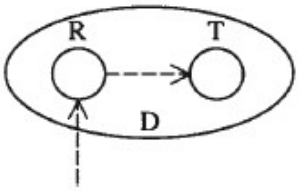
모든 언어 표현은 심리적 층위의 구조가 구문으로 실현된 것이다. 심리적 구조가 구문으로 실현된 것이 문장이라는 주장은 여러 기능주의 연구와 인지언어학의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본 연구의 새로운 주장은 이 심리적 구조가 바로 정보구조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다. Mel'čuk(2012)의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에서도 정보구조에 해당하는 의미-소통구조 층위가 통사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층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구조란 우리의 주의 체계(attentional system)가 화제에서 출발하여, 화제-기반 정보(topic-base information)로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정보 간의 조직이 형성되며, 이렇게 재조직된 정보의 구조에서 주의의 지점과 범위가 이동함에 따라 선택된 정보의 구조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화하는 문장은, 이 재조직된 정보구조가 어휘부에 존재하는 통사-음운 규칙에 따라 구문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인지적으로는 인지언어학의 바탕-형상(ground-figure) 개념과 기반-윤곽(base-profile) 개념을 통해 이론적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인지적 과정은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다.

인지언어학의 설명을 도입하면, 정보구조는 심리 접근 경로(mental access path)에 따라 조직화되는 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지언어학

의 참조점 이론(reference point account)을 정보구조 설명에 통합한 결과이다. 심리 접근 경로는 주의 체계(attentional system)의 구체적 작동 방식으로서, 인지적 주의 능력이 참조점(Reference point, 화제에 해당)에서 출발하여, 참조점에 연결되어 활성화되는 정보들(연계 영역, Dominion, 기반에 해당) 중에, 목표점(target, 초점에 해당)[13]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말한다. 아래 그림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점선 화살표가 심리 접근 경로를 나타낸다.[14]

(1) Langacker(2009: 45-50)의 참조점 이론



본 연구는 이 참조점이 바로 화제이고, 연결영역은 기반 정보이며, 목표점은 기반 정보에서 윤곽화(profiling)된 서술(predication)에 해당한다고 재해석하였다. Langacker의 참조점은 또한 Mel'čuk의 의미-소통 구조(Sem-CommS)의 진입 노드(entry node)와 유사하다. 이 이론들은 모두 정보 처리의 출발점이란 화제의 성질을 잘 포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설명을 확장하여 참조점이 목표점으로 연결되고 또 그

---

13) 참조점, 연계 영역, 목표점이 화제, 기반, 초점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인지언어학 문헌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조점 이론과 정보구조가 동일한 인지적 기제에 대한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14) 기본적으로 이 설명은 화제 구문보다 주어-목적어 또는 주어-술어 관계 설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Langacker(1993, 2009)는 정보구조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영어의 화제 구문인 "Your uncle, he really should get married" 같은 문장과 일본어의 '이중주어문'을 훌륭히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유표적 화제 구문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 사례는 본 연구의 논리 전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목표점이 다른 목표점으로 연결되는 연쇄 구조를 화제 연쇄 구조라고 부를 것이다. 이 화제 연쇄 구조 또는 화제 중심 정보구조는 문장 구조 이면의 심리적 구조이다. 이 심리적 구조가 문장 구조로 표면화되는 것은 구문(construction)의 사상(mapping)에 의해 가능해진다. 구문은 의미극과 음운극을 가지는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 인지언어학의 기본 개념이다.[15] 구문은 정보구조를 문장구조로 바꿔주는 일종의 번역 장치로서, 소위 어휘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과 의미-텍스트 이론의 언어 모델을 참고하여, 본 연구가 상정하는 언어 모델을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화제 중심 언어 모델

a. 의미부 : Mel'čuk의 의미구조(SemS)에 해당한다. 순서 없는 정보들의 연결망으로서 원천 정보(raw data)라고 할 수 있다.

b. 정보구조 : 화제 구조 또는 정보처리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Mel'-čuk의 의미-소통구조(SemCommS)에 해당한다. 의미부의 정보망, 즉 저장되어 있는 원천 정보들을 인출하고 갱신하는 정보처리 구조이다. 정보구조는 주의 체계(인지언어학 개념)의 통제 하에 원천 정보를 언어 구조로 조직해 내는 동적 기제이다.

c. 구문부 : 어휘부로서 표면적 형태, 음운, 통사의 패턴이 저장된 번역 장치 또는 접면부(interface)이다. 인지언어학에서 의미극과 음운극으로 설명하는 구문의 개념과 동일하다.

---

15) 구문은 상징 구조(symbolic structure)의 기본 단위로서 인지문법 핵심 개념이다(Taylor 2002: 541). 구문이 의미극과 음운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쉬르가 기호(sign)를 기의-기표 관계로 설명한 것을 계승하였다. 구문은 의미+음운의 상징적 연합체(symbolic association)이고(Langacker 1987: 58), 이 중 의미 부분을 의미극(Semantic pole), 음운 부분을 음운극(phonological pole)이라고 한다(Langacker 1987: 81, 1991:46). 그리고 구문의 의미극을 서술(predication)이라고 하고, 이 서술의 의미적 경계를 윤곽(profile)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술을 선택한다 함은, 배경 정보 또는 기반(base)에서 구문의 직접적인 의미 경계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즉 기반에서 서술을 선택하는 것 또는 구문을 선택하는 것을 윤곽화(profiling)라고 한다.

구문의 사상(mapping)은 구문의 의미극이 선택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문 의미극의 선택이란, 정보구조에서 윤곽화(profiling)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6] 의미부에서부터 정보구조까지는 모든 언어에 동일한 보편적 심리적 구조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윤곽화와 구문의 선택은 언어별, 구문별로 특수성을 가진다. 이 윤곽화의 범위와 순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언어별, 구문별로 어순이 달라지고, 선택되는 어휘가 달라지며, 논항 구조가 달라지고, 적용되는 문법 요소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윤곽화가 화제 연쇄 구조에 윤곽을 부여할 때, 그 범위가 언어별로 또는 구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한다.[17]

---

16) 인지언어학에서 윤곽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동일한 기능이다. 첫째, 구문의 의미 설명에서 주로 윤곽화 개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팔꿈치'란 구문의 의미는 '팔'의 의미(base)가 전제되고, 그 일부인 팔꿈치 부위가 윤곽화(profiling)된 것이다. 둘째, 발화를 위한 구문의 선택에서도 전제된 배경지식 또는 장면 정보들 중 일부를 선택한다는 뜻으로 윤곽화를 사용한다. 후자는 특히 서술(predication)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직관적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배경 정보 중에 일부를 윤곽화하여 어휘 또는 구문에 대응시킨다는 인지적 기능은 동일하다. 서술 개념도 마찬가지로 두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7) 본 연구는 윤곽화를 주요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화제 구조의 기본 뼈대인 화제-서술 정보 단위에 적용하는 데 그쳤다. 예를 들면, 화제 정보를 별도로 윤곽화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윤곽화 내부의 연쇄적 부분 윤곽화를 상정할 수 있다. 즉, 구문의 선택 후 구문 내부 요소의 선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가령, 서술 정보 윤곽화에 대해 따져 보면, 술어 구문 내부에서 구문의 하위 요소들을 선택해 나가는 데에도 화자의 의도에 따른 순서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유동적인 논항의 어순이나 수식어구의 실현 여부 등은 발화 과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정보의 범위와 순서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다층적 윤곽화의 적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화제-서술 또는 화제 연쇄 구조에 적용하는 것 이상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 과정에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논항 구조 연구 성과들과 접목시킬 계획이다.

정보구조의 재정의

이렇게 화제 이론, 초점 이론, 인지언어학 등의 주요 개념 및 논의를 종합하여, 화제 중심 정보구조를 최소한의 형식적 표상을 사용하여 재정의하고자 한다. 본문의 논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모델인 (1)의 도식은 '참조점→{연계영역 [목표점]}'의 형식으로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이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정보구조 개념과 결합하여 '화제→{기반 [서술]}'로 형식화할 것이다. 이로써, 정보구조는 화제로부터 활성화되는 수많은 기반 정보 중 하나를 윤곽화하여 서술로 선택하는 인지적 흐름과, 그로부터 조직되는 정보들의 구조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윤곽화를 '[ ]'로 표시하였는데,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는 화제를 항상 윤곽화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이 언어들은 화제가 윤곽화된 '[화제]→{기반 [서술]}'의 구조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미얀마어에서는 이 구조의 다른 측면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어는 필수적 배경 명세 언어로서 윤곽화가 전경만이 아닌 배경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화제→{기반}' 구조를 '화제→{전경, 배경, …}' 구조로 상세화할 것이다. 그러면, 미얀마어는 '화제→{[전경], 배경, …}'과 '화제→{전경, [배경], …} 구조간 윤곽화의 차이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구문의 대조 연구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는 독특한 화제 구문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두 언어의 차이점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더구나 미얀마어는 화제

구문의 독특한 특성을 보임에도, 정보구조의 연구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세 언어의 화제 구문 실현의 차이를 정보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 윤곽화의 특수성으로 설명하였다.

한국어, 일본어의 '-는'과 '-wa'는 화제를 명시적으로 실현하는 정언문 표지이고, '-가', '-ga'는 화제가 아닌 주격 표지로서 제언문에 쓰인다. 그런데 왜 두 언어는 일부 구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또한 미얀마어의 '-ha', '-ka'는 둘 다 주격 표지인데, 도대체 두 표지는 화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기능의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 이 차이들은 화제 구문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며, 화제 구문의 차이는 우리 인지 체계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언어의 대조 연구는 인간의 인지 체계의 주요한 특성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언어들을 대조하고 분석하면, 정보구조의 보편성을 가늠하고 언어별 구문 실현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의미적 범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범주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기제가 발달된 언어들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화제 구문이 다양하게 발달한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는 화제와 관련한 의미적, 심리적 범주를 정의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언어들의 정보구조 연구는 대개 언어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의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 게다가, 개별 언어 연구에서조차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언어들이 정보구조 연구의 기준으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구어 중심 정보구조 이론에 부차적 자료로 활용되거나, 그 이론을 세 언어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영어는 화제 정보

의 윤곽화가 단일 절 형식의 구문으로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화제 정보가 절 외부에 실현된 'John, he is intelligent' 등의 유표적 화제 구문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유표적 구문은 무표적 구문 'John is intelligent'와 대립적이지 않다.[18] 이렇게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에서는 '정보의 출발점'으로서 화제의 필수성을 간과하기가 쉽다.[19]

반면,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화제 구조와 관련하여 두 개의 대립적인 주격 표지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어는 화제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 구문들이 발달해 있다. 그러므로 이 언어들을 정보구조 연구의 기준으로 삼아 유형론적 대조 연구를 확장하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정보구조 실체를 밝히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제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에 바탕이 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관련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화제 구조와 관련하여, 화제-평언 논의, 테마-레마 구조, 이를 계승한 정보구조, 장면화제, 화제 진행 등을 다루고, 정언문/제언문 논의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다. 초점 구조 관련해서는 초점-전제 구조, 양화 관련 초점 논의, 관계적 신정보 등을 요약

---

18) 영어 'John is intelligent'는 한국어의 두 구문 '존은 똑똑하다'와 '존이 똑똑하다'의 화제 대립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즉, 영어의 무표적 구문에서는 화제가 명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9)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에서는 더 기본적인 문장 유형으로 보이는 주어-술어 구조로부터 변형 또는 이동을 통해 화제 구문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을 하기 쉽다. 널리 쓰이는 '화제화'란 개념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화제의 필수성과 정보 출발점의 성격을 전제한다면, 화제 구문은 화제 정보가 별도로 윤곽화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하고, 초점 구조와 화제 구조를 결합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학에서는 초기의 주제어 견해와 서술절 견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의 이론적 발전을 살폈다. 일본어학계와 미얀마어학계의 관련 논의도 소개하였고, 인지언어학과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정보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일본어와 미얀마어를 한국어와 대조하여 각 언어 화제 구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일본어와 미얀마어의 특징을 새로 제시하였다. 한-일 대조 연구를 통해, 기존 대조 연구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특수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일본어의 특수성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일본어는 일부 구문에서 '-ga' 실현 제약이 있음을 보이고, 이를 하위 화제로의 이동으로 설명하였다. 미얀마어는 지금까지 서양과 일본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두 주격 표지 '-ha/-ka'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이 힘들어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 미얀마어는 별도의 화제 표지는 없지만, 두 주격 표지가 각각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를 담당함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관찰들의 장점들을 종합하여, 화제 구조의 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화제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관찰인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와 "모든 문장은 정언문(일반 화제문)과 제언문(장면화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장면)화제-평언' 구조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초점 이론을 접목하여, 초점 현상이 화제 연계 정보의 종합과 선택을 반영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으로서, 인지언어학의 기반-윤곽 개념과 정보구조를 통합하여, 화제→{기반} 구조를 제시하였

다. 특히 Langacker(1993)의 참조점 이론을 적용하여 화제 구문을 심리 접근 경로와 윤곽화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재정의된 정보구조는 보편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화제 구조의 보편성과 구문 실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미얀마어, 일본어가 화제 표지 실현에 드러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세 언어는 동일한 화제 구조라고 하더라도 윤곽화하는 화제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제를 필수적으로 윤곽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국어는 화제 윤곽화에 제약이 가장 적고, 일본어는 일부 구문에서 상위 화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한편, 미얀마어는 화제 표지는 없지만, 배경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배경문 표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전개한 정보구조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관련 현상들을 새롭게 분석해보았다. 우선 한국어에 주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기존 주어 개념은 언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술어 논항으로서의 주어 개념은 개별 언어의 기술적(descriptive) 범주는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의미 범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하였다. 이러한 화제와 주어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한국어의 이중 주어문을 새롭게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중 주어문의 상위에 장면화제 등의 화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주격 중출문에 대해서도 분석을 새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초점 현상과 관련한 한국어의 보조사도 초점 유형과 대조 범위라는 개념으로 기존과 다른 설명을 시도하였다.

제 2 장 정보구조 연구사 및 개념 정의

2.1. 개관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언어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의미, 화용론뿐만 아니라 형태, 통사 및 음성, 음운 연구에까지 관계없는 분야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정보구조를 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최소한 정보구조의 연구 대상이 화제(topic) 또는 초점(focus)과 관련된 문법 현상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화제 중심 정보처리 구조와 연결되는 연구들을 위주로 연구사를 정리하고, 관련 개념들의 정의를 검토하여 주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20)]

2.2. 화제 구조 연구

2.2.1. 화제-평언 구조

화제-평언(topic-comment)[21)] 구조에 대한 초기 논의는 프랑스의 문헌학

---

20) 이 장의 제2절과 제3절, 그리고 제4절의 한국어 부분은 정승철(2018)에서 정보구조 연구사를 화제 중심으로 정리한 것을 논의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여 옮겼다.

21) topic-comment는 '화제-논평', '주제-평언', '주제-언급', '주제-설명'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된다. 최근 정보구조 논의에서는 topic-focus를 '화제-초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제'보다 '화제'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반면, 유사한 개념인 프라그 학파의 theme-rheme은 '주제-평언'으로 많이 번역되어 왔고, 한국어학 전통에서도 '-는' 성분에 대해 대체로 '주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담화와 문장 층위를 구분하여 용어를 나눠 쓰기도 한다. 본 연구는 topic이 정보구조의 중심이고, 담화 층위와 문장 층위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화제'로 통일하여 부르

자 Weil(1844)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화자와 청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출발점, 즉 초기 개념이 있어, 두 사람의 지식이 일치되는 바탕을 형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담화 부분이 있어 엄밀한 의미의 진술을 형성한다. 이 구분은 우리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발견된다. (Weil 1844: 29)[22]

이러한 관찰은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젊은이 문법학파의 대표적 연구자인 Paul(1880)은 문장을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와 심리적 술어(psychological predicate)로 양분하였는데[23], 이 심리적 주어란 개념은 이후 화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Brentano(1874)의 정언적 판단이란 개념도 유사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2.2.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들의 관점은 프라그 학파에 이르러 테마-레마 구조로 불리면서 언어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라그 학파의 기능적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은 슬라브어에서 문장이 어순을 달리하였을 때 드러나는 의사소통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24] 먼저 Mathesius(1928)는 모든 문

기로 했다. 한편, ‘comment’의 경우 ‘논평, 평언’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의미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임홍빈 2007)이나 ‘설명’(박철우 2017)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급’과 ‘설명’은 널리 쓰이는 편이 아니므로, 일단은 평가의 어감이 ‘논평’보다 적은 ‘평언’ 정도로 번역해 두었다.

22) "There is then a point of departure, an initial notion which is equally present to him who speaks and to him who hears, which forms, as it were, the ground upon which the two intelligences meet; and another part of discourse which forms the statement (l'énonciation), properly so called. This division is found in almost all we say." (Weil 1844: 29)

23) Paul(1880: 100-102)은 Gabelentz(1869)가 “psychological subject”와 “psychological predicate”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구분은 19세기 말에 F. Brentano, A. Marty, W. Wundt, E. Husserl 등에 의해 매우 활발히 논의되었다.

24) 프라그 학파는 체코에서 1929년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장이 테마-레마(theme-rheme)[25]로 구성되며 테마를 발화의 시작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Firbas(1962, 1964, 1992)는 메시지 진전 정도를 나타내는 통보력(CD, communicative dynamism)이란 측면에서, 테마는 이 통보력이 가장 작은 요소이고 레마는 통보력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요소들을 전이(transition)이라고 하여 '테마(최소 통보력)–전이(중간 통보력)-레마(최대 통보력)'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Daneš(1974: 123)는 테마 진행(thematic progression)의 세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a) 선행 테마 유지, (b) 선행 레마의 테마 전환, (c) 상위 테마(hypertheme)[26]의 부분 집합이 테마로 전환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27]

(1) 화제 진행 방식 (T: 테마, R: 레마)

a. 선행 화제 유지

T1→R1
↓
T2→R2

b. 선행 초점이 화제로 전환

T1→R1
↓
T1→R2

c. 상위 화제의 부분이 화제로 부각

[T] (hypertheme)
↙ ↘
T1→R1 T2→R2

슬라브어의 자유 어순과 문말 초점 억양 경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화제-초점 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세밀한 관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5) 프라그 학파는 화제-평언 구조를 'theme-rheme'로 불렀는데, 이 글에서는 프라그 학파 고유의 개념을 살리기 위해 '테마-레마'로 번역하였다.

26) 상위화제란 담화에서 제한되는 지시체의 집합으로서 앞의 문장에서 나열될 수도 있고,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도입될 수도 있다.

27) Erteschik-Shir(2007: 2-3)에서는 각각을 화제 연쇄, 초점 연쇄, 파생 화제라고 하였다. 이 세 가지 외의 화제 선택 방식으로는, "이 의자는 아주 튼튼하다"에서와 같이 담화 상황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와, "지구는 둥글다"에서처럼 개체가 담화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Hajičová(1983), Sgall, Hajičová, and Panevová(1986)는 맥락에 얼마나 결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테마와 레마를 각각 CB(contextually bound)와 NB(contextually non-bound)로 설명하고, 문장의 기저 표상으로 화제-초점 분절(TFA: Topic-Focus Articulation)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보력 위계는 좌에서 우로 반영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대하여성[28]을 중시하는 테마-레마 개념보다 주어짐성[29]을 강조한 CB-NB를 논의하였다. CB와 NB는 초점에 보다 중점을 둔 논의로 제2.3절에서 다루는 초점-배경 구조에 약간 더 가깝다.

프라그 학파의 논의는 Halliday(1967)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Chafe(1976)의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으로 이어졌다. Halliday(1967)는 화용론적 차원에서 구정보(given information)와 신정보(new information)의 대립을 중심으로 명제의 구조화에 주목하였다. 이전 담화와 관련한 텍스트의 구조화 양상을 정보 체계(information system)라고 하였고, 이 체계에서 명제 정보의 각 요소가 담화에서 주어진(given) 것인지, 새로운(new)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문장에 반영하는 것이 정보구조라고 하였다. 신정보는 운율적 돋들림(prominence)을 수반하는 초점으로 실현되고, 구정보는 조응적(anaphoric) 요소들로 실현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제화(thematization)라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이전 담화와 무관한 절의 구조화

---

28) 화제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대하여성'을 바탕으로 한다. 대하여성(aboutness)이란 용어는 문헌정보학(LIS)에서 Fairthorne(1969)이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고, 언어학에서는 Hutchins(1975)가 확산시켰다. Hutchins는 '주어'(subject)가 어원 때문에 야기되는 혼란이 있으므로 '대하여성'(aboutness)을 선호하였다.

29) 주어짐성(givenness)은 구정보/신정보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보가 담화에서 또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인지 여부를 말하는 용어이다. Chafe(1974)에서 Halliday(1967)의 'given' 개념을 받아들여 사용하였고, 현재 정보구조 논의에서 대하여성(aboutness)와 함께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이다. 즉 문장의 정보구조는 담화상의 구정보와 신정보가 문장에 반영된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이 구정보인 요소들 중에 일부를 문장 구조에서 주제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제는 절 내에서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문두에 실현되는 속성을 가지므로,[30] 문두의 성분은 대부분 주제가 된다. Halliday는 대조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프라그 학파의 통보력 개념을 빌려와서, 통보력의 정도가 낮은 주제를 무표적 주제(unmarked theme)라고 하고, 통보력의 정도가 높은 주제, 즉 대조나 강조 의미를 띠는 주제를 유표적 주제(marked theme)라고 하였다.[31]

Halliday(1967)에 이어서 Chafe(1976)는 정보 포장이란 개념을 내세우면서,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소통과 인지의 차원으로 연구를 확장시켰다. 정보 포장이란 화자가 청자의 의식 상태에 맞추어 정보를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으로서, 화자-청자의 지식 및 관심에 따른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것이다. 정보 포장 방식은 정보의 내용(content)이 아니라 주어짐성(givenness)의 유형을 반영하고[32], 이 주어짐성 유형들은 위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위상에서 어떤 부분이 문법

---

30) 이런 측면에서 Halliday의 주제화는 Vallduví(1990)의 화제-평언 분절과 유사하다.

31) 따라서 한 문장에 CD의 정도가 다른 복수의 주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들은 담화 기능에 따라 문두에서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텍스트적 기능을 할 때(textual theme) 접속사나 접속 부가어로 나타나고, 대인 기능에서는(interpersonal theme) 호격, 양태 부가어, 정형 동사, 의문사 등으로, 관념화 기능(ideational theme)에서는 주어나 보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32) Chafe(1974: 113,123)는 주어짐성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in consciousness: a. I just found some books that belong to Peter.
b. I wish I knew where that guy's living now.
c. I'd like to give these books back to him.
extra-linguistic : I KNOW that guy.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면서)
첫 문장 전체 : a. Harry almost ran over me.
b. It scared me half to death.

적으로 실현되는지는 언어별로 다르다. 그가 예시를 통해 제시한 위상 체계는 주어짐성[33], 대조성(contrastiveness), 한정성(definiteness), 주어(subjects), 화제(topics), 관점(point of view)[34]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위계는 제2.2.2절에서 다룰 Prince(1981)의 친숙성 위계(familiarity hierarchy)와 Gundel, Hedberg, and Zacharski(1993)의 주어짐성 위계(givenness hierarchy)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Chafe(1976: 50)는 화제 부각 언어인 중국어를 설명하면서, 화제가 평언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 주는 것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주어짐성 논의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대하여성 관점을 언급한 것이다.[35]

2.2.2. 화제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주어짐성의 위계는 담화 지시체의 인지적 위상에 대한 연구이다. Prince(1981)는 정보구조가 신정보와 구정보의 이분법이 아니라, 청자 친숙성(assumed familiarity)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자 친숙성을 환기된 것(evoked), 추론 가능한 것(inferable), 새로운 것(new) 등으로 분류하였다.[36] 여기서 환기된 것은 담화상 환기된 것과 발화 상

---

33) Kuno(1972)를 인용하여 일본어 '-wa/-ga'가 given/new 정보를 표시함을 보였다. Givenness는 청자의 의식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련 있다(Chafe 1974).

34) 관점은 화자가 관점이입(empathy)하고 있는 개체(individual)이다.(Chafe 1976: 54)

35)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화제의 선정이 격의 선정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고, 화제를 '미실현 주어' (premature subject)라고 하여 화제와 주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Chafe 1976: 51)

36) Prince(1981: 245)는 친숙성 위계를 아래의 순으로 제시하고 (a-f)는 친숙성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것이며 지칭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a. Evoked: Susie went to visit her grandmother and the sweet lady was making Peking Duck.
a'. Situationally Evoked: Lucky me just stepped in something.
b. Unused: Rotten Rizzo can't have a third term.
c. Inferable: I went to the post office and the stupid clerk couldn't find a stamp.

황에서 환기된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은 청자가 모르는 것과 알고 있더라도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것을 말한다. Prince(1992)는 이 견해를 수정하여 담화 층위와 청자 층위를 구분하여 위계를 새로 제시하였다.[37] 정보는 이 두 층위에서 각각 구정보와 신정보의 성격을 띠고, 둘의 조합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Gundel et al.(1993)은 주어짐성 위계가 담화 관련인지, 청자 의식 관련인지를 더 분명히 하고, 화제가 담화 측면과 더 관련이 있음을 유형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위-하위 위계 간에 함의 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I couldn't sleep last night"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명사구의 주어짐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2) 주어 명사구의 주어짐성 위계(Gundel et al. 1993: 284)

a. in focus(주의의 초점)[38] : It kept me awake. (영어: it, 일본어: Ø, 중국어: Ø/ta, 러시아어: Ø/on, 스페인어: Ø/el)

b. activated(작동 기억 속에 있는 것) : This train kept me awake. (영어: he, this/that, 일본어: kare, kore, sore, are, 중국어:ta/zhe/na, 러시아어:on/eto/to, 스페인어:el/este/ese)

c. familiar(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 That train kept me awake. (영어: that N, 일본어: ano N, 러시아어:eto N/to N, 스페인어:ese N/aquel N)

d. uniquely identifiable : The train kept me awake. (영어: the N, 일본어: Ø N, 중

---

d. Containing Inferable: Have you heard the incredible claim that the devil speaks English backwards?
e. Brand New Anchored: A rich guy I know bought a Cadillac.
f. Brand New: I bought a beautiful dress.

37) Prince(1992: 311-312)의 정보 위상

a. 담화 구정보 + 청자 구정보: Evoked
b. 담화 신정보 + 청자 구정보: Unused
c. 담화 신정보 + 청자 신정보: Brand New
d. 추론 가능한 것: Inferable

38) Lambrecht & Michaelis(1998)의 인가된 화제(ratified topic)에 해당. 이미 화제로 도입되었었고 이어지는 현재 발화에서 여전히 화제임이 당연시되는 성분.

국어:na N, 러시아어:Ø N, 스페인어: el N)

e. referential: This train kept me awake. (영어: 비한정 this N, 일본어: Ø N, 러시아어: Ø N, 스페인어: Ø N/un N)

f. type identifiable(유형 식별 가능): A train kept me awake. (영어: a N, 일본어: Ø N, 중국어 yi N/ Ø N, 러시아어: Ø N, 스페인어: Ø N/un N)

화제 논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문장에는 화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Strawson(1964)은 문장의 진리치가 화제에 대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으므로[39]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Gundel(1974: 50)은 화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언문에서도 특정 상황 즉 시간과 공간이 화제라고 보았다. 생성문법 관점에서도 Wierzbicka(1975: 74)는 화제가 모든 문장의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John kissed Mary"는 "John, he kissed Mary"와 같은 심층구조가 표층의 문장구조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rteschik-Shir(1997)는 Gundel(1974)의 시공간 화제를 암묵적인 '장면 화제'(stage topic)로 불렀다. 담화에서 제시되는 'here-and-now'로서의 장면 화제는 아래 예문(Erteschik-Shir 2007: 16-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a. John washed the dishes. ("What happened?"에 대한 대답)

b. It's snowing.

c. There's a cat outside the door.

c'. Outside the door, there's a cat.

(a)는 문장 전체가 신정보이므로 담화에서 전제되는 특정 시공간이 화제이고, (b)는 현재 화자가 인지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 여기'를 화제로 삼고 있다. (c)는 현재 문 밖의 공간을 화제로 한다. 이러

[39] "The statement is assessed as putative information *about its topic*." (Strawson 1964: 97-98)

한 장면 화제의 시공간적 성격은 (c') 장소 부사의 화제화[40]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41]

화제를 논의할 때 담화와 문장의 층위를 구분하여 각 층위에 해당하는 화제를 별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Reinhart(1981)는 담화 화제(discourse topic)를 텍스트의 화제라고 하여 문장 구조와 상관없다고 보았다. 반면 문장 화제는 문장의 서술 내용이 저장되고 분류되는 주소나 서류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세분화한 Roberts(1998, 2011)는 추상적인 담화 화제를 QUD(question under discussion)로 설정하고, 이것이 문장에서 무표적인 구조의 화제로 나타날 때를 테마로, 유표적인 구조의 화제로 나타나는 것을 화제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여기서 테마는 화제를 포함하는 범주이다. 그의 예시에 따르면 테마는 일반적인 주어에 해당되고, 화제는 대개 화제화된 요소에 해당된다.[42]

2.2.3. 정언문과 제언문

화제-평언 구조와 관련하여 또다른 측면에서 관찰된 주요 현상으로서

---

40) '화제화'라는 표현은 술어 중심의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화제 중심 관점에서는 '화제화'라는 말이 성립하기 힘들다. 화제는 정보의 인출의 시작점으로서, 술어 정보 인출 이전에 이미 정착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할 때만 '화제화' 용어를 쓰고, 일부 화제 구문을 편의상 지칭할 때는 '소위 화제화 구문'등으로 쓸 것이다.

41) 장소 부사 화제가 주어의 일치 현상과 유사한 성격을 보임을 Reinhart(1981), Kratzer(1989)에서 언급하였고, 장소 부사의 화제화 방식이 논항의 화제화와 동일하다는 점을 Ladusaw(1994), É. Kiss(2002) 등에서 주장하였다.

42) 아래의 (a, b)에서 밑줄 친 Mary, To Harry는 theme에 해당하고, 둘 중 To Harry는 theme이자 topic이다.(Roberts 2011: 1911)

a. Q: What about Mary? What did she give to Harry?
A: <u>Mary</u> gave [a shirt] to Harry.
b. Q: What about Harry? What did Mary give to him?
A: <u>To Harry</u> Mary gave [a shirt].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과 제언문(thetic sentence)의 대립이 있다. 관련 연구는 Brentano(1874)가 정언적 판단(categorical judgement)과 제언적 판단(thetic judgement)의 구분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Kuroda(1972, 1992, 2005)에서 재조명하고, Sasse(1987), Lambrecht(1994) 등에서 논의의 폭을 넓혔다.

Brentano(1874)와 그의 제자 Marty(1918)는 주어-술어의 표면적 문장 구조가 심층적으로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포착하였다(Cesalli & Friedrich 2014). 두 부류 중 정언적 판단(또는 이중 판단)은 “John is intelligent”와 같은 문장이고, 제언적 판단(또는 단순 판단)은 “It is raining”과 같은 문장이다. 정언적 판단은 “John is intelligent”의 문장이 'John'이란 개체를 부각시킨 후에 'is intelligent'라는 속성을 부가한다는 점에서 이중 판단이라고 보았다. 반면, 제언적 판단은 문장 “It is raining”이 개체를 부각시키지 않고 비 오는 상황을 단일하게 인식하므로 단순 판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찰은 화제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Kuroda(1972: 161)는 Brentano의 정언문/제언문 개념을 재조명하여 다음과 같은 일본어 ‘-ga/-wa’ 대립 구문에 국한하여 적용하였다.

(4) a. Inu-ga hashit-te iru. (thetic)
dog-NOM run-PROG
‘개가 달리고 있다.’

b. Inu-wa hashit-te iru. (categorical)
dog-TOP run-PROG
‘개는 달리고 있다.’

여기서 Kuroda는 ‘-ga’ 제언문을 '사건의 인식'이란 성격으로 보았는데, Brentano의 '상황의 단일한 인식'이라는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하여

제언문의 '-ga' 성분은 단일하게 인식되는 사건 내부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반면 정언문에서는 화자의 관심이 주어인 '-wa' 성분에 주어지면서 주어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이 먼저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그 후에 이 판단과 달리는 사건이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Brentano의 정언문/제언문의 대립이 화제 표지가 발달한 일본어에서 각각 '-wa/-ga'로 드러난다는 점을 잘 포착해 낸 것이다. 그런데 Kuroda는 여기에 정보구조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 몇 번의 수정을 가한다. Kuroda(1972: 170)는 위 설명의 예외로서 "사람이 동물이다"와 "사람은 동물이다"처럼 개체층위 술어가 쓰인 문장[43]은 둘 다 정언문으로 처리하고,[44] 두 문장의 차이는 초점의 유무로 보았다. 여기서 '-ga' 구문은 제언문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정언문이라는 것이다.[45] 약간 수정된 Kuroda(1992: 51)에서는 방금 초점을 가진 정언문으로 처리한 "사람이 동물이다"와 같은 문장을 초점을 가진 제언문으로 처리했다.[46] 최종적으로는 Kuroda(2005: 38)에서 견해를 바꾸어, 예외없이 '-ga' 구문은 제언문이고 '-wa' 구문은 정언문으로 봄으로써 두 구문이 제언문/정언문의 직접적 반영임을 포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uroda는 '-wa'를 화제 표지로 규정하지 않고 정언문 표지로 규정함

43) 개체층위 술어란 술어 자체로 정해지는 것 아니라, 화제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개념이므로 특정 술어에 대해 개체층위 술어라고 못박아 두고 설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44)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이 두 문장은 영어의 'A is B' 구문에 해당되므로 Brentano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중 판단인 정언문으로 볼 수 있고, 제언문의 성격인 '사건의 인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45) 이 설명은 초점이 없이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

46) 이러한 혼란은 정언문/제언문의 '이중 판단 또는 단일 판단'이라는 기준의 모호함을 잘 보여준다.

으로써 정보구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정하였다.[47)]

다음으로, Sasse(1987)는 Kuroda(1972)의 견해를 확장하여 서술(predication)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서술이란 '대하여(ABOUT) 진술'로서, 어떤 개체(predication base)와 그에 대해 속성을 부여하는 서술어(predicate)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서술에 해당하는 문장을 정언문으로 보았고,[48)] 서술이 아닌 문장을 제언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Brentano의 이중 판단 및 단일 판단의 기준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Sasse(1987: 566)가 기여한 것 중 하나는 제언문 판단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제언문의 7가지는 존재 진술, 상황 설명, 기대 밖 사건, 일반 진술, 배경 기술, 날씨 표현, 신체 진술이다.[49)] Sasse(1987: 529)는 다음 독일어 예문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데, 정언문과 제언문 구분이 대조성과 결부될 때의 생기는 논란을 잘 보여준다.

(5) a. Das BRAThendl ist angebrannt.
'The CHICKEN's burnt.'
b. Das BRAThendl ist ANgebrannt.
'The CHICKEN's BURNT.'

---

47) 이러한 오류는 주어 '-wa/-ga'의 대립을 화제/초점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와 관련이 있다. Kuroda는 이 대립이 화제/초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화제 표지 '-wa' 마저 부정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48) 이는 화제의 속성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대하여성(aboutness)과 유사해 보이지만 좀 더 엄밀한 개념이다, 이는 Strawson(1964: 97-98)이 진리치 공백(truth value gap)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한 화제 조건인 "The statement is assessed as putative information about its topic"을 반영한 것이다. 진리치 공백은 "The King of France is bald"에서 화제가 지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화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9) 제언문을 문장 전체 신정보나 뉴스문 등으로 설명해 버리는 많은 논의들과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인 논의이다. 특히 배경 기술, 신체 관련 기술은 서양 언어 구조에서 정언문과 제언문을 구분해 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훌륭한 관찰이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로 '일반 진술' 같은 모호한 개념이 쓰인 듯하다.

위의 (a)는 '타는 냄새가 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인데, Sasse는 Brentano식의 단일 판단이나 Kuroda의 사건 인식이란 측면에서 제언문으로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주어인 '통닭'은 화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통닭이 탔다'는 사건 정보의 내부 논항인 것이다. (b)는 통닭을 기대하던 사람이 "왜 햄버거야?"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으로서, 주어인 '통닭'은 '햄버거'와 대조되기 때문에 강세가 부여되어 대조성을 표현한다. Sasse는 관심의 대상인 통닭에 대한 정보를 청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b)는 통닭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통닭은 정보의 외부에 있고, ABOUT 진술이 되며, 정언문이라고 설명하였다.[50] 이렇게 문두 성분이 대조성을 띠는 경우에 대해 화제로 볼 것인지 초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정언문으로 볼 것인지 제언문으로 볼 것인지는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 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Sasse(1987: 519)는 정언문/제언문과 정보구조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부정한다. 정보구조는 부분적으로만 정언문/제언문의 구분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위 두 문장이 모두 주어가 주어진 정보(정관사 das)인데 정언문과 제언문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51]

정언문/제언문을 정보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Lambrecht(1994: 223)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점 구조의 아래 세 유형을 제시하고 문장 전체 초점 구조만을 제언문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c) 문장

---

50) 그러나 이 문장의 화제를 '통닭'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 또는 '차려진 음식'으로 본다면, ABOUT 진술이라기보다 사건에 대한 단일 판단이므로 제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하여성(aboutness)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논의는 아주 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조성은 화제와 별개의 차원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다.

51) 이 논리는 정보구조를 구정보-신정보 즉 한정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맞을 수 있지만, 정보구조가 단순히 한정성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살펴야 한다.

초점 구조만 비이분적(non-binary) 단순판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 a. My car/It [$_{foc}$ broke DOWN]. 술어초점 구조 (화제-평언)
b. [$_{foc}$ My CAR] broke down. 논항초점 구조 (초점-전제)
c. [$_{foc}$ My CAR broke down]. 문장초점 구조 (전체 초점)

2.3. 초점 구조 연구

2.3.1. 배경과 초점

앞에서 다룬 화제-평언 구조와 정언문-제언문 구분은 대체로 화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반면, 영어처럼 화제보다는 초점을 실현하는 기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언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경우 초점(focus)-배경(background) 구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Chomsky(1965), Jackendoff(1972) 등에서는 초점-전제(presupposition)로 불렀는데, 이와 관련하여 Jackendoff(1972: 24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존재 전제는 너무 강한 개념이므로 전제 대신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이나 '배경(background)'으로 부르기도 한다.[52] 주어짐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Gundel(1999) 등의 경우 초점-화제 분절을 주장한다.[53] 앞에서 다루었던 프라그 학파에서도

---

52) Jackendoff(1972: 246)에서 (a)가 (b)와 같은 전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a)에서 전제가 (b)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a. I saw NOBODY at the party.
b. I saw x at the party

53) Lambrecht(1994: 122)는 이에 대해 비판하기를, 화제를 대하여성(aboutness)의 관점으로 볼 때 "x called the meeting"은 의미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시체가 없으므로 화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하여성에 입각하여 주제를 정의한 초기 논의는 Hockett(1958: 201) 등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화제와 평언이 모두 문장의 통사적 성분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화제의 정의에서 대하여성을 버리고 주어짐성으로 보는 이론에서는 화제가 통사적인 성분일 필요도 없고 지시체가 있을 필요도 없다.

Hajičová(1983), Sgall et al.(1986) 등은 주어짐성과 유사한 CB(contextually bound)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TFA(Topic-Focus Articulation)를 주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초점 중심의 연구에서는 대개 초점은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취급하지만, 화제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주어짐성 관련 Reinhart(1981), Lambrecht(1994), Gundel & Fretheim(2004) 등은 주어짐성이 단순히 구정보-신정보 같은 지시체의 지시적 위상의 문제가 아닌 관계적 주어짐성을 강조한다. 다음 예와 같이 구정보임에도 초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대답문의 'PORK'는 질문에서 주어진 '지시적 구정보'이지만,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라는 측면에서 '관계적 신정보'이다. 그러므로 정보구조는 지시적 주어짐성이 아니라 관계적 주어짐성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Gundel & Fretheim 2004: 177).

(7) Q: Did you order the chicken or the pork?
A: It was [the PORK] that I ordered.

화제-평언 구조와 초점-배경 구조의 복합구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데, 둘의 위상을 어떻게 상정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나뉘기도 한다. 화제를 상위 구조로 보는 경우로는 Partee(1991), Krifka(1991), Steedman(2000), Büring(2003) 등이 있다. Krifka(1991: 153)는 특히 화제 내부에 초점이 있는 구조를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제시하였다.[54)]

(8) A: What did Bill's sisters do?
B: [Bill's [youngest]$_{Foc}$ sister]$_{Top}$ [kissed John]$_{Comment}$

한편 초점-배경 구조를 상위에 두는 경우로서는 Vallduví(1990),

54) 여기서 부분 화제가 가지는 대조성 때문에 대조 화제와 초점에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Büring(1997), Erteschik-Shir(1997) 등이 있다. Vallduví(1990)는 정보구조를 '연결(link)-꼬리(tail)-초점(focus)'의 삼항 분절로 보았다. 문장의 정보구조는 초점-배경 구조로 먼저 나뉘고, 그 다음 배경이 다시 연결-꼬리 구조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Vallduví(1990: 55)는 Dahl(1974: 2)의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삼항 분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9) Q: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rink?
A: John drinks [$_{Foc}$ BEER.]

이 예문의 대답문은 화제-초점의 이분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drinks'는 질문에서 주어진 정보로서 초점이 아니므로 [$_{F}$ BEER]만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화제인 'John'과 초점인 'BE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꼬리라고 하였다. Vallduví(1990)는 이론적으로 Halliday(1967)와 Chafe(1976)의 정보구조 또는 정보포장을 계승하여, 정보가 화자의 지식 저장소에서 청자의 지식저장소로 전달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55]

2.3.2. 총망라성과 대조성

문장의 초점을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과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56] Kuno(1972)의 용어로는 총망라적 거론(exaustive listing)이 확인초점에 해당한다. É. Kiss(1998, 2001: 1449)는 확인초점을 다음 헝가리어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

55) Vallduví(1990: 66)에 따르면, 초점은 문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청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으로서, 유일하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화제는 초점의 새로운 정보가 청자에게 전달될 때, 화자의 지식저장소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주소이다. 꼬리는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청자에게 정확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6) 확인초점은 담화에 주어진 개체 집합에서 일부를 확인하는 초점이고, 정보초점은 일반적인 초점으로서 신정보에 부여되는 초점이다. (É. Kiss 1998)

(10) a. Jáno-s **MARI-T** hívta meg vacsorára.
John-NOM Mary-ACC invited PREV to.dinner
b. It was Mary that John invited.

위의 헝가리어 예문에서, 확인초점 성분은 동사 앞에 위치하고 강세가 주어진다. 이 확인초점 성분의 의미는 잠재적 후보군 중 다른 이가 아닌 매리를 초대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응되는 영어 구문으로서 (b)와 같은 분열 구문을 확인초점으로 간주하는 논의로 Rooth(1996), Erteschik-Shir(1998) 등이 있다.

대조성은 초점과 별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점 현상의 하나로 다루는 연구도 많다. 한국어 대조성 표지 '-는', 일본어 대조성 표지 '-wa', 영어의 B-강세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 언어들의 대조성 표지는 화제와 동일한 표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조성이 화제와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언어들과 달리 유형론적으로는 독자적인 대조성 표지를 지닌 언어도 많다. 아이마라어 '-sti', 케추아어 '-ri', 촉토어 '-ato'등은 대조성에만 사용되는 표지이다. 미얀마어의 경우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주격 표지가 '-ha', '-ka'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초점 표지로도 쓰이는 '-ka'가 대조성 표지로도 쓰인다. 대조성과 관련하여 임동훈(2012)은 Gundel(1999)의 대조 초점과 Vallduví & Vilkuna(1998) Kontrast(의미적, 양화적 초점)의 차이를 기반으로, 의미적 초점(대조 초점)과 화용적 초점(초점-배경 분절의 초점)을 구분하였다.

2.4.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정보구조 연구

2.4.1. 한국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어 연구에서는, 정보구조 관련 현상인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 구문이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적 연구 시기부터 이 현상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중 주어 연구사를 요약한 정인상(1990: 243)에 따르면, 그 시초를 유길준(1909), 주시경(1910)에서 찾을 수 있다. 유길준(1909)은 "가을은 달이 밝소"에서 화제구인 '가을은'을 '총(總)주어'라고 하였고, 이 개념은 김두봉(1934)의 '큰임자', 박승빈(1935)의 '문주(文主)'로 이어졌다. 이들의 견해는 이후 지금까지의 활발한 '주제어' 연구로 계승되어 한국어 화제의 여러 특성을 관찰해왔다.

한편, 주시경(1910)은 이에 대한 전통적 입장인 소위 서술절 분석을 제시하였다. 앞의 예문에 대입하면, 주어 '가을은'과 서술절 '달이 밝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서술절 내부는 다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므로 이 문장은 결국 서술절 내포문을 지닌 복문이 된다. 이 관점은 최현배(1937)와 허웅(1983)의 '용언절(풀이마디)'과 권재일(2012) 등의 서술절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학교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유길준(1909)과 주시경(1910)으로 대표되는 두 견해는 주어 판단과 복문 판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화제 구조의 차원에서 보면, 제2.2절에서 살펴본 화제 중심 논의, 즉 화제-평언 구조에 해당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현대 국어학에서는 서양학계의 통사, 의미, 담화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화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통사적 화제, 담화 화제로 나뉘었고, Halliday(1967) 이후의 정보구조 개념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먼

저, 통사적 화제 관점은 대표적으로 서정수(1971), 임홍빈(1972, 2007)을 들 수 있다. 서정수(1971)는 생성문법적 입장에서, 심층 구조의 관형어나 부사어였던 성분이 표층 구조에서 주제어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Mikami(1960)의 유명한 문장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심층 구조에서 “코끼리의 코가 길다”인데,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표층 구조의 주제어인 ‘코끼리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57] 한편, 임홍빈(1972, 2007)은 위와 같은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문에서 문두 성분은 기존 통사적 문법 관계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문법적 주제’를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58] 그 외에도, 통사적 차원에서 화제에 접근한 논의로 박순함(1971), 신창순(1975),[59] 김영희(1978),[60] 남기심(1985), 홍용철(2005)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담화 화제의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박승윤(1986), 최규

---

57) 이러한 주장은 국어학에서는 동의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지만,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성분의 이동을 주요 기제로 하는 생성 문법에서는 화제화를 이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58) 임홍빈(2007)은 “통사 분석이 끝난 후 잉여 성분”, 즉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성분을 문법적/통사적 주제(grammatical/syntactic topic)라고 하였다. "통사 분석이 끝난 후 잉여 성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인구어 분석 방법일 뿐이며,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유의 문장성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a. [철수가]$_{주제}$ [손이]$_{주어}$ [크-]$_{서술어}$

59) 신창순(1975)에서는 기술문(상황, 감각한 바)과 명제문(판단, 보편 지식)을 구분하고, 아래 이중 주어문은 명제문이므로 둘 다 주제라고 보았다. 그는 명제문 주제의 성격을 ‘선택지정’이라 하였는데, 아래의 ‘장미꽃’은 {국화, 모란, 무궁화, 장미꽃 등}에서 장미꽃을 선택지정했다는 것이다.

a. 장미꽃은 향기가 좋다.
b. 장미꽃이 향기가 좋다.

60) 김영희(1978)는 아래 문장에서 ‘영수가’는 정보 초점(informational focus)이며 으뜸 세기(primary stress)를 받고, ‘한정 지칭의 새 정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정 지칭은 지칭된 대상 외의 가능한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보 초점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주어는 주제적 의미라고 하였다.

a. (누가 머리가 좋으냐?) 영수가 (머리가) 좋다.

수(1999) 등이 있다. 박승윤(1986)에서는 화제가 문장 성분이라기보다 담화 구조의 기제라고 보았다. 즉 화제는 담화를 지배하면서, 문장 내에서 해당 성분이 술어의 문법 관계에서 벗어나 담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규수(1999)도 화제는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통사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문장의 문두에 화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두의 '-는/-가' 성분을 중심 주제어로, 그 뒤에 오는 '-가' 성분을 도입 주제어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61)]

마지막으로, 정보구조 논의를 도입하여 한국어 연구를 접목시킨 논의들로는 채완(1975), 홍사만(1983), 박철우(2003, 2015, 2017), 전영철(2006, 2009, 2013), 임동훈(2012, 2015) 등이 있다. 이들의 논의는 한국어 '는/가'의 성격에 대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Halliday(1967)와 Chafe(1976)의 주어짐성과, Prince(1981)와 Gundel et al.(1993)의 주어짐성 위계 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논의한 주어짐성과 대하여성을 정보구조의 주요 개념으로 놓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징적인 논의로, 먼저 박철우(2003)에서는 Vallduví(1990)의 '연결(link)-꼬리(tail)-초점(focus)'의 삼항 분절을 도입하여, 이 삼항 분절 중 초점은 신정보에 해당되고, 나머지 구정보 부분은 대하여성의 유무에 따라 연결부와 꼬리부로 나뉜다는 관점에서,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영철(2006, 2009, 2013)과 임동훈(2012, 2015)에서는

---

61) 최규수(1999)는 중심 주제어(main topic)는 '은/는'으로, 도입 주제어(introductory topic)는 '이/가'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문장이 문두 주제어를 가진다는 '틀 맞추기'를 제안하여, (a)와의 틀 맞추기를 위해 (b)가 아닌 (c)의 구조가 맞다고 주장하였다.

a. [[$_{MT}$ 영이는][$_{P}$e 학교에 갔다]]
b. [e [영이가 학교에 갔다]]
c. [[$_{IT}$ 영이가][$_{P}$e 학교에 갔다]]

Reinhart(1981), Lambrecht(1994), Gundel & Fretheim(2004) 등의 관계적 주어 짐성을 받아들여 한정성 등의 지시적 개념과는 다름을 지적하면서,[62] 기존에 구정보-신정보 중심으로 다뤄지던 정보구조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특히, 임동훈(2012)은 Gundel(1999)의 대조 초점과 Vallduví & Vilkuna(1998)의 Kontrast(의미적, 양화적 초점) 설명을 기반으로 의미적 초점(대조 초점)을 도입하고, 이를 화용적 초점(초점-배경 분절의 초점)과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미적 초점은 '세로 초점'이며 보조사로 실현되고, 화용적 초점은 '가로초점'이며 격조사로 실현된다. 여기서 '세로 초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구조 의미론(structured meaning semantics)과 대안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63]은 정보구조와 의미론의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영철(2013)에서는 제2.2.3절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언문-제언문의 구분을[64] 재조명하고, 한국어 정보구조에 연결하여 '는/가'의 설명에 적용함으로써 정보구조 논의의 폭을 한층 넓혀주었다.

---

62) 예문 (7) 참조.

63) Vallduví & Zacharski(1994)의 대안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과 Rooth(1985, 1996), Krifka(1991), Partee(1991) 등의 구조 의미론(structured meaning semantics)이 초점을 의미론적 양화 현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대안 의미론은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을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문장의 의미를 잠재적인 대답의 집합으로 설명하였다.

a. 철수가 야구를 좋아하니, 축구를 좋아하니? ⇒ 의미 : {철수가 x를 좋아한다.}

구조 의미론도 Jackendoff(1972)의 '전제(presupposition)-초점'을 확장하여, 전제 대신 잠재적 명제 집합인 배경(background)을 도입하였다. <배경, 초점>의 형식적 의미 구조를 제안하여, 아래처럼 초점 자리를 변항으로 대체한 배경 부분과 초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미를 표상한 것이다.

b. John introduced [$_{FOC}$ Bill] to Sue.
⇒ < λx [introduce (John, x, Sue)], Bill >
배경(명제 집합) 초점

64) 정언문-제언문의 구분은 임홍빈(1972)의 정언문-비정언문과 신창순(1975)의 명제문-기술문의 구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2.4.2. 일본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일본어는 한국어와 화제 구문의 실현 방식이 대부분 유사하다.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근대 언어학의 구조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일본어를 해석하면서, 대개 근대 한국어 연구 성과보다 조금씩 앞선 경향을 보인다.[65] 일본어 화제 구문 또는 이중 주어와 관련한 연구를 홍사만(2009), Hlaing(201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어 이중 주어 연구

일본어의 이중 주어에 관한 연구는 Kusano(1899)에서 "象は體大なり"(코끼리는 몸이 크다) 등 11개 문장을 바탕으로 술어절설을 주장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논의는 제시어설, 정주어-부주어설, 술어절설로 분화된다. 제시어설은 '-wa' 성분이 주어가 아니라 제시어라는 주장이고, 정주어-부주어설은 정주어와 부주어가 모두 서술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당시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한 주류설은 제시어설이라고 한다.

이후 Mikami(1960)에서 처음으로 '이중주격'이란 표현을 썼다. 책의 제목인 "象は鼻が長い"(코끼리는 코가 길다)는 이중 주어문을 대표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의 문법 이론의 핵심은 '주제'와 '무제화'로서(Yamada 1977: 3), 주제-술어 관계가 중요하며, 주어-술어 관계는 무의미하다고 하여 주어 개념을 폐기하였다. 그리고 주제와 주격을 구분하여 주격은 모두 주격 보어로 보았다. 그러므로 '코끼리는'은 주제, '코가'는 주격 보어가 된다.

---

65) 이 일본어 연구들이 한국어 연구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한국어학사의 연구 주제이다. 일단 이중 주어 현상 등과 관련한 가설의 유사성을 볼 때, 일본어의 선행 연구가 한국어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이후 Kuno(1973: 38-39)가 '-ga' 구문에 '총기'(exaustive listing, 총망라성 기술)와 중립 서술의 두 해석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총망라성 개념은 현재 초점의 의미 설명에, 중립 서술은 제언문 설명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Kitahara(1984: 80-81)는 주제의 제시 방식을 절대적 제시와 상대적 제시로 나누었다. '-wa' 주제는 절대적 '취립'(取立, take out)에 의한 제시로, 특정적이 아닌 다수로부터 취해서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Kitahara(1984: 122-125)는 '-ga' 총기와 중립 서술을 정보 포장의 미지/기지(신정보/구정보, 초점/화제에 해당)로 설명하였고, Kitahara(1984: 102-105)에서는 '부분 주격'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부분, 성질, 상태 등의 의미 관계에 적용하여, "スポーツ選手が顔が色が黒い"(스포츠 선수가 얼굴이 색이 검다) 같은 다중 주격문도 제시하였다.

그 외 참고할 만한 논의들로, Kikuchi(1995: 37)는 'X-wa' 구문에서 X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면 술부라고 하는 정보 구조를 제시하였고, Noda(1996)는 '-wa'와 '-ga'의 차이를 구분하는 5가지 원리로 구정보/신정보, 판단문/현상문, 주절/종속절, 대비성/배타성, 규정문/지정문을 열거하였다. 두 표지의 차이에 대해 Tsunoda(2009)에서 Silverstein(1976)의 명사구 지시 위계를 도입하여 설명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어의 정언문-제언문 연구

정언문-제언문 논의는 우선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Sakuma(1940, 1955)[66]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문장 유형을 이야기문(ものがたり-文, narrative sentence)과 품평문(しなさだめ-文, judgement sentence)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66] Sakuma(1940, 1955)와 Mio(1948)의 내용은 Maynard(1997)와 Tanaka(2008)를 참고하였고, Mikami(1960, 1976)는 홍사만(2009)을 참고하였다.

주로 '-ga'가 쓰이고, 후자에는 주로 '-wa'가 쓰인다고 하였다. 이 분류는 각각 제언문과 정언문에 잘 대응된다. 그가 게슈탈트 심리학자였다는 것으로 보아, Brentano(1874)의 정언문/제언문 구분을 계승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Mio(1948)는 문장 유형을 4가지로 더 세분화하여, (a) 즉각적 묘사문, (b) 판단문, (c) 감탄문, (d) 화제 생략문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는 '-ga'가 쓰이는 제언문에서도 (a) 즉각적 묘사와 (d) 화제 생략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도 제언문을 지각적 제언문과 인출적 제언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관찰을 Mio(1948)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Mikami(1960, 1974)는 정언문/제언문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Mikami(1960)는 이중주어의 대표적 구문인 "象は鼻が長い"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wa'를 주제 표지로, '-ga'를 술어 논항 표지[67]로 보았다. '-wa'가 제목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평언이 따른다는 그의 주장은 정언문의 정의와 다름없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Kuroda(1972)가 Brentano(1874)를 재조명한 것으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Sakuma(1940, 1955)와 Mikami(1960)가 중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ikami(1960)는 또한 인지적 설명의 단초를 잘 보여준다. 정언문, 즉 화제-평언 구조를 화자의 자문 자답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화제가 정보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포착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제술 관계"(주제-술어)가 중요하고 "주술 관계"는 무의미하다고 하여, 술어 중심의 관점이

67) Mikami(1960)는 "ka 주격은 보어일 뿐"이라고 하였다. 주제어와 주격 보어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주어' 개념은 배격하였다.

아닌 화제 중심의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Mikami(1974: 129)는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였다.

(11) 심층 구조 (코끼리의 코가 길다는 것)에서
a. → 무제화 '코끼리의 코가 길다'
b. → 제술 구조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무제화 '코끼리가 코가 길다'

얼핏 보면, 여느 초기 변형생성문법의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그의 "무제화" 개념이다. 흔히들 쓰는 용어인 '주제화' 또는 '화제화'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무제화" 개념이 화제의 본질, 즉 정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잘 포착했다고 판단한다. 단, 본 연구는 "무제화"가 아니라 장면화제에서 인출된 정보가 구문화된 것으로 보므로, '장면화제화' 또는 '레마화' 정도의 용어가 더 좋을 듯하다. 요약하면, 그의 '제술 관계' 와 '무제화' 개념은 각각 정언문, 제언문 개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2.4.3. 미얀마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

미얀마어에는 '-ha/-ka' 두 표지가 주어 또는 주격을 표시한다. 미얀마어위원회에서 편찬한 문법서에서는 '-ha'를 주격조사(word indicating nominative case)[68]로 기술했고, '-ka'는 주격 후치사[69](postpositional marker to indicate nominative case)[70]로 기술하고 있다.[71] 그런데, 한국어의 '-는/-가'나 일

68)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1: 515, 528)

69) 후치사로 기술한 이유는, 추정컨대, 의존적 명사인 'ha'('것'에 해당)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 ha가 통시적 근원일지는 몰라도, 주격 표지 '-ha'는 완전히 문법 요소로 발달했다. 의존 명사 ha는 수식구 뒤에만 결합하고 '-의 것', '-한 것'의 의미가 명확한데 비해, 주격 '-ha'는 모든 명사구에 결합하고, 주격의 기능만 수행한다.

70)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1: 1)

71) Hlaing(2015: 51)에서 재인용.

본어의 '-wa/-ga'와 유사한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화제 표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화제 표지로 분석되기도 하는 '-ha'에 대해서는 차별화 기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설명의 난해함으로 인해 문체 차이로 돌려버리는 입장도 있다.

미얀마어의 화제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양 학자들의 미얀마어 연구 또는 일본어-미얀마어 대조 연구에서 '-ha'를 화제 연속 표지로, '-ka'를 화제 도입 및 대조성 표지로 본 것을 들 수 있다. 미얀마어 '-ha'가 화제 표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이유는 'A는 B이다' 구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ha'가 화제 표지라면 담화상 연속되는 화제에는 '-ha'가 쓰여야 할 텐데, 반대로 '-ka'가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Thurgood(1978: 255)는 이러한 '-ka'를 '새 화제 도입'으로 설명했다. Wheatley(1982: 176-190)도 유사한 관점에서, '-ha'에 비해 '-ka'는 서사의 단절 또는 방향 전환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Okell & Allott(2001)[72]에서 '-ha'는 "marks the subject or topic of the sentence", 즉 주어 또는 화제 표지로 보았고(Okell & Allott 2001: 248), '-ka'는 "marks noun as subject of sentence"라고 하여 주어 표지로 보았다(Okell & Allott 2001: 1). 대조성은 Thurgood(1978: 255-257), Wheatley (1982: 176-190) 등에서 '-ka'를 '대조 주어'로 설명하였다. 화제 표지로 보이는 '-ha'가 아닌 '-ka'가 대조성을 담당하는 점이 한국어나 일본어와 다르다.

둘째, 일본 학계에서 미얀마어의 화제 표지 또는 주격 표지 '-ha'와 '-ka'를 일본어 '-wa', '-ga'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

72) 영국의 미얀마어 연구자 Okell은 미얀마어의 가장 권위 있는 참조 문법서 "A Reference Grammar of Colloquial Burmese" (Okell 1969)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Harada(1969), Kobayashi(1984), Sawada(1995b), Kato(1996)와 미얀마인 학자 Myint Soe (1999), Hlaing(2015)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Harada(1969), Kobayashi(1984)에서 두 언어 대조를 통해 해당 표지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제시되었다. 이후 Sawada(1995a: 180-183)는 화제 관련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ka'의 주어 구별(disambiguation) 기능을 제안하였다. 주로 복문에서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를 구분할 때, 주절의 주어에 '-ka'를 쓴다는 것이다. Kato(2004)는 이 견해를 바탕으로 '-ka'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들의 분석은 '-ha'가 쓰이는 문체를 "일상 대화에 나타나지 않고, 강연, 연설, 혼잣말 등 일방적인 이야기에 볼 수 있는"(Sawada 1995b: 1) '겉보기 구어체'(見かけの口語体)로 별도 취급하여, '-ha' 분석의 난해함을 피했다. 대조성과 관련하여, 미얀마인 연구자 Myint Soe(1999 : 94-116)는, Thurgood(1978: 255-257), Wheatley (1982: 176-190)의 '-ka 대조 주어' 설명을 확장하여, 비대조 주어가 '-ha' 또는 주격 생략으로 실현되고, 대조 주어는 '-ka'로 실현된다고 분석하였다.

요즘은 정언문/제언문 관련 논의도 시도되고 있다. Hlaing(2015)은 Noda(1996)의 일본어 '-wa/-ga'를 구분하는 5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미얀마어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판단문/현상문 대립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판단문은 '-wa', 현상문은 '-ga'로 실현된다는 주장은 정언문/제언문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Hlaing(2015: 54)은 미얀마어에서 판단문은 주로 '-ha', 현상문은 '-ø'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최근 10여년 간, 서양 학계에서는 과거보다 세밀해진 정보구조 이론을 도입하여 미얀마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Kassevitch(2005)는 '-ka/-ha' 등의 선택이 순수하게 문체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Watkins(2005)는 미얀마어 초점 구조의 운율 실현을 실험 음성학

적으로 연구하였다. Tun & San(2006)은 말뭉치 연구에 기반한 담화 표지의 연구를 통해 '-ka'의 화제 표시, 신정보 표시, 대조성 표시 등의 기능을 검토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Jenny & Tun(2013)는 -ka 표지가 순수하게 주격이나 대조성 표지가 아니라 화용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주어 차별화 표시(Differential Subject Marking, DSM)이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Ozerov(2014)는 정보구조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미얀마어의 문법 표지들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연구들에서 '-ha'와 '-ka'의 분포와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5. 인지언어학과 MTT 이론의 정보구조 관련 연구

Langacker의 인지언어학과 정보구조 관련 논의

Langacker(1987), Croft & Cruse(2004), Evans & Green(2006) 등 인지언어학에서는 정보구조 관련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Langacker(2009: 8-9)에서는 화제-초점을 개념적 장면에서의 현저한(prominent) 참여자인 첫째 또는 둘째 초점 참여자(primary and secondary focal participants)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탄도체-지표(trajector-landmark)'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비유적으로 화제를 "무대 위 장면에서의 스포트라이트 (spotlights within the scene on stage)"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주어-목적어의 위상이 어떻게 술어에 부호화되는지에 더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Langacker(2009: 46-50)는 이 술어 부호화의 인지적 기제를 참조점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그의 참조점 설명은 화제 구조 설명에 아주 적합하다. 영어의 유표적 화제 구문과 일본어

의 이중 주격 구문에 적용하여 윤곽화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Langacker(2009: 48)에서 “The lottery, I never have any luck” 같은 영어 화제 구문에서 두 번의 연속적인 윤곽화(profiling)가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참조점에 대한 설명 “명사 윤곽에 주의를 보냄으로써”는 화제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는 참조점의 작동 영역을 구성하는 관련 개체들의 배열을 활성화하여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는 배경 정보 또는 기반 정보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Langacker(2009: 49)는 “Taroo-ga fuku-ga itsumo hade-da”(타로가 옷이 항상 야하다) 같은 일본어의 이중 주어 구문도 유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어의 경우 두 윤곽이 포합(incorporated)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인지언어학은 영어의 유표적 화제 구문과 일본어의 이중 주어 구문을 참조점 이론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Mel’čuk의 MTT 이론과 정보구조 연구

Mel’čuk(2001, 2012)의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는 의미에서 형식이 도출되는 과정의 여러 층위 간의 대응 규칙을 형식적으로 기술한 언어 모델이다.[73] 각 층위 간 대응은 번역(translations) 또는 사상(mapping)으로 설명한다. 각 층위는 의미구조(SemS), 의미소통구조(SemCommS), 통사구조(SyntS), 형태구조(MorphS)와 최종 단계인 음성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텍스트 이론의 여러 층위 중에 정보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의미소

[73] MTT는 언어 구조 기술과 언어의 기계적 처리를 위해 치밀한 형식적 표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번역 등의 자연언어 처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통구조이다. 의미소통구조는 의미구조[74]를 조직하여 심층통사구조[75]를 만들어 주는 층위이다. 의미구조에서 심층통사구조까지는 언어 보편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문의 사상 규칙에 따라 표층통사구조로 번역된다. 표층통사구조부터 음성 실현까지는 언어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결국,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보편적 언어 구조의 조직력이 의미구조에서 심층통사구조를 조직해내는 의미소통구조, 즉 정보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미소통구조의 조직력은 소통적 지배(Comm-Dom)에서 나온다고 한다. 소통적 지배는 의미구조의 각 단위 노드(node)들 간의 지배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인지언어학의 심리 접근 경로(mental access path)를 모든 단위 노드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소통적 지배를 통해 의미 단위들은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인출 가능(readable)하도록 조직된다고 한다.

화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은 진입 노드(entry node)이다. 의미구조를 통사구조로 조직하는 과정은 시작점을 필요로 하고, 이 시작점을 진입 노드라고 하였다. 진입 노드는 화제부의 헤드(head)에 해당하고, 화제와 서술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Mel'čuk(2012: 301)에서는 "John's parents were not married"와 "John was an illegitimate child"처럼 동의 관계에 있는 문장들을 예로 들면서, 이 두 문장은 진입 노드가 다르기 때문에 화제-서술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고 상이한 구문으로 실현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의미-텍스트 이론은 순서 없는 망 형태의 의미구조가 화제-서

---

74) MTT의 의미구조(SemS)는 순서 없는 망 형태(web-like)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저장소에 저장된 원천 정보(raw data)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 구조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75) MTT에서는 심층통사구조를 의존성 수형도(dependency tree)로 표상한다.

술 구조로 재조직되는 출발점을 진입 노드의 결정으로 본다. 이는 인지언어학에서의 심리 접근 경로의 출발점인 참조점(reference point)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보면, 인지언어학과 의미-텍스트 이론은 화제라는 용어를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인출의 출발점'으로서의 화제 개념을 거의 엇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 두 이론이 각각 채택하고 있는 참조점이란 인지적 개념과 진입 노드라는 형식적 개념은 화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5.3.3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6. 소결

지금까지 정보구조 연구사를 서양의 연구와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연구로 나누어 몇 가지 주요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가장 먼저 화제-평언 구조가 언제 처음 인식되고 보편화되어 확산되었는지를 다루었고, 화제의 특성으로서 대하여성과 주어짐성, 정보의 지시적 위상에 관한 연구, 장면 화제에 대한 연구, 담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언문과 제언문에 대한 연구와 그 진전 과정도 점검하였고, 초점-배경에 대한 연구가 화제와 결합된 복합적 구조에 대한 연구로 발전한 과정도 언급하였다.

한국어 연구에서는, 화제 표지 또는 주격 표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주제어 견해와 서술절 견해가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현대 국어학에서의 통사적 화제와 담화 화제 관점을 검토하였고, 서양의 정보구조 연구가 접목되면서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어 연구에서는 한국어보다 앞서서 이중 주어 문제와 정언문/제

언문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어 논의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주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얀마어의 경우는, 화제와 관련한 두 주격 표지에 대해 몇몇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둘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 3 장 한국어와 일본어의 화제 구문 대조

3.1. 개관

일본어의 '-wa/-ga'는 한국어의 '-는/-가'와 상당히 유사하여, 대부분의 구문에서 서로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죠?", "저 사람은 이름**이** 철수야"는 일본어에서 동일한 구문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일본어는 이 경우, 주격 표지 '-ga' 대신 화제 표지 '-wa'만 쓸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일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독특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어 "koko-**wa** doko-desu-ka?"(여기는 어디예요?)에 대해, 한국어는 주격 '-가'를 쓰는 것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가'의 특이성을 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문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 '-는'과 '-가'로 각각 실현되는 두 구조가 일본어에서는 '-wa' 하나로만 실현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정보처리 방식의 두 유형이 한국어에서는 각각의 구문으로 실현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구문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정보처리 방식의 두 유형이란, 첫째, '여기'가 저장된 정보 인출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인출적 방식과, 둘째, 지각 정보가 직접 구문화되는 지각적 방식이다. 전자는 정언문에, 후자는 제언문에 해당한다. 이 주장을 전개하기 전에 기존 한-일대조 연구를 검토하고, 두 언어의 정언문/제언문 구분의 유사성을 살펴본다.

3.2. 기존 한/일 대조 연구

주요 현상 : 설명의문문의 차이

한국어의 '-는/가'와 일본어의 '-wa/ga'는 설명의문문에서 그 차이가 많이 지적되었다. 설명의문문 중에서도 아래 (1), (2)의 '어디예요?', '뭐예요?' 류의 문장이 많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1a)에서 한국어 '-이'가 자연스러운 반면, 일본어 (1a')는 화제표지 '-wa'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으로, 한국어 '-는'이 대조의 의미일 때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조의 문맥은 제외해야 한다.

(1) a. 화장실-이/?은 어디예요?[76]
a'. toire-*GA/WA doko-desu-ka?
b. 지하철 역-이/?은 어느 쪽이에요?
b. chikatetsu-no eki-*GA/WA dochira-desu-ka?
c. 여기-가/?는 어디예요?
c'. koko-*GA/WA doko-desu-ka?
d. 현재 위치-가/?는 어디쯤이에요?
d'. genzaichi-*GA/WA doko-desu-ka?

(2) a. 이름-이/?은 뭐예요?
a'. namae-*GA/WA nan-desu-ka?
b. 취미-가/?는 뭐예요?
b' shumi-*GA/WA nan-desu-ka?
c. 전화번호-가/?는 몇 번이에요?
c'. denwabangoo-*GA/WA nan-ban-desu-ka?[77]

---

76) 여기에서는 대조성의 '-는'은 제외하고, 화제 표지와 주격 표지 분포의 대립을 다룬다. 대조의 의미가 아닐 때, '-는'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를 표시했다.

77) 일본어에서 자주 안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문이므로, 한국어와 대응을 보이기 위해 수록하였음.

d. 아이-가/?는 몇 살이에요?

d'. okosan-*GA/WA nan-sai-desu-ka?

이러한 현상은 소위 이중 주어문 “X는 Y가 어디예요/뭐예요?”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이 경우, 일본어는 “X의 Y는 어디예요/뭐예요?”의 구문만 가능하다.

(3) a. 내일 파티-는 장소-가/*는 어디죠?

a’. ashita-no paatii-WA basho-*GA/*WA doko-desu-ka?

a”. ashita-no paatii-NO basho-*GA/WA doko-desu-ka?

b. 이 역-은 출구-가/*는 어디예요?

b’. kono eki-WA deguchi-*GA/*WA doko-desu-ka?

b”. kono eki-NO deguchi-*GA/WA doko-desu-ka?

c. 저 분-은 이름-이/*은 뭐예요?

c’. ano hito-WA namae-*GA/*WA nan-desu-ka?

c”. ano hito-NO namae-*GA/WA nan-desu-ka?

한/일 대조 연구

이러한 일부 구문의 미묘한 차이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어학계의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홍사만(1995)을 들 수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반면, 일본어학계에서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대조언어학 전통이 있어서인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78)]

Umeda(1991)는 아래와 같은 설명의문문 예문을 통해, 한국어는 담화 신정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는’ 대신 ‘-가’를 쓴다고 분석하였다. 일본어에서는 이 경우 ‘-wa’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78) 일본어학계의 연구에 대해서는 김선미(2007)를 참고하였다.

(4) a. 이게/이것이 뭐예요? 이게 선생님 시계입니까?[79)]

b. kore-wa/*ga nan-desu-ka? kore-wa/*ga sensei-no tokei-desu-ka?

그리고 Takubo(1990), Yutani(2005) 등은 청자 주어짐성과 담화 주어짐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청자 구정보가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경우, 일본어는 청자 구정보를 그대로 담화 구정보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어는 청자 구정보를 담화 신정보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5) a. 여기가 어딥니까?

a'. koko-wa doko-desu-ka?

b. 오늘이 혜경씨 생일이었지요? [80)]

b' kyo-wa hyekyonsan-no tanjoobi-dat-ta-deshoo?

위 예문에서, 청자 구정보인 '여기, 오늘, 나' 등의 화시적 요소들을 일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담화 구정보로 취급하므로 '-wa'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 청자 구정보 요소들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것과 발화 현장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청자 구정보라도 담화에 처음 도입되면 담화 신정보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

79) '이게 선생님 시계입니까?'는 대개 주어 초점 문장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위의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거 선생님 시계입니까?'이다.

a. 이게 선생님 시계입니까?
a'. [이것이/*은]$_{FOC}$ 선생님 시계입니까?
b. [이거-Ø/는/*가]$_{TOP}$ 선생님 시계입니까?

80) 이 문장은 아래 (a)처럼 '-는/-가' 둘 다 괜찮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b)처럼 주어 초점문일 경우는 '-이'만 가능하지만, (c)처럼 의문의 적용 범위가 문장 전체일 경우는 '-는'도 가능하다.

a. 오늘-이/은/Ø 혜경씨 생일이죠?
b. [오늘-이/*은/*Ø]$_{FOC}$ 혜경씨 생일이었죠?
c. [오늘-이/은/Ø 혜경씨 생일]인 거 맞죠?

아마 Yutani(2005)에서 더 적절한 문장은 다음 문장일 듯하다.

d. (혜경씨는) 오늘-이/*은/Ø 생일이었죠?

이렇게 담화에서의 주어짐성을 기준으로 두 언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한국어학계에서도 종종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나' 같은 요소들은 언어 보편적으로 청자 구정보이자 담화 구정보로 적용될 법한데, 유독 한국어에서만 담화 신정보로 처리된다는 해석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3. 한국어와 일본어의 정언 의문문/제언 의문문 대조

3.3.1. 정언문-제언문의 세부 분류

제2장에서 Brentano(1874)의 '정언 판단/제언 판단' 구분이 Sakuma(1940, 1955)의 '품평문/이야기문' 논의와 Mikami(1960, 1974)의 '제술구조/무제화' 논의를 거쳐 Kuroda(1972)의 '정언문/제언문' 논의로 이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Mio(1948)의 '판단문/즉각적 묘사문' 논의도 있었다. 이 논의들은 모두 전자에는 주로 '-wa'가 쓰이고, 후자에는 주로 '-ga'가 쓰인다는 관찰에 기반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도 '-는/-가'와 관련하여, 임홍빈(1972)의 '정언문/비정언문'과 신창순(1975)의 '명제문/기술문'의 논의가 있었고, 최근 전영철(2013)에서 '정언문/제언문' 논의가 재조명되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이 논의들에서 출발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현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Brentano(1874)에서 시작된 정언문/제언문 구분을 다룰 때, 정언문 "John is intelligent"와 제언문 "It's raining"을 주로 언급한다. 전자는 대개 화제 'John'에 대해 얘기하는 화제-평언 구조이고, 후자는 '지금 여기' 정도의 장면화제에 대해 얘기하는 평언 단독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자인 화제-평언 문장 구조에 대해 '대개'라고 설명한 이유는 영어에서 화제 표

시가 수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는 '-는'과 '-wa'로 화제를 필수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문장구조를 정언문과 제언문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장구조를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이 분류의 (a-c)는 제2.2.3절 Lambrecht(1994)의 분류를 빌려왔다. (d)를 추가한 이유는 이 문장 유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6) I. 저장부 인출 정보

(a) 일반 화제문: 는/wa 정언문

"철수는→영리하다" [81]

"개는→짖는다"

(b) 술어 화제문: 가/ga-초점 정언문

"[철수가]$_{foc}$←영리하다"

"[개가]$_{foc}$←짖는다"

(c) 장면화제문(인출적 제언문): 가/ga 정언문

"(장면)→철수가 영리하게 했다"

"(장면)→개가 짖었다"

II. 지각 정보[82]

(d) 지각문(지각적 제언문): 가/ga 제언문

"(지각장면)→철수가 온다"

"(지각장면)→개가 짖는다"

---

81) 제5장의 정의에 따라 '화제→평언' 형식의 표기를 사용하였다.

82)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d)유형도 정보 인출의 출발점을 장면화제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장면화제는 '지금-여기' 지각 장면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 (d)의 정보 인출처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한국어나 일본어의 정언문/제언문 이분 경계에 대해 입장들이 여럿인데,[83] 그 이유는 위의 (b)와 (c)에 대한 용어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중간 성격의 문장 유형을 정언문이라 하는지, 제언문이라 하는지의 입장 차이가 있다. 사실, 명명보다는 각 문장 유형의 화제 구조 차이가 중요하다. 이 화제 구조 차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5장과 제6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일단 이 장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장면화제를 기준으로 정언문/제언문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특정 장면에 대해 진술하는 (c)와 (d)를 제언문으로 다룰 것이다.

그런데 문장 유형을 단순히 정언문/제언문 이분법을 넘어서 제언문을 다시 (c)와 (d)로 세분화한 이유는, 이 장에서 대조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가 지각적 제언문인 (d) 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언어가 (d)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Mio(1948)의 일본어 문장 유형 중 '즉각적 묘사'란 용어는 이 (d) 지각적 제언문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3.2. 제언 의문문의 대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한/일 대조 연구는 대부분 해당 문장들을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접근해 왔다. 즉, 한국어의 (a) '여기가 어디예요?', (b) '화장실이 어디예요?', (c) '이름이 뭐예요?', (d) '아이가 몇 명이에요?' 같은 문장들 간의 차이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는 이 문장들을 앞 절에서 구분한 문장 유형 중 지각적 제언문과 일반 화제

83) 한국어는 전영철(2013)에서 몇 가지 입장을 언급하고 있고, 일본어는 Kuroda(1972, 1992, 2005)에서 몇 차례에 걸친 입장의 변화를 보여준다.(제2.2.3절)

문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a, b)는 지금 화자가 처한 장면에 대한 문장으로서 지각적 제언문으로 판단할 수 있고, (c, d)는 '당신은', '저 분은' 처럼 생략된 화제를 상정하면 일반화제문, 즉 정언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최소한의 목적은 두 유형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단 (b)의 경우 지각적 제언문으로 분류했지만, 만약 '여기는', '이 건물은' 등의 화제를 상정할 수 있다면, 정언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우선, 본 연구에서 지각적 제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제언 의문문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의 입장을 크게 구분해보면 '담화 신정보설', '신규 도입설', '화자 신정보설'의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3.3.2.1. 담화 신정보설, 신규 도입설, 화자 신정보설 비판

'담화 신정보설'에 대한 반론

담화 신정보설은 일반적인 담화 주어짐성, 즉 화자-청자 간 정보의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에서 봤듯이, Umeda(1991)는 아래 (7a) 예문에서, 한국어는 담화 신정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는' 대신 '-가'를 쓴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a)는 좀 어색한 문장이고 (a')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는 (b)도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7) 예문들을 대표적인 제언 의문문 또는 지각 의문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7) a. 이게/이것이 뭐예요?
a'. 이거 뭐예요?
b. 여기(가) 어디예요?

Umeda(1991)에서 위 (7a)의 '이것'을 담화 신정보라고 분석한 이유는, 해당 지시체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갑자기 눈에 띈 물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8)을 보면, 앞에서 나온 담화 구정보라고 하더라도 '-가'를 쓸 수 있다.

(8) a. 이거 예쁘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b.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반대로, 담화 신정보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는'을 쓸 수 있다. 이 사실은 아래 예문들이 갑작스럽게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a. 이 물건-은/?이 뭐예요?
b. 저 사람-은/?이 누구예요?

(10) a. 이것-은/이 무엇입니까?
b. 여기-는/가 어디입니까?

(11) a. 이것-은/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b. 여기-는/가 뭐 하는 곳입니까?

Umeda(1991)의 (7a)와 비교할 때, (9), (10), (11) 모두 완전히 동일한 담화 맥락에서 쓰일 수 있다. (9)의 차이점은 단지 지시대명사 대신 일반 명사가 쓰였다는 점이고, (10)은 경어체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11)은 술어가 조금 더 복잡한 점이 차이이다. 이러한 반례들에서 담화 신정보설은 설득력을 잃는다. 담화 신정보설은 이 문장들에서 '-는'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니와, '-는/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둘의 차이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한국어 '-가'와 '-는'의 차이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거칠게 말하자면, (7, 8)의 '여기가' 구문이 갑작스럽게 불쑥 발화되는 느낌이 있다면, (9, 10, 11)의 '여기는'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구문은 '이것' 또는 '여기'를 지각함과 동시에 질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하나의 가설로서, '여기는' 구문은 '마음속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이고, '여기가' 구문은 지각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여기가' 구문이 위에서 언급한 지각문에 해당한다면, 이 지각문의 성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느낌 때문에, 담화 신정보설 대신 '담화 신규 도입' 또는 '화자가 모르는 대상'이라는 분석들이 나온 듯하다.

'신규 도입설'에 대한 반론

신규 도입설은 최근에 많이 받아들여지는 입장으로, '신규 도입된 청자 구정보 또는 화제 명사구'에 한국어는 독특하게 '-가'를 쓴다는 주장이다. 풀어보면, 의문문은 청자가 알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청자 구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제-초점의 이분법에서 보면, WH 초점 성분을 제외한 주어 부분은 화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장소나 사람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이전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정보이므로 신규 도입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문들에 적용해 보면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Yutani(2005)와 Takubo(1990)는 앞에서 검토한 '여기가' 구문을 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아래 (12)에서 약간 다른 성격의 '화장실이' 구문을 대상으로 삼아보았다. 이때도 한국어에서는 '-가'가, 일본어에서는 '-wa'가 쓰인다.

(12) a. 화장실-이/*은 어디예요?
a'. toire-*GA/WA doko-desu-ka?
b. 이름-이/*은 뭐예요?
b'. namae-*GA/WA nan-desu-ka?

Yutani(2005)와 Takubo(1990)의 해석에 따르면, 이 한국어 예문의 '화장실이', '이름이'는 청자 구정보이면서 신규 도입되는 요소이다. 이 신규 도입 요소를 한국어에서는 담화 신정보로 취급하여 '-가'가 쓰이고, 반면에 일본어는 신규 도입되더라도 담화 구정보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화 구정보의 일반적인 정의를 화자-청자 공유 정보 또는 담화 공간에 전제되는 대상이라고 할 때, 일본어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고 한국어 현상은 특수한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어에서는 '화장실'과 '이름'이 담화 공간에 전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된다.

이 주장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해보자. 첫째, 담화 주어짐성의 정의가 언어별로 다른 문제이다. 만약 '화장실'이나 '이름'이 한국어에서 담화 신정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 나, 너, 지금' 등의 요소는 언어 보편적으로 담화 구정보로 볼 수 있다. 이런 요소는 어떤 언어에서든지 이전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시체이다.

둘째, 그러면 '한국어에서 담화 신정보로 처리한다'는 주장보다 '청자 구정보의 신규 도입'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규 도입' 개념은 영어의 비한정(nondefinite) 명사구 성격과 유사하다. 단, 한/일 논의는 의문문에만 이 '신규 도입'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도입설은 '의문문 비한정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13) a. 화장실-은/이 어디에 있습니까?
b. 당신(의) 이름은/?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c. 이 녀석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위 예문 (13)은 담화에서 처음 도입되는 문장일 때, '신규 도입' 측면에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b)의 경우 '-는'이 더 자연스럽다. 한정성 측면에서 (a)는 애매하다 하더라도, (b, c)의 화제 명사구는 확실히 한정성을 가진다.

'화자 신정보설'에 대한 반론

지금까지의 설명들이 모두 반례를 갖고 있어서인지, 김선미(2007)에서는 "화자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 물어볼 때" 한국어는 '-가'를 쓴다는 다소 애매한 대안을 제시했다. 화자 신정보설이다. 김선미(2007: 167)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14) (여행 중인 A 가 갑자기 친구 B 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A: 나 지금 바볼(Babol)에 와 있어.
B: 뭐, 바볼? 바볼이(*바볼은) 어디야?

화자 신정보설에 따르자면, '-는'을 쓰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화자 구정보이다. 그러면, 화자가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물론 알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장소를 아는지 확인할 때이다. 그러나 화자가 진짜 몰라서 물어볼 때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모두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위 (14) 예문에 대한 명확한 반례는 다음과 같다. 아래 (15)는 모두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다. '-는/-가' 둘 다 가능하다.

(15) a. 축구는 메시가 최고죠. 근데, 메시가/는 어느 팀이죠?
b. 회의가 이번 토요일이네요. 이번 토요일이/은 며칠이죠?
c. 우리 코파카바나 갔었잖아. 근데 코파카바나가/는 어디였더라?
d. 볼리비아에 가자고? 볼리비아가/는 어느 대륙이야?
e. (자기 집에서 눈을 가린 채로) 화장실이/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의 세 가지 주장인 담화 신정보설, 신규 도입설, 화자 신정보설을 반례를 들어 비판하였다. 이 예문들의 분류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크게 (i)'여기가 어디예요?', (ii)'화장실이 어디예요?', (iii)'이름이 뭐예요?', (iv)'아이가 몇 명이에요?'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주로 지각적 제언문 (i)와 (ii)를 다루었다.[84] 제3.3절에서는 (iii, iv)를 일반화제문 차원에서 해석하여 정언 의문문으로 다룰 것이다.

3.3.2.2. 제언 의문문의 성격과 일본어의 '-ga'의 제약

제언 의문문에 대응하는 평서문 또는 감탄문을 보면 이 문장 유형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특히 의외성(mirativity)을 띠는 구문은 대개 지각과 동시에 발화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각적 제언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 지각적 제언문을 일부 나열했다.[85]

---

[84] (ii)는 일반화제문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집은, 이곳은) 화장실이 어디예요?"에 해당한다. 제3.3.3절에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85] 이 문장들의 의외성(mirativity)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각과 동시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뤘다.

(16) a. 화장실이 여기네요.
b. 출구가 저쪽이군요.
c. 볼리비아가 남미구나.
d. 그 녀석이 벌써 10살이네요.
e. 넥타이가 멋지네요.
f. 오늘이 생일이네요.

하나의 가설로, 지각적 제언문은 정보 처리 방식 중의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외부 정보가 지각되었을 때, 그 지각 정보가 저장소의 정보와 연결되어 재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정보 단독으로 구문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 제언문은 감각을 통해 인지한 지시체, 즉 외부 개체가 화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화제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각 공간 또는 '지금-여기'의 장면화제를 가진다고도 할 수도 있다. 이 '장면화제'의 정의 문제는 제5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각 제언문에 대응되는 제언 의문문 "여기가 어디입니까?"는 정언 의문문 "여기는 어디입니까?"와 비교하여,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지각된 정보에서 공간에 대한 정보가 비어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여기'를 화제로 하여 인출한 정보에서 공간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가 어디입니까?"는 '여기=X지점'이라는 미명세 지각 정보에 소통적 초점을 부여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정언 의문문인 '여기는 어디입니까?'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정보 인출이 이루어지고 배경 정보들이 활성화되지만, 그 정보 중에 'X지점'이라는 정보는 미명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미명세 정보는 지각부의 단독 정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배경정보들 중에 초점이 부여된 정보이다. 이렇게 정보 처리 관점에서 보면 두 구문

은 화제 구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 '여기가'와 '여기는'의 차이를 지각과 인출이라는 정보 처리 방식과 그 화제 구조의 차이로 설명하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동일한 상황과 문맥에서 동일한 의도의 구문이 둘이라면,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음운적 이형태인지, 또는 개인이나 지역 방언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데 화용적으로 동일한 화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의미가 환언(paraphrase)된 것인지 등이다. 여기서는, 술어 중심이 아닌 화제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므로, 동일한 어휘 요소와 동일한 술어 논항 구조라도, 화제 구조가 다르면 다른 구조로 보았다. 정보의 출발점이 다르게 조직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화제 구조를 상정할 때, 일본어에서는 "koko-WA/*GA doko-desu-ka?"의 하나의 구문으로만 실현된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두 가지 제안으로, (a) 분포설: 제언 의문문과 정언 의문문 표현을 '-wa'가 둘 다 담당한다고 설명하거나, (b) 제약설: 제언 의문문을 쓸 수 없는 어떠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 인출 구문에 대해서는 화자 중심의 접근법을 중시하고 있으나, 의문문과 같이 소통을 전제로 하는 문장, 즉 소통적 초점이 있는 문장은 청자 측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86] 예를 들어, 티벳어에는 이 청자 입장의 인칭을 의문문에 반영하는 합치(conjunct)/불합치(disjunct) 현상을 보인

[86] 본 연구는 정보구조를 화제 구조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화제→{기반}과 윤곽화에 이르는 구조는 화자의 주의 흐름을 반영한 정보 인출 구조이다. 따라서 이 구조를 해석할 때, 화자 중심의 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통적 초점의 경우, 의문문을 통해 청자에게 미명세된 정보를 요청하고, 청자는 그 요청으로 인해 대답문의 윤곽화 범위가 강제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통적 초점은 화제 구조에 부가되는 별도의 기제이며, 청자 측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87] 이러한 유형론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본어에서 의문문의 화제 구조는 화자 측의 화제 구조가 아닌, 청자 측의 화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만약 일본어 화제 구조가 정보 제공자와 합치한다고 설명하면 (b) 제약설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88] 요약하여,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한다.

(17) 일본어 제언 의문문에 '-ga'를 쓰지 못하는 이유 (가설)

a. 청자 측이 대답하게 될 화제 구조를 반영하여 '-wa'를 쓴다. (제약설)

b. 제언 의문문은 '갑작스러운 어감'으로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회피되어 온 결과 '-wa' 구문으로 대체되었다. (분포설)

3.3.3. 정언 의문문의 대조

지금까지의 제언 의문문과 다음의 예문들은 분명히 화제의 성격이 다르다. 아래 (18)은 제언문이 아닌 정언 의문문에 해당한다.

(18) a. 당신-의 이름-은/?이 무엇입니까?

a'. anata-no namae-WA/*GA nan-desu-ka?

b.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b'. anata-*WA namae-*GA nan-desu-ka?

---

87) 티벳어는 동사의 '1인칭' 굴절이 평서문에서는 화자를 지시하고, 의문문에서는 청자를 지시한다. 이렇게 정보제공자(informant)와 일치하는 인칭 굴절을 '합치(conjunct) 인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굴절을 '불합치(disjunct) 인칭'이라고 한다. 이 합치(conjunct)/불합치(disjunct) 개념은 Hale(1980), DeLancey(1990)에서 티벳어의 이 특수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도입한 용어이다.

88) 심사과정에서 티벳어의 합치/불합치 현상과 연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아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이 맞다면, 일본어 화제 구조의 합치/불합치는 추후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보인다.

c. 당신은 별명-이 왜 AI예요?

c'. anata-WA nikkuneemu-GA doo-shi-te 'AI'-desu-ka?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 (18)에서 일본어가 이중 주어에 대해 독특한 구문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단 (a, a')는 소유 구문인데, 두 언어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화제는 소유물인 '(당신의) 이름'이다. 반면, (b, b')는 소유자가 화제인 구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는 이 구문 실현에 별 제약이 없는 반면, (b') 일본어에서는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문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구조인 (c')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b)처럼 이중주어 구문이 불가능한 경우와, (c)처럼 이중주어 구문이 가능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 대조해보자.

3.3.3.1. 일본어 이중주어 불가능 구문

다음과 같은 일본어 문장들은 이중 주어가 불가능하다. 대체로 의문사가 '어디, 무엇' 등에 해당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모두 허용된다.

(19) a. *(koko-WA) toire-GA doko-desu-ka?

a'. (?여기-는)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b. *kyoo-no atsumari-WA basho-GA doko-desu-ka?

b'. 오늘 모임-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c. *anata-WA namae-GA nan-desu-ka?

c'.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d. *Taroosan-WA ketsuekigata-GA nan-desu-ka?

d'. 타로씨-는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e. *sensei-WA denwa-bangoo-GA nan-ban-desu-ka?

e'. 선생님-은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f. *anata-WA kibun-GA doo-desu-ka?
f'. 당신-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예문들은 'A-wa B-ga' 구문이 안 되므로, 당연히 화제가 생략된 '(A-wa) B-ga' 구문도 절대 안 된다. 하나 주의할 점은, (16a)의 "화장실이 어디예요?"류의 구문은 장면화제 또는 생략된 화제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화제문이라면, 화자가 위치한 지각 장면을 장면화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건물, 이 근처' 같은 구체적인 지시물을 가리키는 화제가 생략됐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 화제가 없다면, 앞 절의 제언 의문문 설명에 포함하면 된다.[89] 따라서, 이 절에서는 논의의 중심을 (19b) "(오늘 모임은) 장소가 어디예요?"처럼 분명히 화제가 있거나 생략된 문장에 두고 있다.

이 일본어 의문문들은 평서문과 판정 의문문에서도 아래 (20)같이 이중주어 구문이 불가능하다.

(20) a. *watashi-WA namae-GA Taro-desu.
a' 저-는 이름-이 타로입니다.
b. *kyoo-no atsumari-WA basho-GA 302-goo-desu.
b'. 오늘 모임-은 장소-가 302호입니다.

이렇게, 일본어에서는 일부 소유 구문에서 'A는 B가 P다'가 불가능하고 'A의 B가 P다'로만 실현된다. 이 경우를 일반화하려 할 때, 첫 인상으로는 '어디?'나 '무엇?' 등의 특성으로 보이지만,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21) a. tako-WA atama-GA doko-desu-ka?
a' 문어-는 머리-가 어디예요? (어느 부위가 머리예요?)

[89] 단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정언 의문문 예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부 정언 의문문의 경우, 특정한 의미적 제약 또는 정보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적 제약은 다음 절의 예들과 비교한 후,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3.3.3.2. 일본어 이중주어 가능 구문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상과 달리, 일본어에서도 'A는 B가 P다'의 이중주어 구문이 가능하다.

(22) a. ?koko-WA toire-GA doko-ni ari-masu-ka?
a'. 여기-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b. koko-WA toire-GA ikutsu ari-masu-ka?
b'. 여기-는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c. kyo-no atsumari-WA basho-GA doko-ni kimari-mashita-ka?
c′. 오늘 모임-은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d. anata-WA nikkuneemu-GA doo-shi-te 'AI'-desu-ka?
d'. 당신-은 별명-이 왜 AI예요?

이 구문들은 두 언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화제 생략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 독특하다. 한국어는 누군가를 화제로 하여 얘기하던 중에 "별명이 몇 개예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생략된 화제를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일본어는 화제 부분을 생략하면 아래 (23)처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23) a. ?*toire-GA doko-ni ari-masu-ka?
a'.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b. ?*toire-GA ikutsu-desu-ka?
b'.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c. ?*basho-GA doko-ni kimari-mashita-ka?
c'.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d. ?*nikkuneemu-GA ikutsu-desu-ka?
d'. 별명-이 몇 개입니까?

이 문장들 중 (c, d)에서는 화제가 생략됐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일본어에 화제 생략에 대한 제약이 큰 것은 아니다. 아래 (24)처럼, 대부분의 화제 구문에서 화제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24) a. (Taro-WA) Tokyo-de shigoto-o shi-te-imasu-ka?
a'. (타로-는) 도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b. (ketsuekigata-WA) Taro-to onaji-desu.
b'. (혈액형-은) 타로와 같아요.
c. (zoo-WA) hana-GA nagai.
c'.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3.3.3.3. 의문문 화제 생략으로 인한 '-ga' 부각의 회피

이렇듯, 일본어는 일반적 화제 구문과 달리 유독 이중 주어 의문문에서 화제를 생략하길 싫어한다. 또한 "*namae-ga taroo-desu"(이름이 타로입니다)류의 일부 평서문에서도 화제 생략이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어는 이런 이중 주어 구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 경우에 화제를 생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일본어의 이중 주어 구문에서 소유주를 명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유 구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5) a. (watashi-NO) namae-WA Taro-desu.
a' (저-의) 이름-은 타로입니다.
b. (watashi-NO) nikkuneemu-WA futatsu-desu.

b'. (저-의) 별명-은 두 개입니다.
c. (atsumari-NO) basho-WA 302-goo-desu.
c'. (모임-의) 장소는 302호입니다.

이러한 소유 구문은 화제의 범위가 다르다. 이중 주어 구문에서는 화제가 소유주인데, 소유 구문은 소유물이 화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중 주어 구문과 소유 구문은 각기 다른 화제 구조로 재조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소유 구문 의문문에서 화제의 선택 방식이 서로 다르고, 일본어에 소유주 화제 구문 실현에 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어는 소유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소유물이 등장할 때, 일부 구문에서는 소유주 화제 제약으로 인해 화제가 소유물로 전이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소유자 화제를 명시하든 생략하든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일본어는 의문문에서 화제 성분 없이 '-ga' 주격이 부각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화제를 생략하게 되면 '-ga' 주격이 문두에 부각될 수밖에 없다. 소유주 화제가 연속되는 담화 진행이라면, 화제 부각 언어의 특성상 화제인 소유주가 쉽게 생략된다. 그래서 한국어는 일상 대화에서 '-가' 주격 의문문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데 일본어는 이 상황을 무슨 이유에선지 피하는 경향이 크고, 화제를 하위 화제로 이동하는 전략을 쓴다. 즉 화제를 소유주에서 소유물로 이전시킴으로써 화제 생략으로 인한 '-ga' 주격의 문두 부각을 회피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언 의문문, 특히 이중 주어 의문문에서의 이 현상은, 앞 절에서 검토한 제언 의문문의 '-ga' 제약과 유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약은 이어지는 절에서 종합하여 정리하겠다.

3.4. 한국어와 대조를 통해 확인되는 일본어의 특수성

의문문에서의 '-ga' 실현 제약

'여기가 어디예요?' 같은 제언 의문문에서 정보 인출의 출발점은 지각 장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의의) 장면화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각문의 평서문에서 일본어는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형적인 지각문 '비가 온다', '버스가 온다', '까마귀가 운다' 등에서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단일 정보 '여기가 X다'라는 정보는 저장된 정보의 인출이 아닌, 지각된 정보의 직접적 반영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지각정보 '여기가 X다'와 화제 인출 정보 '여기는 X다'를 구분하여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응되는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화제 구조를 직접 반영한다. 반면, 일본어는 지각 정보 '여기가 X다'라는 화자 측의 단일 정보를 제언 의문문으로 직접 표현하지 않고, 정언문 표지(화제 표지) '-wa'로 표현한다.

이 일본어 특수성의 원인은 정언 의문문의 경우를 종합하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일본어는 제언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정언 의문문에서도 '-ga'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담화에서 정언문의 화제는 화제 지속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화제 부각 언어에서처럼 지속되는 화제는 쉽게 생략된다. 한국어가 좋은 예로서,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어요?"처럼 생략되는 화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가' 주격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일반 화제든, 장면화제든 생략된 화제가 있는 경우 '-ga' 주격을 회피한다. 그러므로 일본어의 '-ga' 회피 현상은 제언 의문문에서의 가설 (17)을 정언 의문문을 포함한 일반 의문문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가설을 의문문으로 확장하여 아래 (26)에 수

정하여 옮겼다. 다만, 이 설명은 하나의 시도일 뿐이며 추후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6) 일본어 의문문 '-ga' 제약 (가설)

a. 청자 측 대답문의 화제 구조를 예측하여 '-wa'를 쓴다. (화제 이전설)[90]

b. 제언문, 화제생략문 등의 '-ga' 의문문은 '갑작스러운 어감'으로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회피되어 온 결과, '-wa' 구문으로 대체되었다. (분포설)

이중 주어가 불가능한 구문의 특수성

이 장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성과는,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일본어에서 지각 의문문뿐만 아니라 일부 정언 의문문과 평서문에서도 이중 주어가 불가능한 구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일단 가능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는 한국어처럼 이중 주어 구문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정언 의문문의 일부 술어 구문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등에서 'A는 B가 C'의 이중주어 구문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면, "*anata-WA namae-GA nan-desu-ka?(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가 그렇다. 또한 그에 대응되는 정언문 "*watashi-WA namae-GA Taroo-desu"(저는 이름이 타로입

90) 심사과정에서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와 동일한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어에서 "MTT-가/?는 뭐야?"와 달리 "MTT-는/가 누구 이론이야?"는 화제 표지와 주격 표지가 둘 다 자연스럽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장의 '-는' 구문을 정보 인출의 화제 구조로 보았고, '-가' 구문은 지각 장면의 화제 구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심사 때의 지적처럼, 화제 표지는 청자의 인출적 화제 구조를 적용한 것이고, 주격 표지는 화자의 지각적 화제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니다)도 그렇다. 반면, 한국어는 소유주-소유물에서 이런 제약이 없다. 일본어의 이 이중 주어 제약 현상은 일본어 구문의 특수성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법적 특수성이든 언어 보편성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직 이 제약이 적용되는 일본어의 환경을 정확히 포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이 이중 주어가 불가능한 일본어 사례들 대부분 소유주 A와 소유물B가 양도불가능(inalienable) 관계에 있는 듯이 보인다. 거기에 더해, 'B=C'에서의 의미 관계가 소유물 B의 본질적 속성 C를 표현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91] 거칠게 일반화한다면, 일본어에서 소유주 A의 본질적 속성 관계 'B=C'의 정보를 표현할 때, 상위 화제 A는 실현할 수 없고, B가 화제인 "B-wa C"의 구문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사한 화제 구조에서 P라는 별도의 의미적 술어가 있는 경우와 잘 대비된다. "watashi-WA nikkuneemu-GA futatsu-desu(저는 별명이 두 개입니다)"는 별명이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다. 'B가 X개 있다' 또는 'A가 X개의 B를 가진다' 정도의 의미적 술어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tako-WA atama-GA doko-desu-ka?(문어는 머리가 어디예요?)" 같은 문장은 '문어의 머리의 공간 좌표'를 묻는 것이 아니다. '문어의 머리가 몸에서

---

91)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a. '이름=X'의 의미관계는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무엇'으로 구문화된다. 본질적 속성이란 '코가 길다'의 일부 속성 기술과 다르다.

b. '화장실=X', '우체국=X' 등의 의미관계는 '장소=X'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이 '화장실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환유(metonymy)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에요?'의 경우는 '화장실의 방향'을 환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 '전화번호=X'는 번호의 속성상 '무엇'으로 구문화될 수도 있고, '몇 번'으로 구문화될 수도 있다.

어느 부위에 붙어 있는지'를 묻는 의미라고 보면, "여기는 우체국이 어디예요?", "이 빌딩은 화장실이 어디예요?" 등과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5. 소결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는 대개 일본어를 기준으로 삼고, 한국어가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존 한-일 대조 연구가 일본어의 화제-평언 구조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특수성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 문제의 원인은, 설명 의문문의 표면 구조가 화제와 초점 이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과도 관계가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일본어의 설명 의문문 'A-wa WH?'에 나타나는 '-wa' 성분은 화제-초점 구조의 화제이다. 화제 성분에 화제 표지가 실현되므로 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면, 한국어는 이 화제 성분에 주격 표지 '-가'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특해 보인다.

관점을 바꾸어, 더 세분화된 화제 구조를 고려하여 접근하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화제 구조는 크게 제언문과 정언문으로 유형을 나뉘고, 이는 의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 제언 의문문과 정언 의문문을 구분하여 각각 '-가'와 '-는'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wa'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특이한 것은, 일본어 제언 의문문에 제언문에 쓰이는 '-ga'를 쓸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 논의의 초점은 한국어 '여기-가 어디예요?'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일본어에서 'koko-WA doko-desu-ka?'(여기-는 어디입니

까?)만 쓰이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이 현상은 생략된 화제가 있는 한국어 '이름이 무엇입니까?'가 일본어 'namae-WA nan-desu-ka?'(이름-은 무엇입니까?)로만 표현되는 현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제언 의문문에는 상위 장면화제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언 의문문에서 상위 화제가 생략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묶어서 일본어 의문문의 'ga 회피 현상'이라 하였다. 이 장의 한/일 대조 연구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이 현상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일본어 의문문의 'ga 회피 현상'의 분포 환경과 원인은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많이 거론된 특징적 사례들 위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근거들을 수집하지 못하고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두 언어 화제 표지의 분포 차이에 관한 것이므로, 화제 구조를 다루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 화제 선택 방식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5장에서 일반화하는 화제 구조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두 언어의 화제 구문에서 화제를 윤곽화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 윤곽화 방식의 차이를 제6장의 유형 분류에서 제안할 것이다.

제 4 장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화제 구문 대조

4.1. 개관

지금까지 화제 구문의 연구는 대개 한국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두 언어에 화제 표지와 주격 표지가 두드러지게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얀마어는 이들과 흡사해 보이는 표지 '-ha'와 '-k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가 보이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화제 구조의 세부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얀마어의 두 주격 표지 '-ha'와 '-ka'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미얀마어의 '-ha'가 화제와 분명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ha'가 한/일 화제 표지에 비해 분포가 넓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ha'가 쓰이는 문맥은 설명문이나 혼잣말 등으로 상당히 제한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ha' 문장을 별도의 문체로 간주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도 생기게 되었다.

이 장은 미얀마어 '-ha'가 별도의 문체가 아님을 보이고, 이 '-ha'가 쓰이는 문맥을 분명히 드러내어서, '-ha'가 화제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얀마어의 '-ha'는 화제 구조 또는 정보 조직화 기제의 숨어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법 표지로 사료된다.

4.2. 미얀마어 기존 연구 : 두 주격 표지 -ha와 -ka

한국어, 일본어와의 유사성 : -ha 화제와 -ka 주격

미얀마어의 '-ha'와 '-ka'는 주어 또는 주격을 표시한다. 두 표지의 분포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명쾌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ha'의 성격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화제 관점, 차별화 기능 관점, 문체 차이 관점 등 입장이 다양하다.

Okell & Allott(2001)[92]에서 '-ha'는 "marks the subject or topic of the sentence"(Okell & Allott 2001: 248)라고 하여 주어 또는 화제 표지로 보았고, '-ka'는 "marks noun as subject of sentence"(Okell & Allott 2001: 1)라고 하여 주어 표지로 보았다. Hlaing(2015: 51)에 따르면, 미얀마어위원회에서 직접 편찬한 문법서에서 '-ha'를 "word indicating nominative case",[93] 즉 주격조사로 기술했고, '-ka'는 "postpositional marker to indicate nominative case",[94] 즉 주격 후치사[95]로 기술했다.[96]

미얀마어의 두 주격 표지는,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어 '-wa', '-ga'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의 대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는 Harada(1969), Kobayashi(1984), Kato(1996)와 미얀마인 학자 Myint Soe(1999), Hlaing(2015) 등을 들 수 있다. 서양의 경우, 대표적으로

---

92) 영국의 미얀마어 연구자 Okell은 미얀마어의 가장 권위 있는 참조 문법서 "A Reference Grammar of Colloquial Burmese" (Okell 1969)로 유명하다.

93)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1: 515, 528)

94)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1: 1)

95) 후치사로 기술한 이유는, 추정컨대, 의존적 명사인 'ha'('것'에 해당)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 ha가 통시적 근원일지는 몰라도, 주격 표지 '-ha'는 완전히 문법 요소로 발달했다. 의존 명사 ha는 수식구 뒤에만 결합하고 '-의 것', '-한 것'의 의미가 명확한데 비해, 주격 '-ha'는 모든 명사구에 결합하고, 주격의 기능만 수행한다.

96) Hlaing(2015: 51)에서 재인용.

는 Thurgood(1978), Wheatley(1982) 등이 있다. 다음 예들은 기존 연구에서 두 언어의 공통점으로 든 문장들이다. 이 경우, 한국어도 일본어와 동일하므로, 해석문은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달았다.

(1) a. ကျွန်တော်-**ဟာ** လူ-ပျင်း ဖြစ်-ပါ-တယ်။[97]

kyandaw-**ha** lu-byin: hpyit-pa-de[98] (Harada 1969: 115)
1P-NOM man-lazy be-POL-IND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b. အဲဒီ-လို ပြော-တာ-**ဟာ** မ-ကောင်း-ဘူး-နော်။

e:di-lo pyaw:-da-**ha** ma.-kaun:-bu:-naw (Kobayashi 1984: 93)
that-like say-NMZ-NOM not-good-NEG-ATTN
'그렇게 말한 것은 좋지 않아요.'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경우)

c. သူ-**ဟာ** ဒီ တက္ကသိုလ်-က ကျောင်းသား-ပါ။

thu-**ha** di tetka.tho-ka. kyaung:tha:-ba (Kato 2004: 1)
he-NOM this university-from student-POL
'그는 이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d. ကျွန်တော်-**ဟာ/ø** ဆရာဝန် ဖြစ်-ပါ-တယ်။

kyandaw-**ha/ø** hsayawun hpyit-pa-de (Hlaing 2015: 50)
1P-NOM doctor be-POL-IND
'저는 의사입니다.'

(2) a. တာယာ-**က** ပေါက်-နေ-တယ်။

taya-**ka.** paut-nei-de (Harada 1969: 115)
Tire- SBJ burst-CONT-IND
'타이어가 펑크났어요.'

b. ဘယ်သူ-**က** ကူညီ-ပေး-ပါ-မ-လဲ။

bethu-**ka.** kuni-pei:-ba-ma.-le:? (Kobayashi 1984: 93)
who-NOM help-give-POL-FUT-Q

---

97) 미얀마어의 알파벳 표기 방식은 문헌마다 다르므로, 개별 표기 방식들이 주는 혼란을 막고 정확한 문장을 표기하고자 미얀마 문자를 병기하였다.

98) 문헌마다 다른 미얀마어 알파벳 표기를 본고의 표기 방식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 음절의 성조 표기로, ':'는 높고 긴 고성조이고, '.'는 높고 짧으면서 성문폐쇄음 /ʔ/를 수반하는 하강조이다. 성조 표기가 없는 음절은 낮고 긴 저성조이다.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c. ဒီ ဟင်း-**က** အ-ကောင်း-ဆုံး-ပါ။

di hing:-**ka.** a.-kaung:-zoung:-ba (Kato 2004: 1)
this dish-NOM NMZ-good-end-POL
'이 요리가 가장 좋습니다.'

d. ကျွန်တော်-**က** ဆရာဝန် ဖြစ်-ပါ-တယ်။

kyandaw-**ka.** hsayawun hpyit-pa-de (Hlaing 2015: 50)
1P-NOM doctor be-POL-IND
'제가 의사입니다.'

위 예문 (1)은 명사 술어문 또는 계사 술어문으로, (2)와 비교할 때, 확실히 화제의 느낌이 강하고 '-ha'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1)의 경우에 '-ha' 대신 '-ka'가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2)에서도, 의문문 (b)를 제외하면[99] '-ka' 대신 '-ha'가 쓰일 수 있다.[100] 이렇듯 '-ha'를 화제 표지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ha'에 대한 연구는 결론을 유보하거나, 아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미얀마어 '-ha'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4.4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99) 의문문에서는 대부분 '-ha'가 쓰일 수 없지만, 수사의문문에서는 가능하다. (2b)와 거의 동일한 문장 구조의 아래 예문에서는 '-ha/-ka'가 둘 다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a. ဘယ်သူ-**က/ဟာ** ကူညီ-ပေး-ခဲ့-သ-လဲ။

bethu-**ka./ha** kuni-pei:-ke.-tha.-le:?

who-NOM help-give-PAST-NonFUT-Q
'누가 도와주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문장에서의 '누가'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문대명사가 아닌 부정대명사에 해당한다. 의문대명사에는 '-ha'가 불가능하지만, 부정대명사에는 '-ha/-ka'가 둘 다 결합할 수 있다.

100) 의문문에서는 '-ha'가 쓰일 수 없음을 제4.4.2.1절에서 보일 것이다. 그런데(2a, 2c)에서도 '-ha'가 부자연스럽다는 원어민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배경문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특정한 문맥을 제공하면 괜찮다고 한다. 이 특정한 문맥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 중 하나이다.

-ka의 분포 : 화제, 주격, 주격 초점, 주격 대조성

그렇다면, '-ka'는 한국어, 일본어와 같이 주격 표지인가? 미얀마어 '-ka'의 쓰임새는 다른 두 언어의 주격 표지보다 분포가 상당히 넓다. 그 기능은 (a) -ka[1]: 화제, 주격, (b) -ka[2]: 초점 주격, 대조성 주격, (c) -ka[3]: 출발점, 과거 시점, 소유 관계 등의 사격에까지 걸쳐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주격과 관련된 '-ka[1]', '-ka[2]'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ka[3]' 사격 표지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a. အဖေ အလုပ်-**က/ကနေ** ထွက်လိုက်-ပြီ။

a.hpei a.lout-**ka/ka.ne** htwetlait-pyi (출발점의 탈격)
father-ø work-from leave-IND.PF
'아버지-는/가 직장에서 떠났다. (일을 그만두었다)'

b. မနေ့-ညနေ-**က** ရုပ်ရှင် သွား-ကြည့်-တယ်။

ma.nei.-nya.nei-**ka** youtshing thwa:-kyi.-de (시간의 처소격)
yesterday-evening-at movie go-see-IND
'어제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갔다.'

c. ရေချိုးခန်း-**က** ရေပန်း ပျက်-နေ-တယ်။

yeicho:gan:-**ka** yeipan: pyet-nei-de (출신,소유,부분 속격)
bathroom-of shower-ø break-CONT-IND
'욕실의 샤워기가 고장났다.'

이렇게 다양한 사격들은, 인지적 '근원이나 출발점'의 의미로 인해 동일한 문법형태 '-ka'를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화제나 주격도 '사건 인지의 출발점 또는 정보 인출의 출발점' 등으로 인해 이 '-ka' 형태를 공유한다고 접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격의 '-ka[3]'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격 '-ka[1]'과 주격 초점 '-ka[2]' 위주로 다룰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주격 '-ka'를 화제, 주어 구별 표지 등으로 분석한 사례

들을 보자.[101] 우선 Thurgood(1978: 255-257), Wheatley(1982: 176-190) 등은 '-ha'를 화제 연속 표지로, '-ka'를 화제 도입 및 대조성 표지로 보았다. 아래 예문은 화제 표지의 예로 든 것이다.

(4) A: ဧည့်ခန်း ဘယ်-မှာ-လဲ? (Cornyn & Roop 1968: 233) [102]

e.gan: be-hma-le:?
livingroom-ø where-at-Q
'거실-ø 어디야?'

B: ဧည့်ခန်း**(-ဟာ)** အောက်-ထပ်-မှာ ရှိ-တယ်။

e.gan:**(-ha)** aut-htat-hma shi-de
livingroom-NOM down-floor-at exist-IND
'거실은 아래 층에 있어.'

그런데 이 문장에 '-ka'나 '-Ø'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Thurgood(1978: 255)는 이때의 '-ka'를 '새 화제 도입'으로 보았다. Wheatley(1982: 176-190)도 유사한 관찰을 바탕으로, '-ha'에 비해 '-ka'는 서사의 단절 또는 방향 전환에 쓰인다고 하였다. 즉 '화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한편, Sawada(1995a: 180-183)는 화제 관련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ka'의 주어 구별(disambiguation)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주로 복문에서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를 구분할 때, 주절의 주어에 '-ka'를 쓴다. 둘째, "그의 이름-ka 꼬윈페래"(Okell 1969: 317)의 '-ka'는 두 명사구를 구분한다고 하였다.

-ka² : 주격의 초점과 대조성

초점과 대조성을 표현하는 경우 '-ka' 대신 -ø형태가 불가능한 필수적 '-ka'이다. 이 필수적 '-ka'를 본 연구에서는 '-ka²'로 취급하였다. 우선, 주

101) Kato(2004)와 Hlaing(2015)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02) Thurgood(1978: 257), Kato(2004: 3)에서는 223페이지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격에 초점이 부여될 때, 즉 설명의문문의 질문-대답쌍에서 '-ka[2]'가 결합한다.

(5) a. ဘယ်သူ-**က** ကူညီ-ပေး-ပါ-မ-လဲ။

becthu-**ka.** kuni-pei:-ba-ma.-le:? (Kobayashi 1984: 93)
who-NOM help-give-POL-FUT-Q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b. သီဟ-**က** ကျောင်းသား-ပါ။ ("누가 학생이니?"에 대한 답변)

ThiHa.-**ka.** kyauntha-pa.
PN-FOC student-POL
'티하-가 학생-입니다.'

한편, Sawada(1995a)의 경우는 다음의 예를 들어, '-ka'의 '선택 주어'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통용되는 정보구조 용어로는 확인 초점 또는 총망라성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격 초점 표지로서의 '-ka[2]'는 한국어, 일본어에서도 주격 초점에는 주격 표지 '-가[2]', '-ga[2]'가 쓰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6) Q: မြန်မာ-ဟင်း-နဲ့ ဂျပန်-ဟင်း ဘယ်-ဟာ စပ်-သ-လဲ။

myanma-hing:-ne. gya.pan-hing: be-ha sat-tha.-le
PN-dish-and PN-dish which-thing hot-NonF-Q.wh
'먄마 음식과 일본 음식, 어느 것이 맵니?'

A: မြန်မာ-ဟင်း-**က** စပ်-တယ်။

myanma-hing:-**ka.** sat-de
PN-dish-FOC hot-IND
'먄마 음식이 매워.'

대조성의 예는 Thurgood(1978: 255-257), Wheatley (1982: 176-190) 등에 잘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ka'를 '대조 주어'로 설명하였다.

(7) a. ကိုသာပေး-**က** ငယ်-တယ်။ ကိုတုတ်ဖျိုး-**က** ကြီး-တယ်။ (Okell 1969:318)

KoThaPei:-**ka.** nge-de KoTotPhyo:-**ka.** kyi:-de
PN-NOM young-IND PN-NOM big-IND
'KoThaBay was the younger, and KoTokeHpyo was the older'

b. သူ-**က**/ˀ**ဟာ** ကြက်သား စား-တယ်၊

thu-**ka.**/ˀ**ha** kyektha: sa:-de (Kato 2004:2)
3P-NOM chicken eat-IND

ဒါပေမဲ့ ကျွန်တော်-**က**/ˀ**ဟာ** ဝက်သား စား-တယ်။ [103]

dabeime. kyanaw-**ka.**/ˀ**ha** wektha: sa:-de
but 1P-NOM pork eat-IND
'He ate chicken but I ate pork'

이 견해를 확장하여 미얀마인 연구자 Myint Soe(1999 : 94-116)는 비대조 주어가 '-ha' 또는 주격 생략으로 실현되고, 대조 주어는 '-ka'로 실현된다는 분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미얀마어의 주격은 '-ka/ø'로 실현된다. '-ka'의 두 기능으로는, '-ø'와 교체 가능한 무표적 주격 '-ka^1'이 있고, 대조성 또는 초점 표지로서 '-ø'로 교체할 수 없는 유표적 '-ka^2'가 있다. 한국어 일본어와 유사한 점은 주격과 초점 주격을 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주격 표지 '-ka'가 동시에 대조성까지 담당한다는 점이다.

4.3. 구어체와 문어체, 그리고 '겉보기 구어체'

구어체와 문어체

미얀마어에서 구어체와 문어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문어체는 문법 표지에 있어서 구어체와 상이한 것들이 많고, 어휘의 경우는 크게 차

103) 원어민의 표현에 따르면, 이 경우 '-ha'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대조적 어감이 사라지고 '일반적 사실'을 나열하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가 나지 않는다. 문어체는 출판물, TV 뉴스, 안내문, 표지판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요즈음은 방송 등에서 딱딱한 문어체 대신 구어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문체의 차이는 아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Okell 2010: xvi). 동일한 문장이지만 사용되는 문법 표지들이 완전히 다르다.

(8) a. မလှ-**သည်** စစ်တွေမြို့-**တွင်** နေ-**သည်**။ (문어체)
MaHla-**thi** SitTwe-**twing** nei-**thi**
PN-NOM PN-LOC live-IND
마흘라-는 시트웨-에서 산다.

b. မလှ(-**ဟာ**) စစ်တွေမြို့-**မှာ** နေ-**တယ်**။ (구어체)
MaHla(**-ha)** SitTwe-**hma** nei-**te**.
PN-NOM PN-LOC live-IND
마흘라-는 시트웨-에서 산다.

구어체와 '겉보기 구어체'를 구분해야 하는가?

문어체 외에도, Sawada(1995b)와 Kato(2004)는 '겉보기 구어체'(見かけの口語体)라고 하여 별도의 문체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인 미얀마인 학자 Hlaing(2015: 50)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9) a. ကျွန်တော်-ဟာ ဆရာဝန် ဖြစ်-ပါ-တယ်။ (겉보기 구어체)
kyandaw-**ha** hsayawun hpyit-pa-de.
1P-NOM doctor be-POL-IND
'저는 의사입니다.'

b. ကျွန်တော် ဆရာဝန် ဖြစ်-ပါ-တယ်။ (순수 구어체)
kyandaw-**ø** hsayawun hpyit-pa-de.
1P-NOM doctor be-POL-IND
'저는 의사입니다.'

순수 구어체에서는 '-ha'가 잘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겉보기 구어체에서는 '-ha'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선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특히

‘-는’과 ‘-가’의 쓰임이 대체로 명확한 한국어와 일본어와 대조하다 보면, 위 예문과 같이 겉보기 구어체를 분리시킬 때 분석이 약간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다. 미얀마어 화자인 Hlaing(2015)에서조차 Sawada(1995b)의 겉보기 구어체를 받아들이고 있다.[104)]

그러나 겉보기 구어체는 실체가 모호하다. Sawada(1995b: 1)에서는 이 문체를 “일상 대화에 나타나지 않고, 강연, 연설, 혼잣말 등 일방적인 이야기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Kato(1997: 102)는 ‘-ha’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구어체로 쓰여진 글이나 연설, 학교 강의, TV 드라마의 비교적 예의를 차리는 장면에서”라고 했다. 그리고 “일상 회화에서 ‘-ha’을 많이 사용하면 이상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겉보기 구어체를 일종의 격식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Sawada(1995b: 1)에서 언급했듯이 “혼잣말 등”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상 회화에서도 “일방적인 이야기”에 쓰일 수 있다.[105)] 따라서, 청자와 주고받는 대화에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미얀마어 화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구어체인 것이다. 실제로 미얀마어 화자들에게 구어체가 둘로 구분되는 것 같다고 하면, 대체로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보기 구어체의 ‘일방적인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 실체가 모호한 문체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

---

104) Hlaing(2015: 53)에 따르면,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에서도 "동작주나 주어를 가리키고 싶을 때,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 ka만 쓴다"며 문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문어체 얘기에 해당한다.

105) 미얀마인 연구자 Hlaing(2015: 54)은 “버마어 ha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판단문의 경우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ha가 판단문에 나타나는 것은 Okano(2007 : 167)가 주장하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뉘앙스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화자가 말한 것과 관련하여(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화자는 하되 반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뉘앙스를 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 일상 회화문에서 '일방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엿볼 수 있다.

(10) a. ချောစု-**ဟာ**/***က** အိမ်ထောင် ရှိ-တယ်။
Chaw:su.-**ha/*ka** eingdaun shi.-te
PN-SBJ marriage exist-INDC
'철수-는 결혼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마)

b. ချောစု-***ဟာ**/**က** အိမ်ထောင် ရှိ-တယ်။
Chaw:su.-***ha/ka** eingdaun shi.-te
PN-SBJ marriage exist-INDC
'철수-는 결혼했다.' (단순 사실 전달)

이 현상은 본고의 입장, 즉 정보구조는 화자 중심 정보처리라는 측면과 그 세부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므로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는 일단 구어체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 관련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4.4. -ha와 -ka의 기능

4.4.1. -ha의 용법 재고찰

-ha는 화제 표지인가?

이 장의 맨 처음에서 본 예문들처럼, 미얀마어 '-ha'는 한국어 '-는', 일본어 '-wa'와 대응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때문에 화제 또는 주제를 나타낸다고 접근한 연구들이 많다. Thurgood(1978), Wheatley(1982)의 화제 진행 입장과, Okano(2009)의 보조사 입장 등에 화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또 Okell & Allott(2001: 248)의 "Marks the subject or topic of the sentence"도 화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어 ‘-ha’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화제 표지와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목적어나 사격 논항에 이 표지가 붙을 때는 아래 (a, b)처럼 술어를 명사화해야 한다. 반면, 한국어나 일본어는 술어의 변화가 없어도, 아래 (a’, b’)의 소위 ‘화제화’ 문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11) a. မြန်မာစာ-**ဟာ** မြန်မာ-လူမျိုး-တွေ ပြော-**တာ** ဖြစ်-တယ်။
myanmaza-**ha** [myanma-lumyo-twe pyaw:-**ta**] pyit-te.
Burmese-**NOM** myanmar-people-PL-NOM speak-**NMZ** be-IND
‘미얀마어는 미얀마인들이 말하는 것이다.’

a'. *မြန်မာစာ-**ဟာ** မြန်မာ-လူမျိုး-တွေ ပြော-တယ်။
*myanmaza-**ha** myanma-lumyo-twe pyaw:-te
Burmese-**NOM** myanmar-people-PL-NOM speak-IND
‘미얀마어는 미얀마인들이 말한다.’

수의적으로 보이는 -ha~-ka[1]교체

미얀마어 ‘-ha’와 ‘-ka’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설명문에서 대부분의 ‘-ha’를 ‘-ka’로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일상 대화에서는 ‘-ha’의 빈도가 낮지만, 만약 이를 썼을 때는 특유의 ‘일방적인 이야기’라는 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명문이나 발표문에서는 ‘-ha/-ka’의 의미나 기능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아래 (12)의 단순한 설명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철수에 대해 설명할 때)
ချောစု-**ဟာ/က** ကိုရီးယား-လူ-ပါ။ ချောစု-**ဟာ/က** ဘူဆန်-မြို့-မှာ မွေး-တယ်။
Chaw:su.-**ha/ka**. Kori:ya:-lu-pa. Chaw:su.-**ha/ka**. Busan-myo.-hma mwei:-de
PN-NOM PN-man-POL PN-NOM PN-city-at be.born-IND
‘철수는 한국인입니다. 철수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ချောစု-**ဟာ/က** ကြိုးကြိုးစားစား စာကျက်-တယ်။ အဲဒါကြောင့် ချောစု-**ဟာ/က**
Chaw:su.-**ha/ka**. kyo:kyo:sa:sa: sakyet-te e:dakyaun. Chaw:su.-**ha/ka**.

PN-NOM diligently study-IND thus PN-NOM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ကျောင်း-ကောင်းကောင်း-မှာ သင်-နေ-တယ်။

kyaun:-kaung:kaung-hma thin-nei-te
school-good-at study-CONT-IND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문에서 일본어 '-wa' 대신 '-ga'를 쓴다거나, 한국어 '-는' 대신 '-가'를 쓴다면 상당히 어색하다. 하지만, 미얀마어에서는 둘 다 괜찮다고 한다. 그러므로 Thurgood(1978: 255-257) 등에서 '-ha/-ka'를 각각 '확립된 화제의 연속'과 '화제 신규 도입'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치 못한 듯하다.

이렇듯 설명문에서는 '-ha'와 '-ka'를 분리해서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Sawada(1995b), Kato(2004), Hlaing(2015: 50) 등은 설명문과 혼잣말 등을 '겉보기 구어체'라는 문체에 포함시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문은 글로 쓰여진 경우가 많을 뿐이지, 일상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단, 기존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언급했듯이, '-ha'는 '일방적인 전달' 또는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감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겉보기 구어체'를 상정하는 Hlaing(2015: 54)에서는 '-ha'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ha'가 쓰인 문장은 판단문[10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 해당한다.

---

106) Noda(1996)의 '-wa/-ga'를 구분하는 5가지 원리 중 하나인 판단문/현상문 대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판단문은 '-wa', 현상문은 '-ga'로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정언문/제언문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a. 雨が 降っている。
ame-ga hutte-iru

(13) a. ကျီးကန်း-အော်-သံ-**ဟာ** ဧည့်သည် လာ-မယ့် နိမိတ်-ပဲ။
kyi:kan:-aw-than-**ha** e.the la-me. nimeit-pe
crow-cry-sound-NOM guest come-PART.FUT omen-EMP
'까마귀 울음 소리는 손님 올 징조이다.'

b. ငွေ-**ဟာ** လူ့ဘဝ-ကို ပြောင်းလဲ-စေ-နိုင်-တယ်။
ngwe-**ha** lu.ba.wa.-ko pyaun:le:-se-nain-te
money-NOM life-ACC change-CAUS-POT-IND
'돈은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예문들의 특징은 구어체에서도 '-ha'가 쓰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물론 '-ka'도 쓰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이 문장들이 일반적인 판단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들의 특징은 속담이나 격언 정도로 묶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발화되는 상황을 보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사실에 대한 전달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a)에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나, (b)에서 돈 때문에 실패나 성공한 사람에 대해 말할 때이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 인지되는 정보나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따로 있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ha'의 허용도가 아래의 총칭문, 개체층위 술어, 장면층위 술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a)와 같은 총칭문은 학생이란 신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거나 학생

비가 내리고 있다. (현상문)

b. それは 梅だ。
sore-wa ume-da
저것은 매화다. (판단문)

이를 바탕으로 Hlaing(2015: 54)은 미얀마어에서 판단문은 주로 '-ha', 현상문은 -ø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판단문 외에는 '-ha'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겉보기 구어체'인 설명문이나 서사문 등을 배제했을 때의 논의로 보인다.

의 속성을 판단하게 되어 발화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발화하는 것은 화자가 의도하는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위한 배경이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재미가 없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반면 (c)와 같은 장면 층위의 사건문은 인지된 정보를 즉시 발화하거나,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초점이 주어진 문장이므로, 화자의 의도가 직접 반영된 문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 c)가 각각 배경적 의도와 직접 의도에 대한 전형성을 가진다면, (b, b')의 개체 층위 술어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양 측면을 모두 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07)]

(14) (총칭문)

a. ကျောင်းသား-**ဟာ/ʔက** လေ့လာ-တယ်/လေ့လာ-တဲ့ လူ။

kyaun:tha:-**ha/ʔka.** lei.la-te / lei.la-te. lu

student-NOM study-IND / study-REL man

'학생은 공부한다 / 공부하는 사람이다.'

(개체 층위)

b. အဲဒီ လူ-**ဟာ/က** ဘာသာစကား လေ့လာ-တယ်/လေ့လာ-တဲ့ လူ။

e:di lu-**ha/ka** bathasa.ka: lei.la-te / lei.la-te. lu

that man-NOM language learn-IND / learn-REL man

'저 사람은 언어학 공부한다 / 공부하는 사람이다.

b'. အဲဒီ ကျောင်းသား-**ဟာ/က** လေ့လာ-နေ-တယ်။

107)`정승철(2017)에서 '-ha'를 화제 표지, '-ka'를 주격 표지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가, 본 연구에서 입장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ha'를 화제로 판단한 이유는, (a, b, c)의 총칭문, 개체층위 문장 등 정언문에서 '-ha'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c)의 장면층위 문장 등의 제언문에서 '-ka'가 항상 자연스럽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언제든 일반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연구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오류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반례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때 극복될 수 있다.

e:di kyaun:tha:-**ha/ka** lei.la-nei-te
that student-NOM learn-CONT-IND
'저 학생은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장면층위)

c. အဲဒီ ကျောင်းသား-ʔ**ဟာ/က** လေ့လာ-နေ-တယ်။

e:di kyaun:tha:-ʔ**ha/ka** lei.la-nei-te
that student-NOM learn-CONT-IND
'저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4.4.2. 필수적 -ha : 배경 주격 표지

지금까지 '-ha'는 '-ka'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과 교체될 때의 미묘한 어감 차이를 점검하였다. 이 미묘한 '-ha'의 어감에 대해, 앞에서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았다. 그러므로 '-ha'를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이 배경 정보 가설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관련 예문을 좀 더 확인해 보자.

(15) a. ချောစု-**ဟာ**/ʔʔ**က** အိမ်ထောင် ရှိ-တယ်။

Chaw:su.-**ha**/ʔʔ**ka** eingdaun shi.-te
PN-SUB marriage exist-IND
'철수는 결혼했어.' (그러니까 좋아하지마)

b. ချောစု-**ဟာ**/ʔʔ**က** ထမင်း စား-တယ်။

Chaw:su.-**ha**/ʔʔ**ka** hta.min: sa:-te
PN-SUB meal eat-IND
'철수는 밥먹었어.' (그렇지만 평소에는 잘 안 먹어)

c. အဖေ-**ဟာ/??**က သား နေ-မ-ကောင်း-ရင် စိတ်-မ-ကောင်း-ဘူး။

a.hpe-**ha**/ʔʔ**ka** tha: ne-ma.-kaun:-yin seit-ma.-kaun:-bu:
father-NOM child body-NEG-good-COND mind-NEG-good-NEG
'아빠는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니 건강해라)

위 (15)의 문장들은 단독으로 발화되면 '그러니까, 그러나' 등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내용을 함의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괄호에 표현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장들을 발화할 때는 반드시 '-ha'를 써야한다. 즉, 어떤 다른 소통적 의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ha'를 쓴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유사한 의미로 보이는 (16) 예문들을 대조해보면, 이 소통적 의도의 대비를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아래 (a)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은 '내가 의사'라는 정보가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b)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c)의 경우는 '누가 의사인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 예는 (a, b, c) 각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적 의도의 차이가 미얀마어의 '-ha/-ka'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16) a. ကျွန်တော်-**ဟာ/ø/*က** ဆရာဝန်-ပါ။

kyandaw-**ha/ø/*ka** hsa.yawun-pa
1P-NOM doctor-POL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꾀병 부리지 마세요)

b. ကျွန်တော်-***ဟာ/ø/က** ဆရာဝန်-ပါ။

kyandaw-***ha/ø/ka** hsa.yawun-pa
'저는 [의사입니다]FOC.' (직업을 물어볼 때)

c. ကျွန်တော်-***ဟာ/*ø/က** ဆရာဝန်-ပါ။

kyandaw-***ha/*ø/ka** hsa.yawun-pa
'[제가]FOC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위 (15, 16)은 발화되지 않은 문장 의미를 강하게 함의하는 데 반해, 아래 (17)은 조금 다른 예이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이유를 '아버지가 회사에 갔기 때문이다'라는 배경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17) a. ကလေး-**က** ငိုနေ-ပါ-တယ်။ အဖေ-**ဟာ/*က** အလုပ် သွား-ပါ-တယ်။

ka.lei:-ka. ngo-nei-pa-te a.phe-ha/*ka a.lout thwa:-pa-te

boy-NOM cry-CONT-POL-IND father-NOM work go-POL-IND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하러 갔어요.'

담화 분석에서 문장 정보들 간에 적용되는 전경-배경 개념을 적용하면, (17)의 두 문장은 각각 전경과 배경에 해당된다. 여기서 새롭게 주목할 점은, 미얀마어에서 전경-배경이 담화 분석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15, 16)처럼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물론 배경 정보를 문법적 형태로 표시하는 것만으론 그리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어만 하더라도 '-ㄴ데'처럼 배경 정보를 표시하는 표현들이 있다. 미얀마어가 특징적인 이유는 배경 표시를 술어 어미가 아니라 주격 표지 '-ha'를 통해 실현하기 때문이다.[108)]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미얀마어의 전경-배경 표시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한국어의 배경 표지는 필수적이 아니라 수의적이다. 예를 들어, '더 먹기 싫다'는 의도의 표현을 "배부른데"처럼 배경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 표지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불러"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미얀마어는 두 주격 표지 '-ka/-ha'의 대립을 통해 전경 또는 배경을 필수적으로 명세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얀마어 주격표지 '-ha'의 성격을 전경 '-ka' 주격과 대립되는 '필수적 배경문 표지'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이 전경과 배경 개념을 문장 층위보다 담화 층위에서 많이 활용해 왔다.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게슈

108) 문법 표지 '-ha'는 'thing' 의미의 어휘 요소 'ha'에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어휘 요소가 배경 의미의 문법 표지로 발달한 것은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도 관찰되었다. 한국어 '-것이다'나 일본어의 '-noda'를 배경 정보로 분석한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어느 정도 보편적 경향성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탈트 심리학의 형상-바탕(figure-ground) 개념을 담화의 전경-배경에 대응시켜 담화 층위에서 담화의 진행 원리와 구조를 설명한다.[109] Talmy(1978)는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의 관계를 주장(assertion)과 전제(presupposition)로 설명하고, 주절(main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ion)도 동일한 관계로 보았다. Wallace(1982)도 전경과 배경을 형상-바탕의 한 종류로 본 점에서 Talmy(1978)를 잇고 있으며, 또한 여러 유형론 연구들에서도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언어 보편적 구조임을 관찰해왔다(Dahl 1985, Hopper 1979, Longacre 1981).

4.4.3. 절대로 -ha가 불가능한 경우 : 초점의 존재

이 장의 첫 번째 절에서, '-ka'의 분포를 논의하면서 초점과 대조성의 '-ka^2'를 설명하였다. 초점과 대조성에 동시에 '-ka'가 쓰인다는 점은 대부분의 미얀마어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어떤 경우에 '-ka'가 필수적인지를 보자.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주어 초점 의문문

미얀마어의 의문문에서는 '-ha'를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답문에서도 이 표지를 쓸 수 없다. 한국어는 대부분의 문장에 '-는/-가'를 쓸 수 있고, 일본어는 일부 의문문에서 화제 표지 '-wa'만 써야 한다는 점에서 미얀마어와 큰 차이가 있다. 아래 예문은 미얀마어 설명의문문의 예이다.

(18) WH 의문문

a. 마이-**가/는** 어떻니?

---

109) 인지언어학에서는 이 형상-바탕 개념을 활용하여, 담화의 전경-배경뿐만 아니라, 화자가 세계를 언어로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는 방식도 설명한다.

a'. မရီ-**က**/***ဟာ** ဘယ်လို-လဲ။

MaYi-**ka./*ha** belo-le?
PN-NOM how-Q

b. 마이-**가/는** 무엇을 하고 있니?

b'. မရီ-**က**/***ဟာ** ဘာ လုပ်-နေ-လဲ။

MaYi-**ka./*ha** ba lout-nei-le?
PN-NOM what do-CONT-Q

(19) WH 의문문에 대한 대답문

a. 마이-**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b. မရီ-**က**/***ဟာ** စာသင်-နေ-ပါ-တယ်။

MaYi-**ka./*ha** sathin-nie-pa-te
PN-NOM study-CONT-POL-IND

다음 예문은 판정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20) Q: သီဟ-**က**/***ဟာ** ကျောင်းသားလား။

Thiha-**ka./*ha** kyaun:tha:-la?
PN-NOM student-Q.YN
'티하-가/는 학생이니?'

A: ဟုတ်ကဲ့၊ သီဟ-**က**/***ဟာ** ကျောင်းသား။

hout-ke. Thiha-**ka./*ha** kyaun:tha:
yes, PN-NOM student
'그래, 티하-가/는 학생이다.'

다음으로, 주어 논항 초점에서도 주격 표지 '-ka'만 쓸 수 있다. 아래 예에서 질문과 대답의 주격 초점에 모두 '-ka'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ka'는 WH 의문문의 WH 성분은 초점을 가진다는 일반적 판단에 따라, 대조성 또는 초점의 '-ka[2]'로 판단된다. 위의 예들과 달리, 이 현상은 한국어나 일본어의 주격과 초점 주격이 동일한 '-가' 또는 '-ga'로 표현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21) Q: ဘယ်သူ-**က** အမ်-ကို သွား-လဲ။

bethu-**ka.** ein-ko thwa:-le?
who-FOC home-to go-Q.WH
'누-**가** 집에 갔니?'

A: သီဟ-**က** အမ်-ကို သွား-တယ်။

ThiHa-**ka** ein-ko thwa-te.
PN-FOC home-to go-DECL
'티하-**가** 집-에 갔-어.'

방금 살펴본 의문문들의 초점이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이라면 다음은 소위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의 예이다. 아래 (22)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에 대응되는 '티하-가'는 확인초점이다. 이때에도 '-ka'가 쓰임을 알 수 있다.

(22) Q: သီဟ-နဲ့ စိန်စိန်၊ ဘယ်သူ-**က** အမ်-ကို သွား-လဲ။

ThiHa-ne. SeinSein, bethu-**ka.** ein-ko thwa-le?
PN-with PN who-FOC home-to go-Q.WH
'티하-와 쎄잉쎄잉, 누-**가** 집-에 갔-니?'

A: သီဟ-**က**/***ဟာ** အမ်-ကို သွား-တယ်။

ThiHa-**ka./*ha** ein-ko thwa-te
PN-FOC home-to go-IND
'티하-**가** 집-에 갔-어.'

제언문에 해당하는 질문-대답

다음으로, 제언문(thetic sentence)의 질문-대답 구조를 살펴보자. 바로 앞에서 다룬 의문문들은 일부 성분에 초점이 부여된 문장들이었다. 제언문은 초점이 없거나 문장 전체 초점으로 간주되므로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제언문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23Q) 'What happend?'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23A)와 같은 문장이라고 흔히들 간주

된다. 본 연구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110] 앞서 한-일 대조에서도 언급했듯이, 명명법보다는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여기서는 인출적 제언문과 지각적 제언문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기존 관행을 따라 제언문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서 다뤘다.

(23) Q: ဘာ ဖြစ်-တာ-လဲ။

ba phyit-ta-le?
what occur-NMZ-Q.WH
'무엇이 일어난 거니?' (무슨 일이니?)

A: သီဟ-**က** အမ်-ကို သွား-တယ်။[111]

ThiHa-**ka.** ein-ko thwa-te
PN-NOM home-to go-IND
'티하-가 집-에 갔-어.'

미얀마어의 제언문에 해당하는 의문문-대답문에서도 주격 표지는 '-ka'가 선택됨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도 유사하여, 제언문에 주격 표지 '-가'가 결합한다. 주의할 점으로, 위 (23)의 질문에서 주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미얀마어 동사 'phyit'(되다)가 격표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110) 본 연구에서는 지각 정보가 저장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문화되는 것을 지각적 제언문으로 본다. '비(가) 온다' 같은 문장에 해당한다. 반면, '철수가 1등을 했어'는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가 특정 장면화제를 통해 인출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장면화제는 '어제' 또는 '이 상황과 관련된 어떤 시공간에' 또는 '화자가 궁금해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장면' 등의 화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화제를 통해 인출된다는 점에서는 정언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만약 제언문으로 이름 붙이자면, 장면화제문 또는 인출적 제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11) 이 경우 대답은 구어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사화 구문이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 질문에서 '-ta' 명사화가 쓰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A: သီဟ-**က** အမ်-ကို သွား-တာ။

ThiHa-**ka.** ein-ko thwa-ta
PN-NOM home-to go-NMZ
'티하-가 집-에 간 거야'

그런데 이 제언 대답문의 경우에 예외가 가끔 발생해서, 항상 '-ka'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아래 문장은 대답문에 '-ka'가 자연스럽지만, '-ha'도 어떤 때는 가능하다고 한다.

(24) ("무슨 일이니?"에 대한 대답으로)

a. ဒီ အ[ကြံ]-**က**/ˀ**ဟာ** သိပ် ကောင်း-တယ်။

di a.kyan-**ka./ˀha** teit kaun:-te
this idea-NOM very good-IND
'이 아이디어-**가**/ˀ**는** 정말 좋아.'

b. သီဟ-**က**/ˀ**ဟာ** သိပ် ကောင်း-တဲ့ သူငယ်ချင်း-ပဲ။

Thiha-**ka/ˀha** teit kaun:-te. thungekhyin:-pe:
PN-NOM very good-REL friend-
'철수-**가**/ˀ**는** 정말 좋-은 친구야.'

한국어의 경우, 위 (a)의 문장의 상황은 어떤 아이디어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화자에게 누군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상황을 상정하였다. 그럴 때, 화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좋다'는 지각적 상황을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제문 또는 정언문이 아닌 장면화제문 또는 제언문이므로 '-가'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니?'의 대답으로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아'라고 했을 때, 청자는 '그래서?' 또는 '그런데?'라고 되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b)처럼 화자가 '철수는 정말 좋아'라고 대답한다면, 청자에게는 '이 녀석이 왜 혼잣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데?'라고 되묻게 될 것이다. 해당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국어에서 지각적 제언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출적 정언문을 썼을 때,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듯한 '일방적인' 어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여기서 기존 연구들이 언급한 미얀마어의 '-ha'의 어감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가 잡힌다.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ha'의 혼잣말, 일방적인 말투 등의 어감은 질문의 소통적 요구에 대답문이 부응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방금 보았듯이 한국어에서 제언문을 요구하는 상황에 정언문의 대답이 주어질 때, 청자는 이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뭔가 직접적으로 요구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된다. 소통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보는 배경적인 정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위 (24) 미얀마어 예문의 '-ha'에 대응시켜보면, 미얀마어의 '-ha'는 배경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경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질문-대답 쌍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끔 쓰이게 되면, 그 정보가 배경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의문문에 -ha가 되는 듯한 구문 : 의존 명사 -ha²

미얀마어의 '-ha'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음 형태소인 '-ha²'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 (25)의 '-ha'는 배경문 표지 '-ha'가 아니라, 한국어 '것'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이다.[112)]

(25) a. ဒီ **ဟာ**-ø သစ်ပင်။

di **ha**-ø thitping
this thing-ø tree
'이 것 나무야.'

b. အဲဒီ **ဟာ**-ø ရုတ်တရက် လှုပ်ရှား-တယ်။

e:di **ha**-ø youtta.yet hluotsha:-te
'저 것 갑자기 움직였어'

112) (a)의 ဒီ ဟာ /di ha/ 'this thing'은 ဒါ /da/로 축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အဲဒီ ဟာ /e:di ha/ 'that thing'도 အဲဒါ /e:da/로 축약된다.

그 외에도, Kato(2004: 12)에서 의문문 '-ha'가 가능하다고 예시한 아래 (26a)의 문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 (b)가 올바른 문장이다. [113] (b)의 /-te. ha/('ㄴ 것')는 발음될 때 축약되어 /-ta/로 들리는데, 이를 오해하여 /-ta-ha/('ㄴ 것-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장 유형은 꽤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 듯하다.

(26) a. *ဆင်ကန်းစင်-ဆို-**တာ-ဟာ** ဘာ-လဲ? [114]

*hsinkan:sin-hso-**ta-ha** ba-le?
PN-say-NMZ-NOM what-Q.wh
'신칸센이란 것은 무엇이니?'

b. ဆင်ကန်းစင်-ဆို-**တဲ့ ဟာ** ဘာ-လဲ?

hsinkan:sin-hso-**te. ha** ba-le?
PN-say-REL thing-ø what-Q.wh
'신칸센이란 것-ø 무엇이니?'

4.4.4. 주어 구별 기능 : *-ka~ -ka / *-ha~ -ha

주절과 종속절 주어 간의 구별

Sawada(1995a: 180-183)는 아래 (27)과 같은 예를 들어, '-ka'의 주어 구별(disambiguation) 기능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로 복문에서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를 구분하기 위해 주절 주어에 '-ka'를 쓴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처럼 아래 (32a)과 같이 주절과 종속절에서 동일한 표지가 동시에 쓰일 수 없다. 추가적인 제약은 '주절의 주어에 -ø이 쓰일 수 없다'는 점

113) 원어민 화자가 예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었다.

114) 신칸센은 'ရင်ကန်ဆန်'이 올바른 표기법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Kato(2004: 12)의 예문 표기를 미얀마 문자로 바꾸어 가져왔다.

이다.[115)]

(27) ငါ-**က** ညည်း ပင်ပန်း-မှာ စိုး-လို့ ပြော-တာ-ပါ။
nga-**ka**. [nyin:-**ø** pinban:-hma so:-lo.] pyaw:-ta-pa (Ohno 1983: 146)
1P-NOM you tired-NMZ.FUT anxious-because speak-NMZ-POL
'나는 네가 피곤할 것을 걱정해서 말한 거예요.'

(28) a. *주절 주어-ka … 종속절 주어-ka
b. *주절 주어-ø … 종속절 주어-ka

그러나 이 현상은 '주어 구별' 설명도 틀리진 않지만, '-ka'가 전경 주격 표지이기 때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Talmy 1978)에 따르면, 대개 주절은 전경 정보이고 종속절은 배경 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27)의 예문에서 전경 표지 '-ka'는 주절에만 쓰일 수 있고, 종속절에는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주어 구별' 주장의 문제점은 '겉보기 구어체'라고 하여 '-ha'를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ha'와 '-ka'의 대립적 분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설명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다 가능하다.[116)]

(29) a. 주절 주어-ha … 종속절 주어- ka/ø
b. 주절 주어-ka … 종속절 주어-ø
c. 주절 주어-ka … 종속절 주어-ha/ø (내포문이 A=B구문인 경우만)

(29)에 해당하는 예를 아래 (30)에서 보면, (a) 주절 주어에 '-ha'가 가능하고, 이때 종속절에는 '-ha'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절 주어에 배경 주

115) 문어체에서는 조사 생략이 불가능하다.

116) (29a)에서 주절 주격에 배경 주격 '-ha'가 가능한 점은 흥미로워 보인다. 향후 다른 연구에서 면밀히 다뤄야 하겠지만, 주절이라고 해서 항상 전경 정보는 아닐 것이라는 가설로 접근해볼 수 있을 듯하다.

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주절이 전경 정보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30b)처럼 상위 주어가 '-ka'인 경우 종속절에서는 -ø만 가능하다. 독특한 점으로, (31)처럼 내포문이 명사 술어문이거나 형용사 술어문일 때는 내포문에도 '-ha'가 가능하다. 이때 '-ha'를 배경 정보 표시로 볼지 '주어 구분'으로 볼지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117)]

(30) a. ဘုရင်-**ဟာ** လက်အောက်ခံ-တွေ-***ဟာ/က/ø** ကန့်ကွက်-တာ-ကို မကြိုက်-ဘူး။

bu.yin-**ha** [letautkhan-twei-***ha/ka/ø** kan.kwet-ta]-ko ma.kyait-bu:
king-NOM subordinate-PL-NOM oppose-NMZ-ACC NEG-like-NEG
'왕은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을 싫어했다.'

b. ဘုရင်-**က** လက်အောက်ခံ-တွေ-***ဟာ/*က/ø** ကန့်ကွက်-တာ-ကို မကြိုက်-ဘူး။

bu.yin-**ka.** [letautkhan-twei-***ha/*ka/ø** kan.kwet-ta]-ko ma.kyait-bu:
king-NOM subordinate-PL-NOM oppose-NMZ-ACC NEG-like-NEG
'왕은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을 싫어했다.'

(31) a. ချောစု-ဟာ ညီမလေး-***ဟာ/က/ø** ပျင်းရိ-တာ-ကို သဘော-မ-ကျ-ဘူး။

Chawsu-**ha** [nima.lei:-***ha/ka/ø** pyinyi.-ta]-ko tha.baw-ma.-kya.-bu:
PN-NOM brother-NOM lazy-NMZ-ACC mind-NEG-match-NEG
'쳐수는 [동생이 게으른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

b. ချောစု-က ညီမလေး-***ဟာ/*က/ø** ပျင်းရိ-တာ-ကို သဘော-မ-ကျ-ဘူး။

Chawsu-**ka.** [nima.lei:-***ha/*ka/ø** pyinyi.-ta]-ko tha.baw-ma.-kya.-bu:
PN-NOM brother-NOM lazy-NMZ-ACC mind-NEG-match-NEG
'쳐수는 [동생이 게으른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

---

117) (32b)의 예문에서 주격 중출 시 '-ka'가 초점이라고 설명한 원어민 화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면, (31b)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쳐수가 …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때 주격 표지는 초점에 해당하는 '-ka²'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제 구조를 'X가 ...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철수]}' 정도로 상정할 수 있고, 전경 정보는 '철수'가 된다. 만약 전경 정보 외의 모든 정보를 배경 정보라고 가정하면, '동생이 게으르다'도 배경 정보이기 때문에, '-ha'가 쓰인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중 주격 간의 구별

참고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의 '이중 주어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ha/-ka' 간에 중복을 피한다. 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32) a. ဆင်-**ဟာ/က** နှာခေါင်း-**ø** ရှည်-တယ်။
hsin-**ha/ka.** hnakhaun:-**ø** shi-te
elephant-NOM nose-NOM long-IND
'코끼리는 코가 길다.'

a'. နှာခေါင်း-**က** ရှည်-တယ်။ ("코끼리는 무엇이 길어요?"에 대한 대답)
hnakhaun:-**ka.** shi-te
nose-NOM.FOC long-IND
'코가 길어요.'

b. ဆင်-**ဟာ** ခန္ဓာကိုယ်-**က/ø** ကြီး-တယ်။ [118]
hsin-**ha** khandako-**ka./ø** kyi:-te
elephant-NOM body-NOM big-IND
'코끼리는 몸이 크다.'

b'. ဆင်-**က** ခန္ဓာကိုယ်-**ဟာ/ø** ကြီး-တယ်။ [119]
hsin-**ka.** khandako-**ha/ø** kyi:-te
elephant-NOM body-NOM big-IND
'코끼리는 몸이 크다.'

이 예문들에서, 주어 구별 기능은 앞의 (30), (31)에서 본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 (32)에서 보면, (a)처럼 하위 주어에 -ø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 (b)처럼 '-ka'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a)의 -ø이 주격임은 대답문의

118) 여기서 하위 주격에 영형태가 아닌 '-ka'가 쓰이면 초점이라는 원어민 화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 '-ka'가 초점으로 해석되는 것이 무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 항상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는 앞으로 다양한 예문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언어 조사에서 원어민 화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사자와 다를 수 있고, 예문을 읽는 상황에서 떠올리는 문맥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 하긴 힘들다.

119) 여기서도 '코끼리'에 초점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a)와 (b)에서 하위 주격 실현의 차이는 어휘적으로 구문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4.5. 소결

이 장에서는 기존의 미얀마어 연구에서 놓쳤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검토하고, 미얀마어의 '-ha'와 '-ka'에 대해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였다. 비록 미얀마어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만을 수행한 결과라 할지라도, 이 두 주격 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의 시각에 대해 충분한 반례를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ha'를 화제 표지로 보는 연구에 대해, '-ha'와 '-ka'가 둘 다 주격 표지임을 보였다. 또한 '-ha'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겉보기 구어체'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ha'는 배경문 주격 표지임을 주장하였다.

미얀마어 '-ha'는 단순한 문답식의 조사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문-대답쌍에서는 전경을 표현하는 '-ka' 주격이 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ha' 주격이 쓰였을 때 혼잣말의 느낌, 또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를 배경문 표지이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주격 표지 '-ha'와 '-ka'는 각각 배경과 전경을 대립적으로 담당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한국어에서도 제언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언문을 사용하면 유사한 효과가 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상대가 요구하는 소통적 요구 또는 초점에 대답

문의 정보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미얀마어 '-ha'의 경우 초점이 없는 배경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방적인 혼잣말의 어감을 띠는 것이다.

미얀마어에서 '-ha' 배경문이 초점이 없는 문장이란 점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문문에서는 이 '-ha'를 절대 쓸 수 없고, '-ka'만 써야 한다. 의문문은 의사 소통을 위해 초점을 부여해서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문문에 '-ha'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초점이 있는 문장에 '-ha'를 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ha'가 쓰인 문장은 초점이 부여되지 않은 문장이 된다.

지금까지 정보구조 논의에서 단순히 'A=B이다'라는 문장을 대개 주어짐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구정보-신정보 또는 화제-초점 구조로 인식한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어 '-ha'는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배경 개념과 화제 개념을 혼동하거나, 전경 개념과 초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례를 제공한다. '-ha'는 주어짐성이나 화제 여부와 상관없이 배경 정보에 항상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점의 필수 여부는 정보구조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ha'는 초점이 필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재료이다.

한국어도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연결 어미 '-ㄴ데' 등이 있다. 두 언어의 가장 큰 차이라면, 한국어의 배경 표지는 수의적인데 반해, 미얀마어의 배경 표지 '-ha'는 배경 정보에 필수적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어 '-ㄴ데'는 두 절을 연결하여 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비해, 미얀마어 '-ha'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연속해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정 화제에 의해 활성화된 배경 정보를 연속으로 인출해내는 설명문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ha'는 초

점이 부여되지 않은 '화제→{전경, [배경], …}'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화제 구조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한국어와의 대조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얀마어 초점 '-ka^2'가 대조성까지 담당한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경우 초점을 나타내는 '-가'와 대조성을 나타내는 '-는'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얀마어에서 초점과 대조성이 동일한 '-ka^2' 표지로 나타난다는 점은 초점과 대조성 간에 의미적인 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5 장 정보구조의 보편성

5.1. 개관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120]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구조의 이면[121]에서 형성되는 구조로서 연구자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정보구조 연구가 화제(topic) 또는 초점(focus)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구조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애를 썼음에도, 아직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제 구조가 두드러지지 않는 영어 등의 술어 중심 언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초점 위주로 논의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초점 위주의 논의는 주어짐성을 중시하므로, 대하여성을 핵심으로 하는 화제 구조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122] 둘째, 화제 구조가 두드러지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 현상이 주목받아 왔지만, 개별 언어의 특수성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셋째, 언어의

---

120) 본 연구는 정보구조의 본질을 화제 구조로 보고 있다. 초점은 화제 구조에 소통을 위해 부가적으로 형성되는 기제로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쓰되, 화제 중심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화제 구조'로 칭할 것이다.

121) 정보구조는 심리 공간(mental space)에서 의미 단위들이 조직화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심리 공간은 인지언어학에서 정의하는 의미 처리 층위를 말한다. 심리공간은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이라고도 한다.

122) Chomsky(1965), Jackendoff(1972) 등의 초점-전제 구조, Rooth(1985)의 초점과 양화의 관계, Reinhart(1981), Lambrecht(1994), Gundel & Fretheim(2004) 등의 관계적 주어짐성 등은 초점을 중심에 둔 논의이다. 프라하 학파에서도 Hajičová(1983), Sgall et al.(1986)처럼 초점 논의를 부각시킨 경우가 많다. Partee(1991), Krifka(1991), Steedman(2000), Büring(2003) 등에서 화제 구조를 초점 구조의 상위 구조로 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구조를 통사, 의미, 화용 층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접근법에서는, 이 층위들을 통합하는 보편적 정보구조의 본질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심리적 구조와 구문의 대응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 구조로서의 정보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어 중심 관점이 여전히 강하여 화제 구조를 이론의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미얀마어, 일본어의 화제 구문 실현의 특수성을 설명해낼 수 있도록, 정보구조의 보편성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5.2. 화제 구조의 보편성

5.2.1.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 : 대하여성과 장면화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주장,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와 "모든 문장은 정언문(명시적 화제문)과 제언문(암묵적 화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에서 출발한다. 앞서 제2.2절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이 두 주장은 본 연구만의 주장이 아니라 언어학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주장되어 왔다. 먼저 "모든 문장은 화제가 있다"는 화제의 필수성을 검토한다.

제2.2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입장은 독일계 프랑스 문헌학자인 Weil(1844)에서 시작되었다.[123] 그는 문장이 화자-청자의 지식이 만나는 출발점(a point of departure)과 진술(the state-

[123] 하지만, 근대 언어학 이전까지의 언어관도 화제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서양의 전통 논리학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term logic)에서도 명제를 두 개의 단위(term), 즉 'subject'와 'predicate'로 나누고 있다. 이때의 'subject'는 현대의 주어 개념보다 화제 개념에 가깝다(Sommers & Englebretsen 2000). Strawson(1964)이 화제를 명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전통 논리학의 'subject' 개념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ment)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나뉘고, 이 두 부분은 거의 모든 발화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 또한,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젊은이 문법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Paul(1880)도 심리적 주어와 심리적 술어의 구분을 통해 표면적 구조 이전에 존재하는 화제를 언급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정보구조를 본격적으로 다룬 프라그 학파의 Mathesius(1928)가 테마-레마(theme-rheme) 구조를 제시하고 테마는 발화의 시작점이라고 하였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Strawson(1964)이 그의 유명한 문장 "The King of France is bald"를 통해 문장이 항상 화제에 대하여 판단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Gundel(1974)과 Erteschik-Shir(2007) 등은 화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문장의 '특정 시공간'(the particular situation - time and place) 화제 또는 '장면화제'(stage topic)"를 제안하였다. '장면화제'는 암묵적 화제를 표현하기에 가장 직관적이면서 본질을 잘 드러내는 용어이므로, 본 연구의 전반에 걸쳐 활용할 것이다.

참고로 생성문법에서도 초기에 Wierzbicka(1975)처럼 화제를 필수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124] 한편, 한국어학에서도 김영희(1978)에서 심리적 주어와 화용적 주제를 언급하였고, 최규수(1999)에서 모든 문장의 문두에 담화 화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임홍빈(2007)에서 화용적 주제, 문장 주제, 성분 주제의 중층적 주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장면화제 개념보다는 대개 통사 층위와 별개인 담화 화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화제가 모든 문장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

[124] Wierzbicka(1975)는 초기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화제가 모든 문장의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John kissed Mary"는 "John, he kissed Mary"와 같은 심층구조가 표층의 문장구조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Chomsky(1965: 221)가 "Topic-Comment is the basic grammatical relation of surface structure corresponding (roughly) to the fundamental Subject-Predicate relation of deep structure"라고 하여 화제 구조를 표면구조로 본 것과 대조된다.

화제가 모든 문장에 필수적이며 문장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은 '대하여성(aboutness)'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초점보다 화제를 중시하는 연구들은 이 대하여성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하여성이란 용어는 Fairthorne(1969)이 문헌정보학에서 사용한 후, Hutchins(1975)에서 확산되어 주어짐성(givenness)과 함께 현재 정보구조 논의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

대하여성과 주어짐성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자면, 대하여성은 화제-평언(topic-comment)[125] 구조의 평언이 화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논의의 중심을 화제에 두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도 화제를 정보구조의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하여성이라는 표현은 화제-평언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의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 모호성을 다음 제5.3절에서 명확한 화제 정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반면에 주어짐성은 문장의 정보를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로 나누는 입장과 연결된다. 정보구조 논의를 구정보-신정보, 전제-초점, 한정성, 특정성 등의 논의로 연결하는 연구들은 대개 주어짐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어짐성이란 용어는 Halliday(1967)에서 정보구조란 용어와 함께 '주어진 정보/새로운 정보'(given information/new information) 개념을 활용하였고, Chafe(1974)에서 'givenness'라고 표현하면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어를 중심으로 초점이 두드러지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점을 위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초점은 신정보의 성격을 갖는다는 관찰로 인해 주어짐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초점 중심의 논의는 제2장에서 다루었듯이 몇 가지 문제점을

125) '화제-평언'의 번역어를 사용한 이유는 각주 21) 참조

갖고 있다. 이를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 '화제는 화자-청자가 공유하는 정보'라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화제 중심의 논의에도 자주 나타난다.[126] 둘째, 초점은 필수적이고 화제는 수의적이라는 생각이다. Reinhart(1981), Lambrecht(1994), Gundel et al.(1993)의 관계적 주어짐성과 이를 한국어에 확장시킨 전영철(2009), 임동훈(2012) 등이 이러한 입장이다. 셋째, 앞의 둘보다는 간접적이지만 담화 화제를 문장구조와 별도 층위로 취급하는 입장이다. Reinhart(1981), Roberts(1998) 등에서 담화 화제를 별도로 취급하는 경향의 바탕에는, 문장에서 신정보인 초점을 뺀 나머지 구정보를 화제라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 화제 개념은 담화 화제와는 별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어짐성 중심 논의의 문제점은 '화제는 정보를 조직하는 출발점'이란 정보구조의 화제 중심성을 간과하게 한다. 이에 대해, 제5.3절 화제 중심 정보구조의 정의를 통해 간접적이지만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로, 화제 논의에서 주어짐성의 근간인 '청자와의 정보 공유 여부'는 화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127] 언어가 의사소통과 사고의 도구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질 때, 의사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

---

126) Weil(1844), 프라그 학파의 CD, Halliday(1967) 이후의 givenness 논의들

127) 화제가 청자와 공유된 정보라는 생각은 대화 상황에서 대부분 공유된 정보를 화제로 삼는 경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드물지만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고의적으로 청자가 처음 듣는 개념이나 개체를 화제로 삼을 수 있다. 이때 화제는 청자에게 신정보이지만,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심리적 출발점을 만들도록 강제한다. 다시 말하면, 화제는 청자와 공유된 정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려는 정보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출발점이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언어 외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의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은 이러한 기제를 잘 설명해준다. 마음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 상태(mental states)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또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여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 철학, 인지과학의 주요 연구 영역이다. 발달심리학의 Baron-Cohen, Leslie, and Frith(1985)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급되는 사고의 도구라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자 중심의 설명에 치우친 무게 중심을 화자 중심의 설명 쪽으로 옮겨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화자 중심에서 설명하자면, 화제가 화자의 심리적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자를 전제로 하는 주어짐성보다 화자 심리 층위의 정보 간 관계인 대하여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대하여성 논의는 정언문/제언문 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5.2.2. 정언문과 제언문

5.2.2.1. 정언문과 제언문 논의 검토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 “모든 문장은 정언문과 제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논의이다.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은 대개 화제가 있는 문장이고, 제언문(thetic sentence)은 화제가 없는 문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제2.2.3절에서, 정언문과 제언문의 구분은 철학자인 Brentano(1874)와 그의 제자 Marty(1918)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았다. 이들은 주어-술어의 표면적 문장구조가 심층적으로는 정언적 판단(categorical judgement)과 제언적 판단(thetic judgement)의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였다. 정언적 판단은 이중 판단으로서 “John is intelligent”와 같은 문장인데, ‘John’이란 개체를 부각시킨 후에 ‘is intelligent’라는 속성을 부가한다는 것이다. 제언적 판단은 단순 판단으로서 “It is raining”과 같이 개체를 부각시키지 않고 비가 오는 상황을 단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Kuroda(1972, 1992, 2005)는 Brentano의 정언문/제언문 구분을 재조명하였다. 추정컨대, 일본어학 전통에서 Sakuma(1940, 1955)와 Mikami(1960)가 각각 주장한 품평문/이야기문 구분과 제술구조/무제화 구분이 중간 연결

고리를 한 듯하다. Kuroda(1972)는 일본어 '-wa/-ga'가 구정보/신정보에 해당하며 각각을 정언문/제언문 표지라고 하였다. 그의 예문에 대응되는 아래 한국어 문장 (1)을 예로 들면, (a)의 '-는'과 (b)의 '-가'가 각각 정언문/제언문 표지라는 것이다.

(1) a. 개가 달리고 있다. (제언문)
b. 개는 달리고 있다. (정언문)

정언문-제언문 구분을 정보구조 연구로 확장한 것은 Lambrecht(1994)에서이다. 그는 아래 초점 구조의 세 유형 중 (2c) 문장초점 구조만 제언문이라고 하였다. 비이분적(non-binary) 단순 판단이라는 측면에서다.

(2) a. My car/It [$_{foc}$ broke **DOWN**]. 술어 초점 구조 (topic-comment)
b. [$_{foc}$ My **CAR**] broke down. 논항 초점 구조 (focus-presupposition)
c. [$_{foc}$ My **CAR** broke down]. 문장 초점 구조 (sentence focus)

이 유형 분류는 초점 구조 중심이란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화제 구문 유형으로 바꾸어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제6장의 화제 구문 유형 분류는 여기서 시작하여 확장할 것이다.

한국어학에서도 임홍빈(1972)의 정언문-비정언문, 신창순(1975)의 명제문-기술문 등이 동일한 관찰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구조와 직접 관련된 논의는 아니었다. 최근 들어 전영철(2013)에서 정언문-제언문과 정보구조와의 관계를 관계적 주어짐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영철(2013)은 정언문을 화제-초점 구조로, 제언문을 문장 초점 구조로 보고 아래 (3)과 같은 주격 성분 초점 문장을 정언문으로 보았는데, Lambrecht(1994)의 예문 (2)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화제 표지 '는'이 있는 문장을 정언문으로, 주격 표지 '가'를 제언문으로 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Q: 누가 왔니?
A: **철수-가** 왔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언문-제언문 논의는 화제문이 갖는 이중 판단의 성격과 비화제문의 단일 판단의 성격을 잘 포착해내고 있다. 또한 Lambrecht(1994) 이후 정언문/제언문 논의는 정보구조와의 연결 지점을 훌륭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 다만, 이 정언문-제언문 논의들은, 5.2.1절에서 비판했듯이, 문장 내부의 주어짐성 위주, 즉 초점 위주의 시각으로 인해 장면화제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5.2.2.2. 정언문과 제언문의 재정의

그러면 이제 두 논의를 결합할 수 있다. 화제-평언 구조 논의와 정언문-제언문 구분 논의를 결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은 Gundel(1974)의 특정 시공간 화제 또는 Erteschik-Shir(1997)의 장면화제이다. 장면 화제 개념을 정언문-제언문 구분에 결합하면, 논리적으로 제언문은 화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장면화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Strawson(1964)의 주장처럼 화제는 명제의 판단 기준인데, 제언문도 분명히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인 화제가 암묵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암묵적인 화제가 장면화제이다.

따라서, 다소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다. 장면화제를 'STAGE'(이하 STG)로 표현하였고, 정보 조직화의 출발점이라는 화제의 정의를 반영하여 화제와 평언의 경계를 '→'로 표시하였다.

(4) 정언문과 제언문의 화제 구조[128)]

a. 정언문은 명시적 화제문 또는 일반 화제문이다.

Topic → Comment[129)]

b. 제언문은 장면화제문이다. (암묵적 장면화제가 존재)

(STAGE) → Comment

5.2.3. 담화 구조 : 정언문과 장면화제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정언문은 장면 화제가 없는 것일까? 장면 화제라는 것이 장면, 즉 특정 시공간 또는 배경 지식을 포함한 발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담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체 화제는 그 바탕에 장면 화제가 존재할 수 있다. 제2.2.2절에서 언급된 Daneš(1974)의 테마 진행(thematic progression) 중 상위화제(hypertheme)에서 하위화제로의 진행을 참고할 만하다. 단,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화제의 진행에는 개체 화제만이 아니라 장면화제도 포함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화제의 진행 방향은 하위 화제에게 상위 화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아래 예문 (5)의 단순한 담화에서 (A1)의 첫 문장은 전형적인 제언문으로 (B1)처럼 장면 화제가 존재한다.[130)]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사람

128) 화제 요소 TOP이 정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실현되며, 제언문에서는 암묵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 )'로 표상하였다. 그리고 화제가 정보의 출발점이란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주는 부호 '→'로 '화제→서술'의 경계를 표상하였다. 뒤의 제5.3.2절에서 윤곽화(profiling)의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화제→평언' 문장 구조는 화제와 서술이 각각 윤곽화되어 구문으로 실현된 것이다.

129) 뒤의 제5.3.2절에서는 화제의 윤곽화 시점을 반영하여, 윤곽화 전의 개념적 표상은 TOP→{BASE}로, 윤곽화는 [TOP]→{[PRED]}로, 윤곽화 후의 문장 구조는 (Top)→Pred로 표상한다.

130) 여기서 장면 화제는 단순히 '옛날 어느 마을'이라는 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난 상황' 또는 그 이야기의 추상적 지시체를 말

들'이라는 명시적인 화제가 있는 정언문이다. 여기서 명시적인 화제가 새로 부여되더라도,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난 상황'이라는 장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B2)처럼 장면화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제의 진행을 '→'로 표현하였다.

(5) A1.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B1. (STG) → 호랑이가 나타났다.
B2. (STG) → 사람들 → 두려움에 떨었다.[131)]

그렇다면 화제의 진행은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두 문장의 장면화제의 성격은 (B1)과 (B2)에서 보듯이 구조적 차이가 있다. (B1)에서의 장면화제는 문장의 화제이고, (B2)에서는 동일한 장면화제이지만 상위화제로 기능한다. 물론 이 장면화제는 담화 전체를 아우르는 화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기존 담화 구조 연구에서는 담화 화제와 문장 화제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둘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중층적 화제 구조에서 구문이 선택될 때, 구문이 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생

한다. 예를 들어 '1987년 6월에 전국 곳곳에서…'라는 이야기의 장면화제는 그 시공간의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장면화제는 6월 항쟁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화제는 응집성을 가진 관련 정보들의 심리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31) 본문의 설명은 화자 측의 심리 표상이다. 한편 청자 측에서는 화자가 발화하는 정보를 통해 화자의 심리 표상을 복원하여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자 측 심리 표상에서는 장면화제는 최초의 정보 '호랑이가 나타났다'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로 증가되는 정보들을 통합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청자 측에서 누적되어 가는 정보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기호를 써서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괄호 표기는 제5.3절에서 정의하게 될 기반 정보를 의미한다. 기반 정보는 화제와 관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배경 정보를 의미한다.

(STG) → {호랑이가 나타났다}
(STG) → {호랑이가 나타났다 +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긴다. 따라서 문장 화제는 화제 구문이 담당하는 정보 범위 내의 최상위 화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언문이라고 하더라도, 화제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미얀마어, 일본어 같은 언어들은 대개 담화 진행에서 앞 문장의 화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화제가 쉽게 생략된다. 아래 (6)의 (A2)에서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화제 '사람들은'이 유지되고 있어 굳이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연속된 화제가 생략되는 경우는 (B3)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6) A2.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혼자서는 마을 밖을 다닐 수 없었다.

B3. (STG) → (사람들) → 혼자서는 다닐 수 없다

이렇게 화제의 진행은 상위 화제에서 하위 화제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반대 방향의 진행도 이루어진다. 아래의 (B4)는 (B2), (B3)에서 하위 화제 '사람들'로 내려갔던 화제가 다시 장면화제로 복귀하는 진행을 보여준다.

(7) A3.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혼자서는 마을 밖을 다닐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다.

B4. (STG) → 한 사내가 나타났다.

5.2.4.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

그간 많이 언급되어 왔던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 논의도 장면화제와 결부시켜 재해석할 수 있다. 이 개념은 Carlson(1977)에서 시작되어 Kratzer(1989, 1995)에서 잘 정리되었고, 이정민(1996), 박철우(2005), 전영철(2012) 등에서 한국어

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 논의에 장면화제를 도입하여, 장면화제가 있는 경우 장면층위 술어가 되고, 장면화제가 없는 경우 개체층위 술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는 술어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개체층위와 장면층위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언문에는 상태 술어가 많이 사용되고 제언문에는 사건 술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경향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바로 앞에서 다룬 담화 구조 (7)의 문장들은 하나의 장면화제 아래 묶여 있는 구조이므로 모두 장면층위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는', '-가'는 장면층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8)의 문장들은 '-는', '-가'가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 모두 개체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또는 장면에서의 속성 또는 사건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장면층위 술어는 특정 장면에서의 술어이다. 특정 장면에서 '-는' 정언문과 '-가' 제언문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언문 장면층위 술어와 제언문 장면층위 술어가 모두 가능하다.

(8) a. 정언문 장면층위 술어 1

(STG) → TOP → CMT

(STG) → 사람들은 → 두려워했다.

(STG) → 나는 → 두렵다(지금 무엇인가가).

(STG) → 철수는 → 영리하게 일을 처리했다.

(STG) → 철수는 → 영리했다(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b. 제언문 장면층위 술어

(STG) → CMT

(STG) → 호랑이가 나타났다.

(STG) →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STG) → 철수가 영리했다(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 문장들에서 술어는 대부분 전형적인 상태 술어들이지만 개체층위 술어라고 하기 힘들다. 특정 장면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장면층위 술어라고 해야 한다. 이 예문들에서 장면층위 술어는 정언문과 제언문이 모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개체층위와 장면층위 구분은 술어의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장면화제 여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태 술어가 개체층위 술어로 쓰이는 경향이 크다고 해서 둘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언문 장면층위 술어를 담화 구조에서 보면, 개체 화제가 상위에 위치하고 장면화제가 하위에 위치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Kratzer(1995)와 전영철(2012) 등에서 '상황 논항(situation variable)'으로 설명한 것은 이러한 장면화제의 성격을 형식 의미론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132] 장면화제가 하위에 오는 경우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9) A. 철수는 고등학생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철수는 이번에도 100점을 받았다.

B1. 철수 → 고등학생이다.

B2. (철수) → 공부를 열심히 한다.

B3. 철수는 → (STG) → 이번에도 100점을 받았다.

(10) 정언문 장면층위 술어 2

TOP → (STG) → CMT

[132] 전영철(2012)에 따르면, 장면층위 술어에만 상황 변항을 도입하는 견해(Kratzer 1995)가 있고, 개체층위와 장면층위 술어 둘 다에 상황 변항을 도입하는 견해(Chierchia 1995, Herburger 2000, Parsons 1990)가 있다. 후자는 신사건 의미론(Neodavidsonian semantics)식 분석으로 불린다고 한다.

위 (A)의 담화 화제는 '철수'이고 모든 문장에서 연속되고 있다. 그런데(B1)과 (B2)는 '철수'라는 개체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 개체층위 술어인 반면, (B3)는 '철수'의 특정 장면에서의 사건을 기술하는 장면층위 술어이다. 이때 장면화제는 '이번 시험과 관련한 상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장면화제는 전체 담화에 걸친 화제인 '철수'의 하위 화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0)의 일반적 구조로 표상할 수 있고, 아래 (11)의 담화 구조와 잘 대비된다.

(11) A. 요즘은 시험 문제가 쉽다. 철수는/가 이번에도 100점을 받았다.
B4. (STG) → 철수 → 이번에도 100점을 받았다.
B4'. (STG) → 철수가 이번에도 100점을 받았다.

위 (10)과 (11)에서 (B3)과 (B4)는 동일한 문장 구조이지만, 장면화제의 위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4)와 (B4')의 차이는 화제 진행의 차이이다. 전자는 화제가 장면화제에서 하위 화제 '철수'로 진행된 것이고, 후자는 장면화제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면층위 술어와 달리, 개체층위 술어는 정언문만 가능하다. 제언문은 장면화제를 항상 가지기 때문이다. 장면화제가 없는 개체층위 술어는 아래와 같다. 특정 장면에 결부된 것이 아니므로 화제의 일반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12) (정언문) 개체층위 술어
a. 철수는 → 영리하다.
b. 개는 → 영리하다.
c. 공룡은 → 멸종했다.

위 (a)의 화제는 개체 명사구이고, (b)와 (c)의 화제는 총칭 명사구이다.

명사구의 부류와 상관없이 화제의 일반적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즉 장면화제가 없기 때문에 개체층위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c)에서 술어 자체만으로는 사건을 나타내는 장면층위 술어처럼 보이지만, 개체층위 성격이라는 점이다. 이 문장은 “공룡은 소행성의 충돌 이후에 갑자기 멸종했다”라는 사건 기술의 장면층위 성격과 잘 대비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언문-제언문 구분과 화제의 진행을 함께 고려하면, 화제 구조를 아래 (13)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제 진행의 중층성을 반영하면, 이 화제-평언 구조를 아래 (14) 정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 개체층위-장면층위를 반영한 정언문-제언문의 화제 구조

a. 정언문 장면층위 1	(STG) → TOP → CMT
b. 정언문 장면층위 2	TOP → (STG) → CMT
c. 제언문 장면층위	(STG) → CMT
d. 정언문 개체층위	TOP → CMT

(14) 화제 구조 일반화 (임시) TOP→TOP→ CMT

5.3. 정보구조의 본질

앞 절에서 화제-평언 논의와 정언문-제언문 논의를 장면화제를 통해 결합하여 ‘TOP→TOP→CMT’ 형식의 구조를 임시로 정의해보았다. 여기까지는 장면화제 도입을 통해 관련 개념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즉 장면화제를 재해석하고 기존 논의에 접목시킴으로써, 화제-평언, 정언문-제언문, 개체층위-장면층위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설명 방식은 편의를 위해 최대한 단순히 형

식화한 것이라서 엄밀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문장 구조를 표상하는 것인지, 정보구조를 표상하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이 절에서는 문장 구조가 아닌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몇 가지 이론을 함께 엮어서, 정보구조의 본질을 반영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놓을 것이다.

5.3.1. 초점의 의미와 배경의 활성화 범위

5.3.1.1. 대안 의미론과 구조 의미론[133)]

초점 구조는 화제를 중심으로 인출되는 정보들이 조직화되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 즉 초점 현상은 인출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그 정보들이 비교, 대조될 때의 동일성, 유일성, 차별성, 부각성 등을 반영하는 현상[134)] 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점 현상의 정보 조직화에 대해서는 Vallduví & Zacharski(1994)의 대안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과 Rooth(1985, 1996), Krifka(1991), Partee(1991) 등의 구조 의미론(structured meaning semantics)이 의미론적 양화 현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Vallduví & Vilkuna(1998)의 ‘대비’(Kontrast)와 임동훈(2012)의 ‘세로초점’은 이러한 의미론적 설명을 정보구조에 접목하여 초점의 계열 통합 성격을 보였다.

---

133) 이 부분은 임동훈(2012)을 주로 참고하였다. 임동훈(2012)에서는 Gundel(1999)의 대조 초점과 Vallduví & Vilkuna(1998)의 Kontrast (의미적, 양화적 초점)를 기반으로 초점을 설명하고 있다. Vallduví & Vilkuna(1998)는 정보구조 초점을 rhematicity, 의미적 초점을 Kontrast로 구분하고, 핀란드어와 헝가리어를 카탈란어, 영어와 대조하여 이를 주장한다. 임동훈(2012)은 유사한 관점에서 화용적 초점(초점-배경, 가로초점, 격조사)과 의미적 초점(대조 초점, 세로초점, 보조사)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은/는'의 기본의미를 대조라고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34) 제7장에서 한국어의 보조사 ‘도, 만, 는, 가’를 대조성 표지로 통합하고, 각각을 대조의 동일성, 유일성, 차별성, 부각성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대조, 배제, 추가’ 등의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 현상들이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 진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안 의미론은 대안 집합(alternative set) 개념을 통해 초점의 양화 영역(quantificational scope)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래 (15)와 같은 의문문의 의미는 잠재적인 대답의 집합이다.

(15) 철수가 야구를 좋아하니, 축구를 좋아하니?
⇒ 의미 : 잠재적인 대답의 집합 {철수가 x를 좋아한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 명제들의 집합이 실제 답변의 대안 집합을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즉, 대답문에서 초점이 되는 요소는 맥락상 두드러진 대안들의 집합인 {야구, 축구}를 도입하여 초점의 양화 영역이 된다. 또한 이 대안 집합은 대조, 배제, 추가와 같은 의미론적 연산자(operator)의 양화 영역으로도 작용하므로 초점 현상과 동일한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임동훈(2012)의 의미론적 "세로 초점" 개념은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직관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구조 의미론도 잠재적 명제 집합에 해당하는 배경(background) 개념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Jackendoff(1972)가 명제를 초점과 전제(presupposition)으로 분할하여 설명한 것을 확장한 것으로, 전제 대신 집합적 명제로서의 배경을 도입하여 형식화하였다. 즉, 명제 의미를 기술할 때 아래 (16)처럼 초점 자리를 변항으로 대체한 배경 부분과 초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미를 표상한 것이다. 여기서 (16)의 의미를 어떻게 형식화하는지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배경, 초점>의 짝으로 파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16) John introduced [$_{FOC}$ Bill] to Sue.
⇒ < λx [introduce (John, x, Sue)], Bill >
배경(명제 집합) 초점

5.3.1.2. MTT의 레마와 진성 레마(Rheme Proper) 구분

초점 현상에 대하여, Mel'čuk의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련 개념은 본 연구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의미-소통 대립(Semantic-Communicative Oppositions)의 8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테마성(Thematicity), 주어짐성(Givenness), 초점화(Focalization), 원근성(Perspective), 강조(Emphasis), 단언성(Assertivity), 단일성(Unitariness), 화행성(Locutionality)이다. 이 중에 초점과 관련한 개념은 테마성이다.

의미-텍스트 이론은 화제-초점을 설명하기 위해 테마성을 정의하였다. 테마성은 소통 지정자(Comm Specifiers), 핵심부(Core)인 테마-레마, 그리고 진성 레마(Rheme Proper 또는 Rhematic Focus)으로 구성된다. 셋 중, 소통 지정자 Comm Specifiers는 명제 의미가 요구하는 시공간 또는 심리공간을 명세하는 것으로서 필수적이진 않다.[135] 이는 본 연구의 장면화제와 유사하지만, 화제와 다른 별도의 기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입장과 다르다.

테마성의 세 요소 중 핵심부인 테마-레마는 기능주의의 개념을 계승했다. 그런데 Mel'čuk(2012: 309)은 "레마가 테마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관점과 배치된다. 장면화제를 화제와 다른 차원으로 보기 때

---

135) 의미-텍스트 이론은 소통 지정자를 내부(internal)와 외부(external)로 세분화한다. 내부 소통 지정자는 특정 시공간 외에도 담화 연결을 위한 '니가 물어봤으니', '짧게 말하자면', '정보를 주자면', '재밌게도', '불행하게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말해지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외부 소통 지정자는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는 'therefore', 'for example' 등이다.

문이다.[136)]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테마성의 마지막 요소인 진성 레마와 레마의 구분이다. 이들은 각각 본 연구의 초점(또는 소통적 초점)과 서술에 해당된다. 여러 주어짐성 기반 정보구조 연구에서 화제-초점의 이항 분절을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의미-텍스트 이론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부분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Dahl(1974)에서 시작하여 Vallduví(1990) 등으로 이어진 삼항 분절과 유사한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삼항 분절 주장과 다른 것은, 초점이 없는 레마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초점을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본 연구의 견해와 동일하다.

초점이 없는 레마는 미얀마어의 배경문 표지를 설명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제4장에서, 미얀마어는 의문-대답문 쌍에서 주격 논항에 초점이 올 때는 반드시 초점 주격 표지 '-ka^2'를 써야 하지만, 소통적 의도가 없는 문장에서는 배경문 주격 표지 '-ha'를 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전자와 후자 모두 '-가', '-ga'를 쓰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얀마어에서는 이 배경 정보라는 범주를 확연히 드러낸다. 이러한 미얀마어 구문의 특수성은 초점 없는 서술이란 개념이 꼭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이론의 초점 없는 레마와 초점이 부여되는 진성 레마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 레마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 '소통적 초점'으로 부르고자 한다.

---

136) 본 연구는 화제를 정보의 출발점 또는 명제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장면 화제도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반면, MTT는 화제의 정의보다 형식적 측면에서 통사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진입 노드(entry node)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차이를 좁히면 MTT를 보완할 수 있을 듯하다.

5.3.1.3. 화제 구조와 초점 현상의 통합

초점 구조를 앞서 살펴본 구조의미론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a)의 구조의미론의 형식화된 표상이 의미하는 바는, λx f(x) 즉 잠재적 명제 집합 { f(a), f(b), f(c) … } 중에서 초점 a가 대입된 f(a)가 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미를 아래 (b)처럼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대안 집합의 각 요소들을 하나의 정보 단위 INFO(information unit)으로, 초점에 해당하는 요소를 중괄호 '[ ]foc'로 표현하면 (c)처럼 표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장의 의미를 명제 의미로 보지 않고 화제의 연계 정보에서 선택된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c)의 표상을 활용할 것이다.[137)]

(17) a. < λx f(x), a > <배경, 초점>

b. $$\left\{\begin{array}{c} f(a) = T \\ f(b) = F \\ f(c) = F \\ \cdot \\ \cdot \\ \cdot \end{array}\right\}$$

c. $$\left\{\begin{array}{c} [\,\mathrm{INFO1}\,]foc \\ \mathrm{INFO2} \\ \mathrm{INFO3} \\ \cdot \\ \cdot \\ \cdot \end{array}\right\}$$

이제 이 초점구조를 제5.2절에서 정의한 화제 구조와 통합할 수 있다. 단순한 화제 구조 'TOP→PRED'를 위의 (c)와 결합하면 아래와 같다.

137) 본 연구는 문장의 의미를 화용 층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명제로 표상하고자 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명제의 의미는 문장 의미 중 일부일 뿐인 술어 구조만을 남겨둔 것이다. 이는 화용적 문맥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의미를 반영하여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해지는 차선책으로 판단된다.

(18) a. 화제 구조 TOP → PRED

b. 초점 구조

$$\left\{\begin{array}{l} [\,\mathrm{INFO1}\,]foc \\ \mathrm{INFO2} \\ \mathrm{INFO3} \\ \quad . \\ \quad . \\ \quad . \end{array}\right\}$$

c. 화제 중심의 정보 구조

$$\mathrm{TOP} \rightarrow \left\{\begin{array}{l} [\,\mathrm{INFO1}\,]foc \\ \mathrm{INFO2} \\ \mathrm{INFO3} \\ \quad . \\ \quad . \\ \quad . \end{array}\right\}$$

이 형식에 따라 구조의미론의 (16)의 예를 표현하면 아래 (19)처럼 표상할 수 있다.

(19) a. John introduced [FOC Bill] to Sue.

b. 구조의미론 < λx [introduce (John, x, Sue)], Bill >

c. 화제 중심의 정보구조

$$\mathrm{JOHN\ INTRODUCED\ X\ TO\ SUE} \rightarrow \left\{\begin{array}{l} [\,\mathrm{BILL}\,]foc \\ \mathrm{JOY} \\ \mathrm{KATHY} \\ \quad . \\ \quad . \\ \quad . \end{array}\right\}$$

그런데, 구조의미론 등의 초점 중심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화제 구조의 중층성이다. 한국어 등의 화제 중심 언어에서 출발하면, 위 (19)의 문장은 아래와 같이 제언문일 수도 있고, 정언문일 수도 있다. 중층적 화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제언문과 정언문도 여러 구조로 표상된다.

(20) a. 제언문1 : [$_{FOC}$ 존이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

$$(\text{STG})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JOHN이 파티에 갔다} \\ \text{JOHN이 BILL을 데리고 갔다} \\ \text{SUE가 파티의 주최자이다} \\ [\,\text{JOHN이 BILL을 SUE에게 소개했다}\,]\text{foc} \\ \text{BILL은 SUE에게 인사했다} \\ \text{SUE는 BILL을 반갑게 맞이했다}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b. 정언문1 : 존은 [$_{FOC}$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

$$\text{JOHN}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파티에 갔다} \\ \text{BILL을 데리고 갔다} \\ [\,\text{BILL을 SUE에게 소개했다}\,]\text{foc}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c. 정언문2 : 존은 수에게 [$_{FOC}$ 빌을] 소개했다.

$$\text{JOHN} \rightarrow \text{X를 SUE에게 소개했다}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BILL}\,]foc \\ \text{JOY} \\ \text{KATHY}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d. 정언문3 : 존은 수에게 [$_{FOC}$ 빌을 소개했다].

$$\text{JOHN} \rightarrow \text{SUE에게 X했다}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BILL을 소개하다}]foc \\ \text{JOY를 데려가다} \\ \text{한국어를 가르치다}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e. 제언문2 : 존이 수에게 [FOC 빌을] 소개했다.[138)]

$$\text{(STG)} \rightarrow \text{JOHN이 X를 SUE에게 소개했다}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BILL}\,]foc \\ \quad \text{JOY} \\ \text{KATHY} \\ \qquad . \\ \qquad . \\ \qquad . \end{array} \right\}$$

위의 예들은 (b, c, d) 등에서 보듯이 초점의 범위에 따라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구조를 정보 단위들의 연쇄 구조로 표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표면적인 문장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이면의 정보구조는 어떤 정보 단위가 화제가 되는지, 그리고 화제가 어떻게 연쇄를 이루는지, 또한 그 화제 구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출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구조 표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초로 인출되는 정보 단위가 이른바 '화제'이고, 마지막 단에 오는 정보 단위가 '초점'으로 일컬어 온 요소라는 것이다.[139)]

그런데 앞 절의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제안한 바대로 초점이 없는 레

---

138) Lambrecht & Michaelis(1998), 전영철(2013) 등에 따르면 이러한 논항 초점 구조는 정언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장의 상단에 장면 화제를 상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장면화제가 없다면 (c)와 (e)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 유형이 장면화제를 가지는 제언문이라는 점은 추가적인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39) 여기서 '이른바' 화제-초점이라고 한 이유는, 화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디까지 화제로 볼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계적 주어짐성 논의에서는 마지막 단위의 앞 부분을 모두 화제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국어 등의 화제 표지 논의에서는 최상단의 화제만을 화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보구조는 화제-기반 정보의 연쇄 구조'라는 입장에서는 그 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의 정의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정의를 요구한다면, '화제'는 최상단의 정보 단위인 '주 화제'와 하위의 '내포 화제'로 구분할 수 있고, '초점'은 마지막 정보 단위로 제안하고자 한다. 단,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개념이 심리 표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표면으로 실현된 문장구조는 언어별로 윤곽화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마, 즉 초점이 없는 서술도 아래 (21)과 같이 가능하다. 초점 '[ ]foc'와 달리 초점이 없는 서술은 '[ ]'[140]로 표현하였다.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전자는 진성 레마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레마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소통적 초점과 서술로 구분한다. 소통적 초점이 없는 구조는 (20)의 구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은 (20)의 경우 질문-대답쌍에서 소통적 초점이 부여된 것이라면, (21)의 경우는 소통적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화자의 주의체계의 심리 이동 경로에 따라 선택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21) a. 제언문1' : 존이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

$$\text{(STG)}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JOHN이 파티에 갔다} \\ \text{JOHN이 BILL을 데리고 갔다} \\ \text{SUE가 파티의 주최자이다} \\ [\text{JOHN이 BILL을 SUE에게 소개했다}] \\ \text{BILL은 SUE에게 인사했다} \\ \text{SUE는 BILL을 반갑게 맞이했다}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b. 정언문1' : 존은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

$$[\text{JOHN}]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파티에 갔다} \\ \text{BILL을 데리고 갔다} \\ [\text{BILL을 SUE에게 소개했다}] \\ \cdot \\ \cdot \\ \cdot \end{array} \right\}$$

여기서는 초점 구조가 의미하는 배경의 의미를 도입하여, 화제 구조

140) 다음 제5.3.2절에서 설명하는 윤곽화(profiling) '[ ]'에 해당한다.

측면에서 대략적인 표상을 제시했다. 이 구조는 다음 절에서 인지적 설명을 더하여 더 구체화할 수 있다.

5.3.2. 정보구조 : 화제-기반에서 서술을 윤곽화하는 동적 구조

앞 절에서 기존 초점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인 초점-배경의 관계를 화제 중심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화제→{배경 [초점]foc}' 또는 '화제→{배경 [서술]} 구조를 제시하였다. 즉 문장의 의미는 화제와 그 화제에서 인출되는 여러 정보들 중에 선택된 정보라는 것이다. 이 관점과 관련한 개념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지언어학의 '기반', '서술', '윤곽화'의 개념과 접목시켜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개할 것은 인지언어학의 주요 개념인 기반(base)과 서술(predication)이다. 공교롭게도 Sasse(1987)와 Langacker(1987)는 유사한 시기에 이 기반과 서술 개념을 엇비슷하게 제안하고 있다. 사실 둘은 이 개념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의했고 정보구조와 관계도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구조의 핵심을 건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장이 정보구조로 수렴된다.

둘의 차이를 언급하자면, Sasse는 정언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는 서술을 화제에 해당하는 기반(base)과 평언에 해당하는 술어(predicate)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서술인 문장을 정언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Langacker 등의 인지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기본 단위인 구문(construction)이 어떻게 범주화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서술 개념을 도입하였다. 인지언어학에서의 서술은 배경 지식인 기반(base)에서 그

일부가 윤곽화(profiling)되어 선택된 구문을 의미한다.[141] 이렇게 둘은 그 출발점이 각각 정언문 설명과 구문의 설명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그들의 '기반' 개념이 화제와 이어지고, '서술'이 평언과 관련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인지언어학의 기반-윤곽(base-profile)과 서술(predication)

Sasse(1987)는 제5.2.2절에서 소개했으므로, 여기서는 Langacker(1987)를 필두로 하는 인지언어학에서 기반(base)과 서술(predication)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와 이 개념들이 본 논문의 화제 중심 정보구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사실 Langacker(1987), Croft & Cruse(2004), Evans & Green(2006) 등의 인지언어학에서는 정보구조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Langacker(2009: 8-9)에서는 화제-초점을 개념적 장면에서의 현저한(prominent) 참여자인 '첫째와 둘째 초점 참여자(primary and secondary focal participants)' 또는 '탄도체-지표(trajector-landmark)'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화제를 "무대 위 장면에서의 집중 조명(spotlights within the scene on stage)"이라고 비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설명은 주어-목적어의 위상이 어떻게 술어에 부호화되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설명보다 오히려 구문 설명을 위해 도입한 '기반-윤곽' 개념이 정보구조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인지언어학의 기반-윤곽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팔과 팔꿈치의 관계이다. '팔꿈치'라는 구문[142]이 지시하는 것은 '팔'의 의미를

---

141) 더 정확하게는 윤곽화된 구문의 의미극(semantic pole)을 말한다. 소쉬르의 기의-기표 관계처럼 구문은 의미극-음운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142) 구문은 언어의 상징 단위 symbolic unit(Langacker 1987: 328)로서 인지언어학의 핵심 개념이다(Taylor 2002: 541). 이 상징 단위로서의 구문은 사용 사건 usage event (actual instance)에 대응된다(Langacker 1987: 66). 구문은 의미와 음운의 상징 결합체 symbolic as-

기반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윤곽화(profiling)한 것이다(Croft & Cruse 2004: 282). 마찬가지로 원의 호(arc)는 '원'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일부를 윤곽으로 한 의미를 지시한다(Langacker 1987: 184). 즉 기반은 윤곽에 전제된 관련 의미 또는 배경 지식을 의미하고, 윤곽은 그 기반의 일부를 선택하여 구문의 의미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윤곽은 사물의 의미 말고도 관계의 의미에도 적용된다. 대표적 예로 친족 명칭이 있다. '고모'라는 구문은 친족의 존재 및 그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 중에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윤곽으로 삼는다(Langacker 200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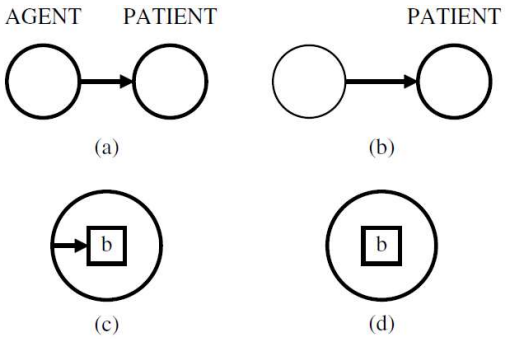
기반-윤곽은 사물 또는 관계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건에도 적용된다. 사건을 표현하는 술어의 의미는 사건을 둘러싼 장면을 기반으로 하여 그 장면의 특정 양상을 윤곽화하여 언어적으로 부호화하는 것이다. 아래 (22) 예문(Evans & Green 2006: 41)은 동일한 사건의 장면에서 (23)과 같은 각각의 양상을 윤곽화한 것이다. 도식에서 윤곽화는 굵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22) a. The boy kicks over the vase.
b. The vase is kicked over.
c. The vase smashes into bits.
d. The vase is in bits.

---

sociation 으로서 의미극 Semantic pole (predication)과 음운극 phonological pole으로 구성된다(Langacker 1987: 58, 81).

(23) 윤곽화 profiling (Evans & Green 2006: 42)



이렇듯 윤곽은 사물, 관계,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식 또는 정보, 즉 기반 정보의 일부를 선택하여 구문의 의미에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문의 의미는 자연히 기반과 윤곽을 포괄한다. 여기서 Langacker(1987: 97)는 구문의 의미를 서술(predication)이라고 하였으므로, 서술은 기반과 윤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때 기반은 윤곽에 전제된 배경지식(Croft & Cruse 2004: 282)이고, 장면에 대한 세상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며(Langacker 2009: 50-51), 맥락을 포함하는 서술의 최대 영역(full scope of predication)이다(Evans & Green 2006: 538).[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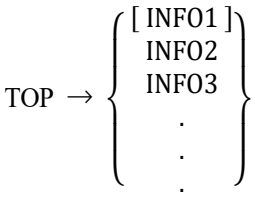
화제 구조와 기반-윤곽

지금까지 Langacker(1987) 등의 인지언어학에서의 서술이 기반-윤곽을 의미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Sasse(1987)가 정언문의 정의로 사용한 서술 개념, 즉 기반-술어(화제-평언에 해당)와 용어는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의 앞 절에서 정의한 (18)의 화제 중심 정보구조에 대응해 보면 이 두 이론의 입장이 어떻게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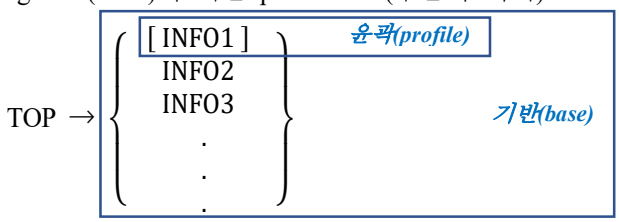
143) Langacker(2009: 50-51)는 서술의 scope가 maximal일 때 장면에 대한 세상 지식을 포함하고, immediate일 때 장면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지를 볼 수 있다. 편의상 (18)을 아래 (24)의 (a)에 옮겼고, 이에 대응하는 Langacker의 서술(기반-윤곽)을 (b)에, Sasse의 서술(기반-술어)을 (c)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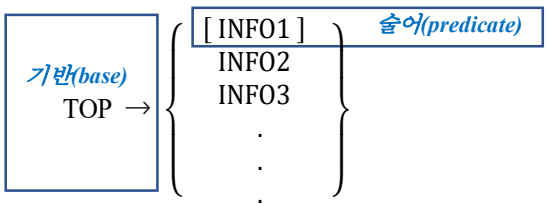
(24) a. 화제 중심의 정보 구조



b. Langacker(1987)의 서술 predication (구문의 의미)



c. Sasse(1987)의 서술 predication (정언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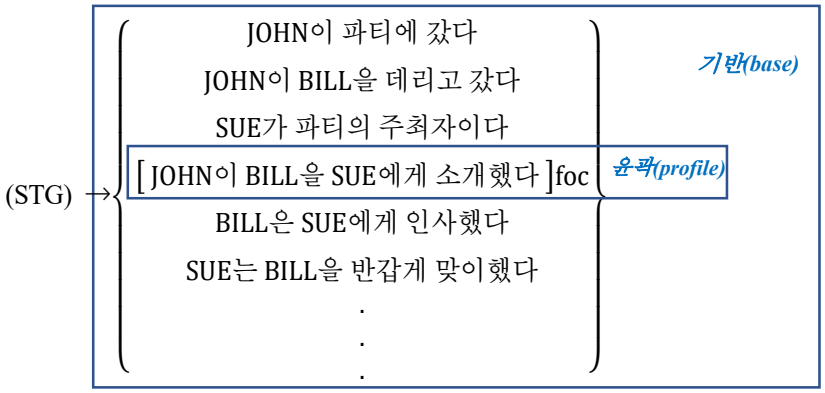
위의 (a, b, c)의 비교를 통해, (b) 인지언어학의 서술인 기반-윤곽은 이른바 화제-평언 또는 화제-초점 구조의 평언 또는 초점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c) Sasse의 서술인 기반-술어는 정언문의 이중 구조에 대한 관찰임을 알 수 있다.[144)]

---

144) 이에 대해 기존 정보구조 논의의 차원에서는, 초점이 Sasse의 술어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하더라도, 인지언어학의 윤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수긍이 힘

인지언어학의 기반-윤곽과 초점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 제 5.3.1절의 (20) 예문 중 일부를 아래 (25)에 다시 가져왔다. 아래 제언문에서 보면, 정보구조의 초점과 인지언어학의 윤곽의 성격이 유사함을 관찰할 수 있다.

(25) a. 제언문1 : [FOC 존이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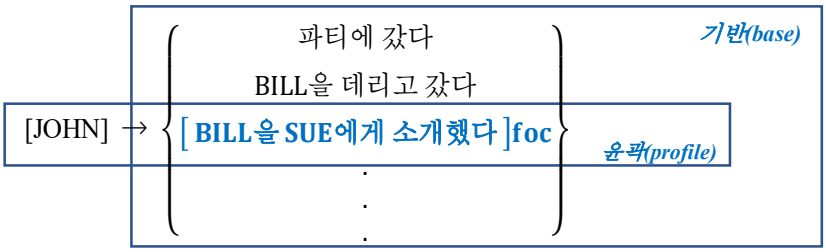
그러나 초점과 윤곽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초점 정보는 기반 정보들 중에 선택된 정보로서 관계적 개념이라면, 윤곽은, 이 초점 정보를 포함하여 구문으로 실현되는 부분의 의미를 말한다. 둘의 차이는 위의 제언문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아래 (26)의 정언문 화제 구조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예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화제 구문에 해당한다. 화제 구문은 화제를 별도로 윤곽화하기 때문에, 초점과 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제5.3.1절에서 보았듯이 초점 현상은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화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모든 정보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기반이 되는 정보 중에 일부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초점과 윤곽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45)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화제를 별도로 윤곽화(이중 윤곽화)하는 언어에서는 제언문도 화제가 윤곽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제언문은 장면화제가 필수적으로 명세되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무표적 문장 구조에서 화제 구조가 명세되지 않는 것과 잘 대비된다. 여기서는 아직 이중 윤곽화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곽과 초점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예문을 사용하였다.

곽의 범위가 달라진다.

(26) b. 정언문1 : 존은 [FOC 수에게 빌을 소개했다].



5.3.3. 화제 구조의 인지적 설명과 형식화의 가능성

5.3.3.1.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지정과 이중 윤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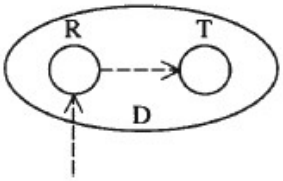
지금까지 화제 구조를 '화제→{기반 [서술]}' 구조로 재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논의들을 화제를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화제의 진행에 따라 화제 연쇄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보았다. 이렇듯, 화제가 정보 인출의 중심 또는 출발점이고, 화제에서 인출된 정보들이 기반정보를 이루며, 기반정보 내에서 다시 화제-기반 정보가 선택되는 진행 구조를 형성한다면, 결국 화제의 진행 구조가 언어 구조의 기본 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이 화제의 진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제 구조를 인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지정 능력(reference point ability)에서 괜찮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146)]

Langacker(2009: 49-50)에서는 참조점 접근 능력을 "our reference point

146) 이 참조점 설명은 Park(2014)에서 Langacker(2009: 49)의 영어 화제 구문과 일본어 이중 주어에 대한 분석을 빌려와서 활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정보구조의 일반적 기제에 대한 설명보다는 비주격 주어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였다.

ability”(Langacker 1993)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식을 보면, 본 연구에서 화제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도입한 ‘화제→{기반 [서술]}’ 구조와 유사하다.

(27) Langacker(2009: 45-50)의 참조점 접근 능력



a. 우리 마음 속의 하나의 개체를 불러내어 참조점(R)으로 삼는다.
b. 참조점은 표적(T)와의 심리적 연결을 위한 기준이다.
c. 잠재적 표적의 집합은 이 연결의 연계 영역(D : dominion)이다.
d. 점선은 심리적 접근의 경로를 표시한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탄도체-지표(trajector-landmark)에 대한 것이다. 즉, 주어-목적어 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ngacker의 아래 (28)과 같은 설명은 본고의 화제-기반 정보 구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28) Langacker(2009: 46)[147]의 참조점 이론의 화제 관점 재해석
a. “명사 윤곽에 주의를 보냄으로써” => 화제에 대한 설명
b. “우리는 참조점의 작동 영역을 구성하는 관련 개체들의 배열을 활성화하여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 => 기반정보에 대한 설명

그러므로 참조점 설명 도식 (27)을 본 연구의 화제 구조 ‘화제→{기반 [서술]}’로 바꾸어 표현하면, ‘참조점R→{연계영역D [표적T]}’로 표현할 수

147) “By directing attention to the nominal profile we activate or make accessible an array of associated entities, which constitute the reference point’s dominion.” (Langacker 200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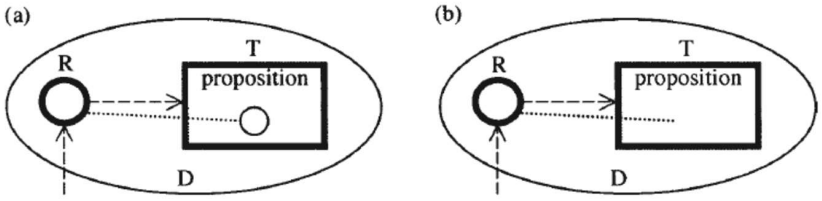
있다. 이런 상호 호환성은 두 입장 '정보 조직화의 출발점으로서의 화제'와 '주의체계의 심리 접근 경로의 출발점으로서의 참조점'이 동일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설명도, 비록 이론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화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된다.

이어서, Langacker(2009: 48)에서는 이 설명을 다음 영어 화제 구문에 적용하고, 이중 윤곽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문장들은 두 번의 연속적인 "주의 창(windows of attention)"(Chafe 1994: ch. 5, Langacker 2001)을 가지고, 각각 자신의 윤곽을 가진다고 한다. 이 문장들에서 화제 명사구는 개체(thing)를 윤곽화한 것이고, 절은 과정(process)을 윤곽화한 것이다.

(29) a. **Your uncle**, **he** really should get married.
b. **That color**, I just don't like **it**.
c. **The lottery**, I never have any luck.

Langacker(2009: 48)는 위 (29)의 (a, b)를 아래 (30a)의 도식으로 표상하고, 위의 (29c)는 다음 (30b)로 표상한다. 일반적인 구문에서는 술어를 중심으로 윤곽화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 문장들은 참조점이 별도로 윤곽화되었다. 참조점 R에 굵은 선 표시가 윤곽화를 의미한다. (30)의 두 구조의 차이는 화제 명사구가 절의 논항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0b)에서 참조점(R)은 명제 내부의 논항이 아니므로 특정 위치가 아닌 연결선만 표현하였다.

(30) 논항 화제와 화용적 화제의 표상(Langacker 2009: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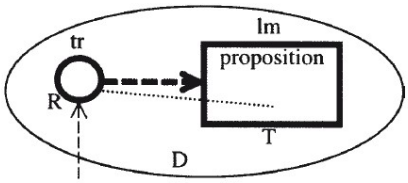
Langacker(2009: 49)는 일본어의 이중 주어 구문도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래 (31)은 그 예이다. 그는 위 영어 화제 구문 (29)와의 차이를, 영어 구문의 하위의 절 요소가 일본어에서는 상위 절에 포함(incorporated)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래 (31b)에서는 탄도체-지표가 동사에서 윤곽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절과 함께 윤곽화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148] 도식에서는 심리 접근 경로인 점선 화살표에 윤곽화를 의미하는 굵은 선을 적용하여, 일본어 동시 윤곽화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1) 일본어의 이중 주어 구조(Langacker 2009: 49)

a. Taroo-ga fuku-ga itsumo hade-da.
Taro-s clothes-s always gaudy-be
'Taro always has gaudy clothes.'

[148] Langacker(2009: 82)는 이 설명을 보편적으로 확장하여 소유 관계, 친족 관계, 전체-부분 관계 등의 소유 구문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 유형론적 근거로 첫째, 소유 관계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심적이라는 관찰과, 둘째, 화제 구문, 주어-목적어 관계, 대명사 대용어의 유사성, 셋째, 소유자, 주어, 화제, 대명사 선행사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b.



이렇게 인지언어학에서 영어의 유표적 화제 구문과 일본어의 이중 주어를 설명한 것은, 본 연구의 화제 구조 설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참조점 설명 대신 화제 구조에 이중 윤곽화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2) a. 참조점 이론을 따른 (29a)의 화제 구조

[Your uncle] → { [really should get married] }

b. 참조점 이론을 따른 (31a)의 화제 구조

[Taroo] → { [fukuga itsumo hadeda] }

그렇지만, (32b)의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31a)의 문장의 주어가 '타로가'도 될 수 있지만, '타로는'도 될 수 있다. Langacker(2009: 49)는 참조점 설명을 일본어 주격 중출문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것이겠지만, 제대로 설명하려면 '타로가'와 '타로는'의 두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화제 구조에서는 이 두 경우를 제언문과 정언문 구조로 구분하여 표현이 가능하다.

(33) a. '타로가 옷이 요란하다'의 화제 구조

(STG) → [Taroo] → { [fukuga itsumo hadeda] }

b. '타로는 옷이 요란하다'의 화제 구조

[Taroo] → { [fukuga itsumo hadeda] }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에서는 (33)과 같이 장면

화제문과 일반 화제문이 대립된다. 그러므로 Langacker(2009: 49)의 (31b)의 구조는 일본어를 제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지언어학의 참조점 설명에도 장면화제를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점 이론은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화제 중심의 정보구조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의 인지적 설명에 큰 도움이 된다.

5.3.3.2. MTT의 정보구조 형식화

소통적 지배와 진입 노드

Mel'čuk & Pertsov(1987), Mel'čuk(2001, 2012)의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은 화자 측의 언어 산출을 중시하여, 의미로부터 최종 음성형이 도출되는 과정의 여러 층위를 형식화한 이론으로서, 본 연구의 화자 중심, 화제 중심 관점에 잘 부합한다.[149] 또한 의미와 형식 간의 대응을 구문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언어학의 입장과도 공통점이 많다. 화제 구조를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화제 중심 정보구조를 형식화한다면 의미-텍스트 이론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절에서는 이 이론의 정보구조 관련 설명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주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의미에서 형식이 도출되는 과정의 다양한 층위와 그 층위

[149] Mel'čuk의 의미-텍스트 이론은 본 연구의 후반 작업 중, 본 연구의 근본적 취지와 부합된 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부 추가되었다. 이 이론이 다루는 범위가 언어학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이론 전체를 이해하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단은 이 이론의 정보구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상세화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참고할 예정이다.

간의 대응 규칙을 형식적으로 기술한 언어 모델이다.[150] 각 층위 간 대응은 변형이라기보다 번역(translations) 또는 사상(mapping)으로 설명하고, 이 대응은 규칙 집합들에 의해 중개된다고 한다. 각 층위는 의미구조(SemS), 의미소통구조(SemCommS), 통사구조(SyntS), 형태구조(MorphS)와 최종 단계인 음성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151] 통사구조와 형태구조는 각각 심층구조(DSyntS, DMorphS)와 표면구조(SSyntS, SMorphS)로 나뉜다.

의미-텍스트 이론의 의미구조는 순서 없는 그물형(web-like)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 정보 저장소에 저장된 원천 정보(raw data)들이 신경망을 이루는 구조로 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의미구조는 정보구조에 해당하는 의미-소통구조의 기능을 통해 통사구조로 조직된다. 이 조직화된 구조는 심층 통사구조로서 의존성 수형도(dependency tree)로 표상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언어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층통사구조는 구문의 사상 규칙에 따라 표층통사구조로 번역되고, 다시 선형화된 사슬(chain) 형태인 형태구조로 사상되어, 최종적으로 일련의 음성 형태를 띠게 된다. 표층통사구조부터 음성까지의 과정은 언어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보편적인 언어 구조의 조직력은 의미구조에서 심층통사구조를 조직해내는 의미-소통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보구조를 정보 조직화의 기틀로 보는 입장과 같다.

의미-소통구조의 조직력은 소통적 지배(Communicative Dominance)에서 나온다. 소통적 지배는 의미구조의 각 단위 노드(node)들의 지배 방향이 화자의 소통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인지언어학의 심리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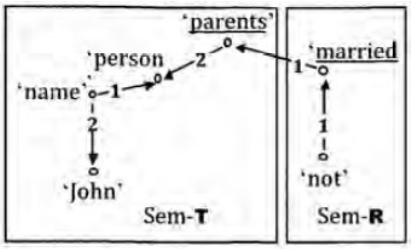
150) MTT는 언어 구조 기술과 언어의 기계적 처리를 위한 상세화된 형식적 표상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번역 등의 자연언어 처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51) 각 층위의 구조는 MTT의 형식적 표상인 의미표상(SemR), 의미-소통표상(SemCommR), 통사표상(SyntR), 형태표상(MorphR)로 표상된다.

근 경로(mental access path)와 유사하지만,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모든 단위들 간의 관계로 확장되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소통적 지배의 기능은 의미 단위들을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인출 가능(readable)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Mel'čuk(2012: 293)에서 든 쉬운 예로, '인구-증가'라는 의미 관계에서, 소통적 지배 방향이 '인구→증가'이면 '인구가 증가함' 또는 '인구 증가'에 해당하는 구조를 조직한다. 반대로 '인구←증가'이면 '증가하는 인구'의 구조를 조직한다.[152] 이는 '의존 노드→헤드(head) 노드'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고, 자연히 심층통사구조에서 의존성의 방향에 따라 구조화되는 의존성 수형도(dependency tree)로 사상될 수 있다.

소통적 지배는 다음의 구조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Mel'čuk 2012: 297). 아래 (a, b) 두 문장은 서로 동의 관계이고,[153] 각각 (c, d)의 형태로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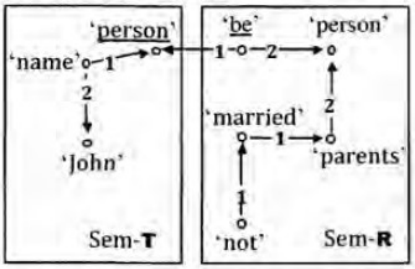
(34) a. John's parents were not married.
b. John was an illegitimate child.
c. (a)의 의미소통구조



[152] MTT에서는 의미구조를 'σ-σ'로, 의미-소통구조를 'σ-sem→σ'로 엄밀한 정의를 통해 표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정도로 단순화하여 설명하였다.

[153] (c)와 (d)의 노드 구성의 차이는, (d)에서 'be' 노드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미 등가 규칙(Sem-equivalence rule)이 (d)에서 '[X] is a person'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미 등가 규칙은 'illegitimate child'가 어휘부의 사전적 정의(lexicographic definition, semantic decomposition)에서 'person'을 지배 노드로 가지기 때문에 서로 교체될 수 있음을 말한다.

d. (b)의 의미소통구조



위 (c, d)의 도식에서 Sem-T와 Sem-R은 각각 테마와 레마를 말한다. 즉 본 연구의 화제와 서술에 해당한다. 사각 테두리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화제와 서술의 윤곽화 범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에서 밑줄이 그어진 두 노드는 일차 지배(primary Comm-Dom)와 이차 지배(secondary Comm-Dom)를 의미한다. 일차 지배는 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의미소통구조를 지배하고, 이차 지배는 윤곽화 범위 내부의 지배이다. 일차 지배는 화자에 의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도식의 구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의미 단위들이 인출되기 위해 단위들 간 소통적 지배의 방향이 결정된 구조이다. 이러한 형식적 설명은 인지언어학의 윤곽화 기제의 세부적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화제 연쇄 구조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화제 정보 단위 내부와 술어 정보 단위 내부의 조직화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소통적 지배를 통한 의미소통구조의 조직화 과정은 출발점을 필요로 한다. 의미-텍스트 이론은 이 시작점을 진입 노드(entry node)라고 명명하였다. 진입 노드는 심층통사구조를 조직해 내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테마와 레마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명은 정보 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화제라는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다. 위 (34)의 두

문장의 차이는 진입 노드의 차이에서 온다. (c)에서는 진입 노드가 'parents'이고, (d)에서는 'person'으로서 화제부의 핵(head)가 다르다. 즉 화제 선택의 차이에서 문장 구조의 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구조에서 조직된 두 문장은 진입 노드가 다르기 때문에, 화제-서술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고 상이한 통사구조로 실현된다.[154)]

이처럼, 순서 없는 망 형태의 정보가 의미 단위 간에 방향성을 부여받고, 화제-서술 구조로 재조직되는 과정은 진입 노드가 결정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인지언어학에서의 심리 접근 경로의 출발점인 참조점(reference point)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인지언어학과 의미-텍스트 이론은 정보 인출의 출발점으로서의 화제라는 개념을 각각 인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인지언어학은 이 참조점이 화제와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참조점을 주로 주어 개념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영어에서 문장의 주어가 화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다. 반면, 의미-텍스트 이론은 이 진입 노드가 화제의 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이론에서 아쉬운 점은, 예문과 분석 결과를 볼 때 모두 주어를 화제와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인 한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수의적으로 화제를 표시하는 언어의 문장들은 주어가 화제인 경향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 장면화제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면화제를 적용하면, 두 이론으로 한국어와 같은 화제 중심 언어를 더 정확히 기술할 수 있을 뿐

154) (c, d)의 의미-소통구조는 노드 간의 방향성으로 인해, 심층통사구조에 해당하는 의존성 수형도(dependency tree)로 쉽게 변환하여 표상할 수 있다. MTT에서 의미-소통구조가 통사구조로 사상되는 것을 수형화(Arborization)라고 한다.

만 아니라, 영어 같은 술어 중심 언어에서 간과되어 온 장면화제문도 설명해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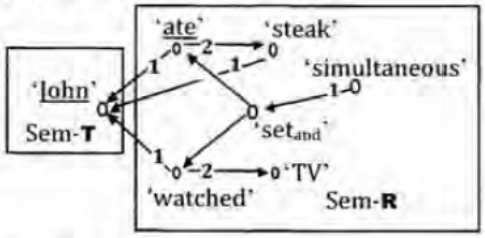
MTT의 전경-배경 형식화

한편,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화제에서 인출되는 기반 정보 중,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도 형식화하여 제공해준다. 이는 미얀마어의 배경문 추격 표지 '-ha'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서로 동의 관계에 있는 복문들로, 절 간의 배경-전경 관계를 대비해서 보여준다. 앞선 (34)의 (a, b)의 문장은 각각 (c, d)의 의미소통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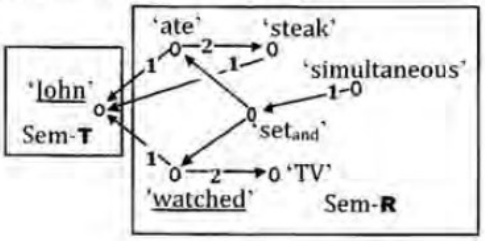
(35) a. John ate his steak while watching TV.

b. John watched TV while eating his steak.

c. (a)의 의미소통구조



d. (b)의 의미소통구조



여기서 두 의미구조의 노드 구성과 의미소통구조의 노드간 방향성은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서술의 윤곽 또는 레마 영역에서 밑줄로 표현

된 지배 노드가 다르다는 점이다. (c)에서는 ‘ate’가 지배 노드이며, (d)에서는 ‘watched’가 지배 노드이다. 이 이론은 두 술어 간의 논리적 관계 또한 ‘Set_{and}’와 simultaneous’라는 의미 노드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진입 노드인 화제의 직접 지배를 받는 두 술어 정보 간의 위상의 차이이다. 이 위상의 차이는 레마 내부의 이차 지배 노드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지언어학 개념은 주의 체계(attentional system)의 강도(strength) 차이이다. (35)의 구조를 본 연구의 화제 구조에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36) a. TOP → {[INFO a, INFO b], INFO c, … } (활성화 정도가 a > b일 때)
b. TOP → {[FG, BG], INFO, … }
* FG: 전경, BG: 배경

따라서, 위 (35) 같은 복문 구조는 윤곽화의 범위가 배경 정보를 포함하는 ‘화제→{[전경, 배경], 배경, … } 형식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설명들이 공유하는 것은 화제를 중심으로 인출된 정보들 간의 지배력, 강도, 활성화 등의 차이로 인해 전경과 배경의 위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을 통해 전경-배경을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언어에 공통적일 것이다. 그런데, 제4장에서 미얀마어는 단문의 경우에도 배경 정보라면 필수적으로 배경 표지 ‘-ha’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는 배경을 단독으로 윤곽화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7) 미얀마어 ‘-ha’ 배경문의 화제 구조
TOP→{FG, [BG], … }

의미-텍스트 이론의 형식화에서는 이런 단독 배경문의 구조를 상정하지 않는 듯하다. 만약, 본 연구에서 도입한 방식으로 인지언어학의 윤곽화 개념을 적용한다면, (34)과 (35)의 도식에서 윤곽화 되지 않은 정보를 사각형의 외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4. 소결

이 장에서는 화제-서술 구조가 문장의 보편적 심리구조임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두 세기 동안의 화제 중심 연구들을 빌려왔다. 이 연구들은 화제-서술 구조의 보편성 잘 보여준다. 화제-서술 구조의 보편성이란, 화제가 없어 보이는 문장도 장면화제를 가짐으로써 모든 문장에 화제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정보구조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된 초점 구조와 그 대안 집합의 개념을 통해, 초점이 화제 구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구조 또는 심리적 의미소통 구조는 단순한 화제-초점 구조가 아니라, 언어 구조 조직화의 핵심임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정보구조란 우리의 주의 체계(attentional system)가 화제에서 출발하여, 화제-기반 정보(topic-base information)로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정보 간의 조직이 형성되며, 이렇게 재조직된 정보의 구조에서 주의의 지점과 범위가 이동함에 따라 선택된 정보의 구조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화하는 문장은, 이 재조직된 정보구조가 구문부에 내재하는 통사-음운 규칙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인지적으로는 인지언어학의 바탕-형상(ground-figure) 개념과 기반-윤곽(base-profile) 개념을 통해 이론적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인지적 과정은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잘 형식화되어 있어, 본 연구의 주장을 상세화하기에 좋다. 다음 장에서 수행한 화제 중심 언어들의 유형론적 일반화는 이 두 이론을 보완하여 실증하려는 작업이기도 하다.

제 6 장 화제 구문의 유형론

6.1. 개관

앞 장에서 화제 구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정보구조를 정의하였다. 이 정보구조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에 영어를 추가하여 화제 구문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세 언어들의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영어 구문과의 대조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적 접근을 통해,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와 '필수적 배경 명세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 유형을 제안한다.

유형론 연구, 좁게는 대조 문법 연구의 강력한 효능은, 특정 문법 범주의 실현이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언어의 숨어있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로만스 언어들은 과거시제에서 완망상(perfective)와 비완망상(imperfective)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스페인어에서 상 체계는 "Juan estudió inglés"(후안은 영어를 공부했다)와 "Juan estudiaba inglés"(후안은 영어를 공부했다/공부하곤 했다/공부하고 있었다)가 대립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둘은 완전히 상보적이다. 즉 스페인어는 완망상-비완망상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무표적 과거형 "John studied English", "존은 영어를 공부했다"의 한 구문이 두 상적 대립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두 언어에서 "John was studying English"나 "존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의 유표적 진행상 표현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표현들은 과거 시제 표현과 상보적이지 않다.[155] 또는 무표적 과거 표현

[155] "John used to study English"나 "존은 영어를 공부하곤 했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표현들

에 상적 대립이 미명세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156] 그러므로 우리는 두 언어의 무표적 과거 표현이 완망상으로 해석되는 문맥이 많더라도, 이를 완망상 표지라고 하지 않는다. 이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방식은 대조 연구를 통해서이다. 즉, 위 스페인어 문장 “Juan estudiaba inglés”이 여러 문맥에서 한국어 ‘공부했다, 공부하곤 했다, 공부하고 있었다’로 대응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스페인어는 완망상-비완망상의 필수적 표시(obligatory marking) 체계이고, 한국어와 영어는 수의적 표시(optional marking)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첫째, 화제라는 문법 범주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일반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 유형을 제시한다. 이 유형은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인 영어, 미얀마어 등과 잘 대비된다. 둘째, 한국어는 일본어와 대조할 때 장면화제문 중에서도 지각문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관찰에서 지각적 장면화제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미얀마어는 전경문과 배경문의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필수적 전경-배경 표시 언어 유형으로 제안할 것이다.

6.2. 화제 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의 특수성

우선, 제2.2.3절에서 Lambrecht(1994)가 제안한 초점 구조의 세 유형을

은 비완망상의 일부 범주인 진행상이나 반복상을 명시할 때 사용되는 구문이지만, 무표적인 과거 시제가 완망상과 비완망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156) 무표적 형태가 유표적 형태의 대립의 반대 값을 가지면 필수적 표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무표형이 대립 값을 둘 다 가질 수 있을 때는 수의적 표시 체계이다(Bickel & Nichols 2007: 213). 수의적 표시에서의 무표형은 대립의 값이 미명세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윤곽화 관점에서는, 이 미명세를 윤곽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의 화제 구조 관점에서 검토하여 확장해보고자 한다.

(1) a. My car/It [$_{foc}$ broke DOWN]. 술어초점 구조 (화제-평언)
b. [$_{foc}$ My CAR broke down]. 문장초점 구조 (전체 초점)
c. [$_{foc}$ My CAR] broke down. 논항초점 구조 (초점-전제)

위 (1)의 세 유형은 초점을 기준으로 문장 유형을 분류한 것인데, 화제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개체 화제문, 술어 화제문, 장면화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류의 문제점은 초점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화제를 수의적인 요소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듭하여 언급했듯이, 화제는 정보구조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1)의 문장들을 모두 화제 구조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위 (1)에서 초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질문-대답의 경우에는 소통적 초점(진성 레마, rheme proper)이지만, 그 외 경우에는 소통적 초점이 없는 서술 또는 레마이다. 초점이 부여되지 않은 화제 구조를 위주로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2) a. my car → {[broke DOWN]}. 일반 화제→서술
b. STG → {[my CAR broke down]}. 장면화제→서술
c. STG → X broke down → {[my CAR _]$_{foc}$ } 장면화제→술어 화제→서술

여기서, (a)와 (b)는 질문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반면, (c)는 '무엇이 고장났니?' 또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고장났는데 그게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의해 강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초점 서술 '[ ]$_{foc}$'로 표상할 수 있다.[157)]

157) 이 경우도 질문이 없이 화자의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At that time, something broke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이 세 유형을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영어와 다른 점은 일반 화제 구조 (a)에서 화제를 반드시 별도로 윤곽화 한다는 점이다. Langacker(2009: 48)의 이중 윤곽화에 해당한다.

(3) a. [내 차는] → {[고장났다]}. 일반 화제 구문
b. [STG] → {[내 차가 고장났다]}. 장면화제 구문
c. [STG] → X가 고장났다→ {[내 차]} 술어 화제 구문

이 절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일반 화제 구문에서 화제 표지 '-는', '-wa'를 반드시 쓰고, 그 외의 화제 구문에서는 화제 표지를 절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제 범주에 있어 '-는'과 영표시 '-ø'는 반대의 범주 값을 가진다. 특정 범주의 대립을 표현할 때 무표형이 유표형의 반대 값을 가지는 것을 '필수적 표시'라고 한다(Bickel & Nichols 2007: 213). 그러므로 두 언어는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필수적 화제 명세(obligatory topic specification)'[158] 언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영어의 무표적 문장이 화제 미명세로 인해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를 모두 담당하는 '수의적 표시'와 뚜렷이 대비된다.

6.2.1. 일반 화제-장면화제 대립의 필수적 명세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음과 같이 일반 화제

down…) My car broke down'과 같이 'my car' 정보가 최종적으로 인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때는 STG→ X broke down→ { [my CAR _] }로 표상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경우를 자문자답으로 본다면, 소통적 초점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158) '필수적 화제 표시'(obligatory topic marking)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굳이 '필수적 표시'보다 '필수적 명세'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장면화제의 화제 영표시(zero-marking)에 대해 '표시'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와 장면화제의 대립되는 구조가 각각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으로 실현된다. 즉 두 구문은 화제 범주의 반대 값을 가진다.

(4) a. 철수는 똑똑하다. 개는 영리하다.
a'. [철수]→ {[똑똑하다]}
b. 철수가 똑똑하다.[159] 개가 영리하다. (지금 행동을 보니)
b'. [STG]→ {[철수가 똑똑하다]}

(4a)는 '철수'를 화제로 하여 철수와 관련된 수많은 기반 정보들 중에 '똑똑하다'는 정보를 인출하는 구조이다. 반면, (b)의 '철수가 똑똑하다'는 화자가 현재 지각하고 있는 장면에서 철수를 묘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 장면 속에서 '철수가 똑똑하다'는 단일한 정보를 꺼내는 경우일 수도 있다.[160] 주목해야 할 점은 (a)와 (b)가 완전히 대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 관계에서 두 문장이 반대 값을 가진다는 것은, 화제를 의미상 필수적으로 명세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b)에서 '[STG]'로 장면화제를 윤곽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윤곽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냄을 의미하기보다 구문의 의미극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문에 의미적으로 명세된 범주는 윤곽화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아래의 영어 화제 구문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4)의 두 구문이 (5)의 영어 구문 하나로 대응된다는 점은 한국어와 일본어 화자의 경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5) a. John is intelligent.

159) '철수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160) 이러한 문장은 현재나 과거의 장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라기보다, 추론의 영역을 거쳐 새로 획득되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외성(mirativity)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a'. John→ {[is intelligent]}

a”. STG→ {[John is intelligent]}

위 (5)의 영어 구문은 화제를 명세할 수 없기 때문에, (a’, a”)의 두 화제 구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161] 그래서 (a) 문장에서 화제가 ‘John’인지 장면화제인지의 판단은 청자의 추론에 맡기게 된다.[162]

이렇게 영어의 무표적 구문에서 화제가 미명세되는 것과 달리, 유표적 화제 구문은 화제를 명세한다. 아래와 같은 제시어 구문과 ‘as for’[163] 구문이 대표적이다.

(6) a. John, he is intelligent.
b. as for John, he is intelligent.
c. [John] → {[is intelligent]}

그러나, 이렇게 영어에서 제시어나 ‘as for’ 구문으로 일반 화제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수적이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161) 본 연구는 지금까지 (a) 문장을 대표적인 정언문, 즉 일반화제문으로 다룬 입장들과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정언문과 제언문은 문장 유형이고 정언 판단(이중 판단)과 제언 판단(단일 판단)은 의미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보였듯이, 제언문이 단일 판단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장면 화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언문도 의미 유형으로는 이중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정언문-제언문보다 화제 구조를 직접 반영한 일반 화제문-장면화제문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162) 미명세된 범주 값은 문맥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추론 과정을 동반한다. 문맥에 의해 추론되는 범주는 ‘화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이 화제 범주 값이 분명히 명세되므로 화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문장 화제를 ‘화용적’이라고 보는 입장과 반대된다.

163) ‘as for’ 구문이 대조성이 없는 순수한 화제 기능인지는 의문이 든다. 대조성은 기본적으로 서술에서 전경-배경의 대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제는 연쇄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비가 하위 화제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제7장). 그래서 이때의 대조성을 ‘대조 화제’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경우의 대조성과 화제의 구조적인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 for’ 구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할 때만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구문이다.

또한 영어에는 일부 문맥에서 장면화제를 필수적으로 명세하는 유표적 구문도 존재한다. 아래 'There is' 등의 소위 가주어 구문이다.

(7) a. There is a cat.
a'. [STG] → { [고양이가 있다] }
b. It is raining.
b'. [STG] → { [비가 온다] }

그러나, 이러한 가주어 구문은 처소 표현이나 날씨 표현 등의 일부 문맥에서만 필수적이지, 모든 장면화제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화제의 명세와 윤곽화가 유표적인 구문에서만 수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무표형에서는 윤곽화되지 않아 미명세된다는 점에서, 영어는 '수의적 화제 명세(optional topic specification)' 언어라 할 수 있다. 필수적 화제 표지가 없는 모든 언어는 이 유형에 속한다.[164] 미얀마어도 이 점에선 동일하지만, 화제 구조의 다른 측면을 필수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6.2.3절에서 다룰 것이다.

6.2.2. 지각 장면화제 구문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와 대조될 때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 상보적인 두 화제 구문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문으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의 가장 단순한 문장 'John is intelligent'이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일반 화제 구조와 장

[164] Li & Thompson(1976)에서 연구 대상 언어는 모두 화제 구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제시어 형태의 화제 구문은 모든 언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화제 구조의 중의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 절에서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이 미명세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두 구조가 하나의 구문으로 실현될 때, 두 구조 중 어떤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청자의 추론에 맡겨진다.

같은 방식으로, 일본어의 “koko-wa doko-desu-ka?”는 한국어의 두 구문 ‘‘여기가 어디입니까?”와 “여기는 어디입니까?” 모두에 해당하는 현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설명의문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현상이란 것을, 제3장 한국어-일본어 대조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어의 화제 표지 ‘-wa’가 왜 한국어에서는 ‘-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현상을 다룰 때 더 세분화된 표현이 가능한 한국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을 보였다. 그러면, 한국어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와 다른 “여기가 어디입니까?”의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문맥에서 일본어는 ‘-ga’ 주격 사용의 제약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이 문맥을 지각적 장면의 의문-대답 환경이라고 제안하였었다.[165] 그리고 이 문장 유형을 ‘지각적 제언문’, ‘지각 장면화제문’, 또는 단순히 ‘지각문’으로 정의하였다.[166]

---

165) 일부 구문을 대상으로 일반화한 분류이므로,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조 연구가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각 의문문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본 연구도 관련 예문들을 점검하고 비판하는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취지는 이 특정 부류에 나타나는 현상을 화제 구조의 윤곽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므로, 논의의 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166) 지각 장면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지각문에 대립되는 개념은 이미 기억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어 처리하는 ‘인출문’이라 할 수 있다. 인출문은 다시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각문은 지각 장면을 표현하는 구문이므로 장면화제문만 가능하다.

이 지각 의문문 문맥에서, 일본어는 주격 '-ga'를 쓸 수 없다는 제약을 보인다. 이 일본어의 제약에 대해 제3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화제 윤곽화의 개념을 반영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8) 일본어 의문문 '-ga' 제약 (가설)

a. 제약설 또는 화제 윤곽 이전설 : 화제의 윤곽이 장면화제에서 하위 화제로 이전되므로, 이 하위 화제가 윤곽화되어 '-wa'로 실현된다. 그 원인은 청자 측 대답문의 화제 구조를 예측한 것일 수 있다.

b. 분포설 : 제언문, 화제생략문 등의 '-ga' 의문문은 '갑작스러운 어감'으로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회피되어 온 결과, '-wa' 구문으로 대체되었다.

둘 중 (8b) 분포설은 지각 의문문의 문맥에서, 일본어 화제 표지 '-wa'가 주격 표지 '-ga'의 의미 영역을 함께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이 문맥에서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이 중화 또는 미명세되었다는 설명과 동일하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어는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이지만, 지각 의문문의 문맥에서만 수의적 화제 명세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는 확고하고 체계적인 '-wa/-ga'의 대립을 보이고, "koko-wa doko-desu-ka?"에서의 '-wa'도 화제 표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한 화제 표지 '-wa'가 극히 일부 구문에서만 주격 표지를 담당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wa'는 화제 표지이고 '-ga'는 주격 표지라는 판단을 온전히 유지한 (8a)의 가설이 지금까지는 더 타당해 보인다. (8a) 제약설은 지각 의문문의 문맥에서 장면화제를 윤곽화할 수 없다는 제약이기도 하다. 즉, 지각문(지각 장면화제문)은 장면화제가 윤곽화된 화제 구조인데, 이 구조

를 일본어는 의문문의 문맥에서 구문에 직접 반영할 수 없는 제약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맥에서 장면화제를 윤곽화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장면화제를 윤곽화하는 구문이 없다고 해도 된다. 이로 인해, 장면화제가 아닌 하위의 일반 화제를 윤곽화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는 화제의 윤곽이 장면화제에서 하위 화제로 이전한다고 해도 동일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 가설을 '화제 윤곽의 이전'이라는 뜻으로 '화제 이전'이라고도 부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 가설의 원인을 청자 측 대답문의 화제 구조를 화자가 미리 예측하여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일종의 불합치(disjunct) 화제 구조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이 '화제 윤곽 이전설'을 중심으로 일본어의 해당 구문을 표현해 보면,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화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우선 다음 (9)는 '여기'를 화제로 하여 형성된 화제 구조이다. 이때 한국어와 일본어는 동일하게 일반 화제문으로 실현된다.

(9) a. 여기는 어디입니까?
a'. [여기] → { $[X]_{foc}$ }
b. koko-WA doko-desu-ka?
b'. [여기] → { $[X]_{foc}$ }

그러나, 다음 (10)의 지각 의문문(지각 장면화제 의문문)에서 보면, 한국어는 (a')같이 장면화제를 윤곽화한 장면화제문으로 바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일본어는 (b')의 장면화제 윤곽화가 불가능하므로, (b")에서 '여기'에 윤곽이 부여된 일반 화제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b')와 (b")는 동일한 화제 구조에서 윤곽화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b') 구조의 장면화제에서 (b")의 하위 화제로 화제 윤곽이 이전했다고 보아 '화제 윤곽

이전'이라고 한 것이다.

(10) a. 여기가 어디입니까?

a'. ⟦STG⟧ → {[여기]} → {[X]$_{foc}$]}

b. koko-*GA/WA doko-desu-ka?

b'. *⟦STG⟧ → {[여기]} → {[X]$_{foc}$}

b". STG → {⟦여기⟧} → {[X]$_{foc}$}

6.2.3. 일본어 화제 구문의 추가 제약

화제의 이전은 담화 구조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지만, 문장 단위 내부에서의 화제 이전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설명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의 독특한 구문으로 인식되어 온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 구문은 화제 윤곽 이동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명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 한국어 문장 (11)을 들 수 있다. (a, b)의 화제 구조는 각각 (a', a")와 (b', b")의 문장구조로 실현될 수 있다.

(11) a. [저 사람] → {[이름]}→{[X]$_{foc}$}

a'. 저 사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a". (저 사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b. [저 사람→{[이름]}] → {[X]$_{foc}$} [167]

b'.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b".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167) 여기서는 중층적 윤곽화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본 것으로, 화제 명사구 내의 수식 구조는 여기서만 표현했다. 제5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으로, 윤곽화 내부의 윤곽화, 즉 중층적 윤곽화는 화제-서술의 의미 범위를 각각 명세하는 윤곽 내부에서, 다시 내부 요소의 명세 여부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다시 윤곽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여, MTT의 소통적 지배 개념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었다.

(11)의 구조는 '저 사람→{이름, …}→{X, …}'라는 기본적인 화제 연쇄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화제 연쇄 구조는 심리 접근 경로를 잘 보여준다. 즉, 주의 체계가 '저 사람'의 기반 정보 중 '그의 이름'으로 이동하고, 이어지는 기반 정보에서 '그의 이름이 X이다'라는 정보로 경로를 선택한다. 그때 (a)와 (b)의 차이는 화제 구문 이중 윤곽화가 적용되는 범위의 차이이다. (a)는 소유자에 화제 윤곽을 부여하고, (b)는 소유물로 화제 윤곽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a", b")도 (a', b')와 화제 구조와 윤곽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곽화는 구문의 음운극(표면의 문장)이 아니라 구문의 의미극(명세하고자 하는 의미)을 선택하는 것이다. (a', b')는 각각 (a", b")와 동일한 의미가 명세된 문장이다. 담화의 화제 진행에서 '저 사람'이라는 소유자 화제가 이미 발화되거나 공유되어 명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168] 윤곽화는 의미적 명세와 관련한 개념이므로, 표면적 실현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위 (11a)의 구조는 일본어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현상을 제3장에서 제시하였다. 아래 (12a)에서 소유주는 단독으로 윤곽화 될 수 없고, (12b)처럼 소유물로 윤곽화 범위가 확장되어야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

(12) a. *⟦그 사람⟧ → {[이름]}→{[X]$_{foc}$}

168) 본 연구에서는 화제의 본질을 대하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화제의 주어짐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화제의 주어짐성과 관련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 (a", b")의 화제 생략 현상은 주어짐성 즉 청자 구정보나 한정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화제 생략 현상이나 영어 정관사 'the' 등이 보이는 구정보 성격은 정보구조를 구문부에서 문장구조로 변환할 때 처리하는 규칙이라는 것이다. 정보구조는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자에게 전달되어 공유된다. 그러므로 화제가 실현되어 전달된 결과가 구정보인 것이지, 화제의 본질이 구정보는 아니다. 따라서, '화제의 주어짐성'이라고 말할 때는, '화제가 갖게 된 주어짐성'이지 '화제의 본질인 주어짐성'을 의미해서는 문제가 있다.

a'. *sono hito-wa namae-ga nan-desu-ka?

b. ⟦그 사람→{이름}⟧ → { $[X]_{foc}$ }

b'. (sono hito-no) namae-wa nan-desu-ka?

이렇게 보면, 일본어의 두 가지 '-ga' 실현 제약은 윤곽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화제 윤곽 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문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 문맥에서 상위 화제를 윤곽화하는 구문이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 현상이 일본어에서 어떤 화제 구조까지 포괄하는지는 더 광범위한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이 의미 유형을 일단 '소유자-소유물-본질적 속성' 정도로 파악해보았다. 아직은 이 유형 분류가 일반화하기엔 섣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새로운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화제 구조의 유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시한 점과, 이 현상을 윤곽화 범위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6.2.4. 전경-배경 대립의 필수적 명세

미얀마어의 경우, 제4장에서 화제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어 온 '-ha'와 '-ka'의 차이를 검토하고, 둘 다 주격 표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이 보류될 정도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ha'의 성격을 새로 밝혔다. 그리고 두 표지의 차이는 배경문 주격 표지와 전경문 주격 표지임을 주장하였다. 제5장에서 정의한 '화제→{기반}' 구조, 즉 '화제→{전경, 배경}' 구조를 적용하면, 두 주격 표지가 사용된 예문의 화제 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다.

(13) a. ချောစု-**က** ကိုရီးယား-လူ-ပါ။
Chaw:su.-ka. Kori:ya:-lu-pa
PN-NOM PN-man-POL
'철수는/가 한국인입니다.'

a'. 철수→{ FG: [_ 한국인],
BG: _ 공부를 잘 한다, ... }

b. ချောစု-**ဟာ** ကိုရီးယား-လူ-ပါ။
Chaw:su.-ha Kori:ya:-lu-pa
PN-NOM PN-man-POL
'철수는/가 한국인입니다...'

b'. 철수→{ FG: _ 공부를 잘 한다,
BG: [_ 한국인], ... }

(13a)는 '철수'라는 화제에서 인출되는 수많은 기반 정보 중에, 주의의 강도가 가장 강한 전경 정보 '철수가 한국인이다'라는 정보에 윤곽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13b)는 전경 정보인 '철수가 공부를 잘 한다'를 윤곽화하지 않고, 주의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배경 정보 '한국인이다'를 윤곽화하였다. 굳이 (13b)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문맥에 따라 '철수는/가 한국인인데', '철수는/가 한국인이라서' 등이 될 수 있다. 주석의 번역에 '철수는/가 한국인인 것이다…'로 말줄임표를 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화자가 실제로 말하려는 의도는 발화되지 않은 정보에 있다. 또는 이 배경문은 다른 정보로 이어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설명문이나 혼잣말에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다.

(13b) '-ha' 배경문은 이 문장의 정보가 배경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무표적 '-ka' 구문과 유표적 '-ha' 구문이 전경-배경 대립을 배타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미얀마어는 '필수적 배경 명세 언어'(obligatory background specifying language)이다. 물론 다른 언어들에도 배

경문 표지가 있다. 특히 한국어의 '-ㄴ데', '-ㄴ 것이다' 등이 배경 의미를 띠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의 어미들을 배경 표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수의적 배경 명세이다. 왜냐하면, 이 유표적 배경 표지들은 배경 표시를 하더라도, 무표적 구문을 통해서도 배경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 (13b)의 번역문에서처럼, 배경 표지가 없는 무표적 구문 "철수는 한국인이다"는 전경문이 될 수도, 배경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무표형이 대립의 두 값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두 대립 값 중 하나의 선택은 추론에 맡겨질 때, 수의적 표시 체계라고 한다(Bickel & Nichols 2007)는 것은 이 장의 유형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기준임을 거듭 강조한다.

6.3. 화제 구조 실현의 유형론

지금까지 살펴본 화제 관련 구문의 대조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화제 구조를 윤곽화하여 실현하는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에서, 화제 대립의 문법적 명세가 필수적인 구문 유형 (14a)와 수의적인 유형 (14b)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14a)의 두 구조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각각 '-는/-가' 또는 '-wa/-ga' 구문으로 실현하므로,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obligatory topic specifying languages)로 분류하였다. 많은 언어들이 그렇듯이, 영어는 무표적 구문 유형이 (14b)처럼 화제 정보를 별도로 윤곽화하지 않는다. 화제를 명세할 필요가 있을 때는 (14a)와 같은 유표적 윤곽화 구조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영어는 (14b)의 유표적 장면화제 구문도 존재한다. 이렇게 화제 정보의 표시를 수의적으로 하는 언어를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optional

topic specifying languages)로 분류하였다.

(14) 화제 구조 윤곽화 유형

a.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 : 일반화제↔장면화제 대립

$$[\![\ \mathrm{TOP}\ ]\!] \rightarrow \mathrm{BASE} \left\{ \begin{array}{c} [\ \mathrm{PRED}\ ] \\ \mathrm{BG} \\ . \\ . \\ . \end{array} \right\} \qquad [\![\ \mathrm{STG}\ ]\!] \rightarrow \mathrm{BASE} \left\{ \begin{array}{c} [\ \mathrm{PRED}\ ] \\ \mathrm{BG} \\ . \\ . \\ . \end{array} \right\}$$

b.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 :

$$\mathrm{TOP} \rightarrow \mathrm{BASE} \left\{ \begin{array}{c} [\ \mathrm{PRED}\ ] \\ \mathrm{BG} \\ . \\ . \\ . \end{array} \right\}$$

c. 필수적 전경-배경 명세 언어

$$\mathrm{TOP} \rightarrow \mathrm{BASE} \left\{ \begin{array}{c} [\![\ \mathrm{FG}\ ]\!] \\ \mathrm{BG} \\ . \\ . \\ . \end{array} \right\} \qquad \mathrm{TOP} \rightarrow \mathrm{BASE} \left\{ \begin{array}{c} \mathrm{FG} \\ [\![\ \mathrm{BG}\ ]\!] \\ . \\ . \\ . \end{array} \right\}$$

미얀마어는 화제 표지가 별도로 없는 위 (14b)의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이다. 그러나, 기반 정보 중 전경-배경을 각각 명세하는 위 (14c)의 두 구조를 두 주격 표지 '-ka/-ha'를 통해 필수적으로 표시하므로, '필수적 전경-배경 명세'(obligatory background specifying)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화제 구조와 그 윤곽화 방식에 따른 언어 유형 분류를 기본틀로 하여, 지금까지 대조 연구를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언어별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5) 화제 구문의 특수성

<table>
<tr><th>전경-배경
대립 명세</th><th>화제 대립
명세</th><th>장면화제
윤곽화</th><th>해당 언어</th><th>비고</th></tr>
<tr><td rowspan="4">수의적</td><td rowspan="3">필수적</td><td>항상 윤곽화</td><td>한국어</td><td>-는/-가 필수적 대립</td></tr>
<tr><td>일부 제약</td><td>일본어</td><td>일부 -ga 제약</td></tr>
<tr><td>예외 윤곽화</td><td rowspan="2">영어</td><td>예외적 구문(there, it)</td></tr>
<tr><td colspan="2">수의적
(유표적 화제 구문 존재)</td><td></td></tr>
<tr><td>필수적</td><td colspan="2">수의적
(유표적 화제 구문 존재)</td><td>미얀마어</td><td>-ha/-ka 필수적 대립</td></tr>
</table>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는 화제구조에서 화제를 별도로 윤곽화함으로써 화제문인지 장면화제문인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한다. 위 (15)에서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There is a cat’, ‘It is raining’ 구문처럼 일부 예외적 문맥에서 필수적 화제 명세임을 볼 수 있다.

수의적 명세란, 유표적 표현이 어떤 범주의 대립 값 중 하나를 명확히 드러낼 때만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무표적 표현에서는 범주 값의 판단을 청자의 추론에 맡기게 된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일반 화제-장면화제 대립에 대해서 영어와 미얀마어는 수의적 명세 체계이다. 전경-배경 대립에 관해서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수의적 명세 언어이다. 이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무표적 구문들이 전경과 배경을 둘 다 표현할 수 있다.

6.4. 소결

이 장에서는 첫째, 화제라는 문법 범주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언어 유형임을 보이고,

두 언어를 '필수적 화제 명세'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이 유형은, 화제구조에서 화제를 반드시 윤곽화함으로써 일반 화제문인지 장면화제문인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언어 유형 또는 구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인 영어, 미얀마어 등과 잘 대비된다. 수의적 화제 명세란 유표적 화제 구문이 있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무표적 구문에서는 화제 범주 값이 미명세되어, 화제의 판단을 청자의 추론에 맡기게 된다.

둘째, 한국어는 일본어와 대조할 때 장면화제문 중에서도 지각문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관찰에서 지각적 장면화제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얀마어에는 전경문과 배경문의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필수적 배경 명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언어들은 전경-배경의 표시가 수의적으로서 전경-배경 대립 값의 판단은 청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제 7 장 한국어와 정보구조

7.1. 개관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수립한 화제 구조에 대한 이론과 새로 제안한 유형론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논쟁적 주제들을 실험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기존 한국어 연구들이 축적한 세밀한 문법 기술과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제 중심 관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화제 구조를 중심에 두고 일본어와 미얀마어를 해석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세부적인 문법 현상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구체화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특수성을 면밀히 기술한 성과들은 언어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과정에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가 활용하는 몇몇 개념들이 일부 언어의 기술 문법적 특수성에 기대어 만들어진 개념이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꾸준히 반론이 제기됨에도 언어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주어 개념이 그렇다.[16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제와 초점의 개념은 보편적 화제 구조 또는 정보 처리 구조에 따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는데, 주어 개념도 화제 구조를 반영하여 재정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장의 목표는,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어 연구에서 합의가 쉽지

169) 영어 중심의 주어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이 유형론적으로 밝혀지면서, 주어를 언어보편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종종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다 보니, 주어를 정의하는 것보다 주어의 성격(subjectivity 또는 subjecthood)이 무엇인가의 논의로 흐르는 듯하다.

않은 논쟁적인 주제 몇 가지에 새로운 견해를 보태해보는 것이다. 첫째, 주어의 성격, 둘째,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 현상, 셋째, 초점 구조와 한국어의 보조사의 관계를, 본 연구의 화제 구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좀 더 간명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아직은 다소 부족한 자료들에서 일부 현상과 예문들에만 적용한 것이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자료 유형들을 다루므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색다른 각도의 해석이 향후 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2. 주어의 재정의 필요성

7.2.1. 주어-술어 구조의 문제점

7.2.1.1. 화제로서의 주어와 술어 논항으로서의 주어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주어-서술어로 구분하는 방식은 꽤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주어가 무엇이냐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주어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술 구조는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며, 주어를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주어를 논할 때, 대부분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첫째, 화제로서의 주어 관점과, 둘째, 술어가 요구하는 요소로서의 주어 관점이다. 많은 논의들이 둘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엄밀한 구분이 쉽지가 않은 듯하다. 첫째, 화제로서의 주어 관점은 대하여성에 기반한 주어 정의이다. 즉, 주어는 술어가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대

상이란 정의다. 이 관점은 서양 논리학의 전통적 견해이기도 하다.[170] 이는 주어나 화제의 지시적 특성을 논할 때, 특정성 또는 한정성이 언급되는 것과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대하여성의 주어 또는 화제는 정보의 출발점으로서 특정 지점을 지시해야만 하고, 화제는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화 구정보인 한정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논항으로서의 주어 관점은 술어가 요구하는 요소의 특정 성격에 기반하여 주어를 정의한다. 즉 주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식으로 정의된다. 이는 술어 중심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인구어 문법 중심의 주어 정의이기도 하다. 화제를 수의적으로 표시하는 언어를 분석할 때 문맥을 제거해버리면,[171] 화제 대립과 관련한 무표적 문장은 화제 미명세이므로, 일반 화제 구조일 수도 있고, 장면화제 구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문맥이 제거된 문장들은 특정 장면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화제 구조로 해석되기 쉽다.

가장 쉽게 주격이 화제로 해석되는 영어의 be동사 구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래 (1)은 초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1a)의 주격 논항 'John'은 대부분 주어이자 화제로 취급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언문(일반 화

---

170) 전통 논리학(term logic 또는 Aristotelian logic)은 두 개의 단위(term)를 기본 구조로 하는데, 이 단위들은 주어-술어에 해당한다. 이때 술어는 주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명제를 구성한다고 한다(Sommers & Englebretsen 2000). 이는 Strawson(1964)의 화제 관점, 즉 화제는 명제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어를 술어의 서술 대상 또는 술어의 판단 근거로 하는 정의는 대하여성에 기반한 정의이다.

171) 자연 언어에 문맥을 제거한 문장이란 있을 수 없다. 문맥이 없는 것에 가장 가까운 문장은 불쑥 꺼내는 말이 될 텐데, 청자는 이때에도 해석을 위한 문맥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문맥이 없어도 해석 가능한 문장은 사실, '청자가 문맥을 추론하는 데 드는 노력이 가장 적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문)의 전형으로 종종 제시된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들은 (1a)의 영어 구문이 한국어에서 (1b, b')의 두 구문에 대응됨을 알고 있다.

(1) a. John is intelligent.
b. 존은 영리하다. (일반 화제문, 정언문)
b'. 존이 영리하다. (장면화제문)

앞선 장들에서 보였듯이, 영어의 무표적 구문은 아래 (2a, a')처럼 화제를 윤곽화하지 않기 때문에, 두 구조에 모두 해당된다. 반면, 한국어는 화제를 필수적으로 윤곽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을 항상 명세하게 된다. 따라서 (2b, b')의 두 화제 구조를 각각 다른 구문으로 실현하게 된다.

(2) a. John → { [is intelligent] }
a'. STG → { [Join is intelligent] }
b. [존] → { [영리하다] }
b'. [STG] → { [존이 영리하다] }

이렇게 영어 문장 (1a)는 화제 정보에 윤곽이 부여되지 않은 미명세 상태이다. 어떤 문법 범주든 미명세의 경우는 그 범주 값의 판단을 청자의 추론에 맡기게 된다. 이때 (1a) 문장은 문맥이 제거된 상태에서, 특정 장면을 보면서 발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므로,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추론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맥을 제거했다는 것은 문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면화제의 문맥을 제거한 문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문장은 일반 화제 구조로 추론이 발생하고, 주격 논항을 화제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는 주어가 화제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하는 것보다, 주어가 화제로 추론되는 문맥이나 환경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추론적 경향성으로 인해 '영어는 주어가 화제의 성격을 누적적으로 가진다'(Kibrik 2001)는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향성을 말하는 이유는 '주어가 화제'라고 말할 수 없는 예외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영어의 주어와 화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영어 '주어'의 정의가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3) a. John, Susan likes him. [172]
b. 존은 수잔이 좋아해.

이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나 'Susan'라고 할 것이다. 문장의 의미는 'John'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이지만, 대하여성의 대상인 'John'이 아니라 술어 행위의 주체인 'Susan'이 주어이다. 따라서 영어의 주어 개념은 대하여성의 주어 또는 화제로서의 주어가 아니고, 술어의 요소로서의 주어 개념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피동 구문에서는 술어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주어이므로, 이때는 화제가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 이는 영어 주어가 행위주라는 의미역 기반이 아닌 화제 성격의 주어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2)에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피동 구문도 아

[172] (3a)의 문장이 영어에서 기본문이 아니라고 주어 논의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Keenan(1976) 등에서 시도한 기본문과 주어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 당장 한국어에 적용해보더라도 한국어의 주어와 기본문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인구어의 주어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언어 분석시에 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참고해야 하지만, 최선의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래 (4b, b')와 같이 두 화제 구조의 대립을 명세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 (4c, c')에서 화제를 윤곽화하여 일반 화제 또는 장면화제를 명세하는 것과 잘 대조된다.

(4) a. John was hit by Susan.
b. John → { [was hit by Susan] }
b'. STG → { [John was hit by Susan] }
c. [존] → { [수잔에게 맞았다] }
c'. [STG] → { [존이 수잔에게 맞았다] }

여기 (4a) 문장에서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주가 아니라 대상이란 점은 분명하다. 이는 영어의 주어가 의미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술어 중심 관점에서는, (4a)의 주어 'John'을 설명할 때, 술어 'hit'의 대상 의미역 위치로부터 주어 또는 화제 위치로 '이동'하거나 '화제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화제가 정보의 출발점'이라는 언어 산출적 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4a) 문장은 (4b, b')의 두 구조를 통해 화제가 명세되지 않은 문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 사실은, 한국어 화제 구조 (4c, c')에서 화제를 윤곽화하여 명세하는 것과 대조될 때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어의 주어는 화제를 명세할 수 없다. 단지 문맥에서 장면이 제거되었다는 문맥으로 인해, (4b')의 장면화제 구조로 추론되기 힘들 뿐이다. 따라서, 영어 피동 구문은 주어가 화제를 반영한다는 정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어 주어의 정의에 대해 적절한 설명은 피동 구문이 요구하는 '술어 논항으로서의 주격'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 다음 한국어 문장 (5a)의 주어는 무엇

일까? (5b)는 이에 해당하는 화제 구조이다.

(5) a. 철수는 영희가 좋아해.
b. [철수] → { [영희가 _좋아하다] }

이때 두 관점의 주어 개념이 충돌한다. 화제로서의 주어는 '철수는'이다. 반면, 논항으로서 주어는 '영희가'이다. 지금까지 통용되는 주어 개념으로는 '영희가'가 주어이고, '철수는'은 소위 '화제화'된 성분이다. 이런 해석은, 한국어에서도 영어식의 논항 관점 주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과연 이 주어 개념은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명력이 있는가? 전통적인 '대하여성' 기반한 화제로서의 주어 개념은 적용할 수 없는가? 만약, 화제 관점 주어 개념을 적용하면 영어 문장 (3a) "John, Susan likes him"에서도 제시어 'John'을 주어라고 해야 하는가? 또는 논항 관점 주어 개념을 유지한다면 이 주어의 개념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본 절의 핵심 주제이다.

물론, 두 관점 모두 주어의 정의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특정 언어의 문법 기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언어 보편적 주어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만약 특정 언어의 형식에 얽매인 주어 개념을 택한다면, 개별 언어 기술을 위한 개념이 되어 버린다.

7.2.1.2. 의미 범주의 보편성과 형식 범주의 특수성

의미-형식의 관계는 임의적이다. 그러므로 개별 언어의 특수성인 형식 범주를 보편적 의미 범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만 한다. 물론 한 언어의 문법 형식이 의미 범주를 직접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의미 범주의 경계가 분명하고 인지적 설명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I', 'YOU'의 1, 2인칭 구분이나 'NOW'나 'HERE'를 기준으로

‘BEFORE’와 ‘AFTER’을 양분하는 것은 명백히 모든 언어에 보편적일 것이다.[173] 그러나 형식은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의미 범주들에서는, 범주 값을 하위 범주화하면서 제한된 몇몇 형식에 대응시키게 된다. 이때 특정 형식이 가지는 의미 범주 값들의 경계는 언어별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주어 개념을 정의하려면, 언어 보편적 의미 요소 또는 의미 구조의 문법 범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술어의 논항을 하위 범주화한 격 체계는 표면의 형식 체계이며 보편적이지 않다. 주격, 대격, 여격, 처소격 등의 격 개념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개념들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 점은 의미격, 구조격, 형태격을 구분하는 많은 논의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 주격, 대격, 여격 등이 의미격으로 쓰일 때는 각각 행위주, 대상, 수혜자 등의 의미역이 실현된 것을 말하며, 구조격으로 쓰일 때는 첫째 논항, 둘째 논항, 셋째 논항 등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 간의 위치 대립을 말한다. 그리고 형태격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법 형태를 의미한다. 의미격은 논항과 술어 간의 의미 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구조격은 논항들 간의 대립적 관계를 실현한다.[174] 문제는 이 격 개념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이다.

격 체계를 언어 보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의미격을 보편적으로 볼 때의 문제는 의미역과 형

---

173) 언어 보편적 의미 범주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Goddard & Wierzbicka(2007)에서는 ‘semantic primes’로 부르고 있다.

174) 이 둘까지 포함해서 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크다. 이 용어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의미가 실현된 형태격’, ‘구조가 실현된 형태격’으로서 사용될 때이다. 애초 격(case)의 개념은 형태격이므로 격 체계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둘은 형태격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각각 ‘의미역’과 ‘논항 대립, 논항 위치’ 등으로 통일하면 좋을 듯하다.

태격 체계의 대응이 임의적이라는 점이다. 격 체계들이 수 많은 의미역을 소수의 형태에 대응시킬 수밖에 없고, 이 형태 범주화는 언어마다 제각각이다. 언어별로, 구문별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사건 구조가 술어로 범주화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 게다가 그 다양한 술어별로 다시 개별적 논항들의 관계가 격 체계로 하위 범주화된다. 그러므로, 논항 형식의 범주화는 경우의 수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 범주 값의 경계는 임의적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대상과 착점의 의미역 등이 하나의 격표지로 범주화하거나, 착점과 위치의 의미역등이 통합된 격 체계도 많다. 술어에 따라 행위주와 대상이 모두 주격에 대응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주격 표지 '-가'만 하더라도, "나는 철수가 좋다"처럼 대상 또는 자극의 의미역에도 쓰이고,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나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처럼 인구어 관점에서는 절대로 주격이 될 수 없는 술어 논항에 쓰인다.[175] 이는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격 체계라는 것이 언어의 특수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역과 격 체계와의 관계는 임의적이고, 이 관계를 의도한 용어 의미격도 임의적 체계이지 보편적 체계가 아니다.

다음으로 구조격을 보편성으로 삼을 때 문제는, 주격-대격 체계가 능

---

175) 한국어 '-가'의 경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인구어 중심의 주격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어 '철수는 영희가 좋다',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등 심리 술어의 논항과 '되다, 아니다'의 보어에 나타나는 '-가'가 주격인지의 논의는, 특정 주격의 기준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 격 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주격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언어 개개의 특수한 주격들이 의미적 경향성을 갖지만 그 경향성을 보편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 언어의 주격 실현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한 후,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좋다, 되다, 아니다' 등의 '-가' 성분도 술어가 요구하는 첫째 논항으로서 '주격'으로 불러도 괜찮다고 본다. 개별 언어의 형식적 범주인 '주격'에 대한 명명은 문법 기술 측면에서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 여겨진다.

격-절대격 체계 언어와 대비될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항 타동사의 첫째 논항을 A, 둘째 논항을 P라 하고, 자동사의 논항을 S라 할 때, A와 S를 한 형태로 범주화하고 P를 또 다른 형태로 범주화하는 것을 주격-대격 정렬이라 한다. 그리고 S와 P를 대격으로 한 형태로 하고 A를 별도 형태로 범주화 하는 것은 절대격-능격 정렬이다. 이는 주격-대격 형태 범주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이때 기준으로 사용된 S, A, P라는 분류도 언어 보편적인 의미 범주가 아니다. 술어가 요구하는 하위 범주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에 따라 논항 간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한 형식적 범주이다. 이때 S, A, P가 의미하는 보편성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사건 관계를 인지적으로 반영하여 1항이나 2항 또는 3항의 술어 구문으로 실현한다는 형식 측면의 경향성이다. 즉, 사건 유형에 따라 참여자를 어디까지 윤곽화하는지와 관련한 구문 구성의 보편적 경향성이지, 의미역을 범주화하는 보편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격-대격 정렬 언어 간에도 격 체계가 의미역을 범주화하는 방식이 다르고, 능격-절대격 언어 간에도 술어의 하위 범주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간, 구문간 술어 구문 하위 범주화의 유사성과 경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유사성과 경향성은 인간 인지 체계의 보편성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성이 아닌 보편적 경향성은 항상 예외를 수반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의미격이든 구조격이든 형식적 범주이다. 둘의 차이는 사건 참여 역할의 의미역을 형태적으로 범주화하느냐, 아니면 술어 구문 내부의 위치로 범주화하느냐이다. 어떠한 격 체계도 사건 참여 의미의 수 많은 경우를 제한된 수의 형식으로 묶어낼 때,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어 정의의 문제점

주어의 정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된다. 격 체계와 항상 결부되기 때문이다. 주어 논의에서 화제로서의 주어 관점이 항상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격 체계와 결부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a. 주어-술어 구조는 보편적이다.
b. 화제는 문장에 필수적이 아니다.
c. 기본문에서 주어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주어-술어 구조는 보편적인가? 술어는 보편적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하면, 주어는 문장에 필수적인가? 이것은 주어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특정 언어에서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 형식에 주어 이름을 붙이면, 주어는 당연히 그 언어에서 문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의는 순환론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모든 술어가 주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이 주격 형식의 범주가 일관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주어를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인구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의 인칭 활용 표시는 필수적이고, 주격 논항과의 일치 현상에 거의 일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주격은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범주이며, 이에 기반한 주어 개념도 필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어떠한 격 체계의 주격이든지 보편적 의미적 범주가 아니고, 해당 언어의 술어 하위 범주화의 범위를 반영한 특수한 형식일 뿐이다.

둘째, 화제는 필수적이 아닌가? 본 연구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화제는

모든 문장에 필수적이다. 구문의 의미 층위(의미극)에 해당하는 서술 정보는 화제가 없이는 인출될 수 없다. 단지 인구어들의 표면 문장 구조, 즉 구문의 형식 층위(음운극)에서 화제가 별도로 윤곽화되지 않아 서술 구조만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셋째, 기본문에서 주어를 판단할 수 있는가? Keenan(1976)은 언어 보편적 기본문(basic sentence)을 정의하고, 주어의 통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본문 개념은 두 문장 구조 중에 의미적으로 더 기본적("semantically more basic")인 것을 말한다(Keenan 1976: 307). 실제로 영어의 능동문과 피동문 관계 등 이러한 기본문 개념이 적절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개념은 기본문보다는 '기본 술어 구조'가 더 적절해 보인다.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술어 간의 기본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기본문 개념은 서술만 윤곽화된 구문에만 적용할 수 있고, 화제가 윤곽화되는 구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령, 한국어에 적용했을 때,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을 명세하는 "철수는 학생이다"와 "철수가 학생이다" 중에 어떤 것이 의미상 더 기본적인지 의문이다. '철수는'의 일반 화제문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기본문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온다"와 "비는 온다"에서의 후자를 기본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기본문 개념은 술어 정보 내부의 논항 형식을 말하는 것이 드러나므로, 술어와 별도로 화제를 항상 명세(윤곽화)하는 언어에 적용할 수 없다.

7.2.2. 술어 형식인 주어-목적어 논항으로서의 주어

심리적 층위의 구조를 화제-서술 구조라고 할 때, 서술 내부의 구조는 술어와 논항의 관계이다. 두 구조 모두 그 존재 자체는 언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제 범주가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범주 값을 갖는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이면서 논리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술어 범주와 술어의 하위 범주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미역 범주화의 경계 차이를 덮어둔다면, 논항을 실현하는 술어 구문 구성의 보편성은 제시할 수 있다. 술어 구문이 가지는 필수적 논항 개수는 대부분 3개 이하이므로 그 유형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주어-목적어' 구성 또는 '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구성, 또는 주어 단독 구성 등은, 구문 구성의 유형을 명명한 것으로서 형식 측면에서 보편적일 수 있다. 이들을 각각 이항 타동사, 삼항 타동사, 자동사로 명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언어는 사건의 의미 구조를 윤곽화할 때, 사건 참여자 간의 의미 차이를 대부분 명세한다. 구문 개념에서는, 술어의 논항 구조가 구문에 명세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술의 윤곽화는 구문의 의미극을 선택하는 것이고, 서술 윤곽에 사건 참여자들의 정보를 포함하여 명세한다는 의미이므로, 서술에 대응되는 표면형에도 논항 실현 구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술어 구문은 논항 간 대립을 명세해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논항 간 대립을 명세하는 구문 체계가 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간혹,"나 영어 잘 해"나 "영어 나 잘 해"처럼 논항 위치 대립이 명세되지 않는 구문도 있다. 아무런 격 표지도 없는 데다가, 두 문장을 비

교해보면 어순도 격 표지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구문들은 유정성에 기반한 청자의 추론으로 쉽게 복원될 수 있다. 이런 구문은 추론에 의한 복원 가능성이 있는 구문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서술의 윤곽화는 논항의 개수와 논항 간의 대립을 구문에 명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술어 구문 구성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어 구문 구성의 보편성은, 구문 내부 형식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항으로서의 주어가 보편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때의 보편성은 의미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형식적인 보편성이다. 쉽게 말해, 모든 언어의 술어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논항을 가진다는 말과 대동소이하다. 이 논항 중 특정 형식에 주어라고 명명하면 형식적인 보편성은 가지게 된다. 이때, 주어는 주어-술어 개념으로서 주어가 아니라, 주어-목적어라는 술어 구문 구성의 논항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영어에서는 주어-목적어가 주격-대격과 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형식적 보편성이 의미역 범주화의 보편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어-목적어의 주어에서 의미적 보편성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7.2.3. 화제로서의 주어 검토

이처럼 논항으로서의 주격 개념은 격체계와 결부된 개념으로서 의미적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주어-목적어로서의 주어는 구문의 논항 구조이므로 개별 언어들의 문법 기술 용도로 쓰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어-술어 구조를 상정하게 되면 여러 모순들이 생기게 된다. 논항으로서의 주어를 화제로서의 주어 개념과 뒤섞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주어의 의미적 보편성을 버리는 것이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이 경우는 특정 언어의 문법 기술을 위한 용어로서의 주어이다.

둘째, 주어가 아닌 '주어성'(subjectivity 또는 subjecthood)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보편적 주어를 정의하지 못하므로, '주어성'이란 척도를 도입하게 된다. 언어별로 어떤 논항은 주어성이 높고, 어떤 논항은 주어성이 낮다는 식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영어의 주어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음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 주어성 척도의 기준이 영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음이 명확한 영어를 기준으로 보편성을 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Mikami(1960)는 주어-술어 구조의 주어 개념을 버리고, 대신 주제-술어 구조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화제-서술 관점과 유사하지만, 개별 언어의 통사 구조로 보는지, 보편적 정보구조로 보는지의 차이가 있다. 그는 주제가 아닌 논항들은 모두 보어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어에서 주격 중심의 주어 개념의 문제를 잘 포착한 것이다. 한국어에 대해서도 강창석(2011), 최성호(2013)에서 주어의 개념을 버리고 주제-설명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의들에서 화제-서술 구조를 한국어와 일본어 구문의 특수성으로 주장한 것을 지지하면서 보편적 구조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즉, 이 특수성이 실은 보편적 화제 구조에서 실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넷째, 오히려 한국어와 일본어가 보이는 화제 구문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주어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어의 특수한 현상에 억지로 보편성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도 대하여성의 주어 정의를 찾을 수 있고,[176] 이 관점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

[176] 전통 논리학(term-logic)에서는 명제를 주어-술어의 두 단위(term)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주어는 그리스어 'hypokeimenon'이고 라틴어 번역 차용으로는 'subjectum'이다. 술어는 주어에 결합할 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한다고 하므로, 여기서 주어는 Strawson(1964)의 화제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어져 왔음을 제2장과 제5장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였었다.

7.3. 주격 중출 구문과 정보구조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화제 구조와 주어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을 설명하였다. 제6장의 유형론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두 언어의 주격 중출 구문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7.3.1. 화제의 다층 구조와 이중 주어

만약, 심리 층위 또는 의미 층위의 화제가 문법적으로 실현된 것이 주어라고 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 발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화제 표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화제 연쇄 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주어' 구문으로 불리는 문장들을 다시 검토해 보자.

(6) a. 철수는 언어학자가 되었다.
a'. [철수] → {[언어학자가 되다]}
b. 코끼리는 코가 길다.
b'. [코끼리] → {[코가 길다]}
c.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c'. [나] → {[호랑이가 무섭다]}

(6a)와 같은 불완전 술어에서는 '언어학자가'의 성격이 기존 주어 개념과 다르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래서 대개는 '보어'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주어'라고 명명하더라도 일반적 주어와는 성질이 다르지만 '-가'를 주어로 처리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르

면, '철수는'은 화제, '언어학자가'는 술어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술어 논항은 '보어, 주격, 주격보어' 중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술어의 논항이라는 성격만 명확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면, (6b)와 (6c)는 대표적인 '이중 주어' 구문이다. (6b)는 대소 관계 또는 소유 관계 구문이고, (6c)는 심리 술어 구문이다. 화제→{[서술]} 구조라는 점에서는 (6a)와 별 차이가 없다. 만약 화제가 문장에 실현된 성분을 주어라고 한다면, '코끼리는', '나는'은 주어이고, '코가', '호랑이가'는 술어의 논항이다. 기존에도 이 구문에서 보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코가'가 술어의 논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술어 논항에 기반한 보어설을 지지한다. 술어의 필수 논항을 모두 보어라고 칭한다면 그렇다. 이는 Mikami(1960)의 입장과 유사하다.

화제 주어 관점에서는, (6a-c)의 문장들은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니다. 주어는 화제가 실현된 '철수는', '코끼리는', '나는'이 주어이고, 주격 성분들은 보어가 된다. 그러나 아래 (7)은 좀 성격이 다르다. '시장은', '철수는'이 화제 부분이므로 주어인데, 그 다음에 주격이 둘씩 등장한다.

(7) a. 시장은 채소가 값이 싸다.
a'. [시장] → {[채소]} → {[값이 싸다]}
b. 철수는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
b'. [철수] → {[아버지]} → {[돈이 많다]}

그러면, 술어의 논항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7a)의 술어 '싸다'의 주격 논항은 '값이'이다. 그런데 '채소가 싸다'도 되므로, '채소가'도 주격 논항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채소가 싸다'와 '채소가 값이 싸다'는 동일한 의미이다. 유사한 사례로 '팔이 길다'와 '팔이 길이가 길다', '철수가 착하다'와 '철수가 성격이 착하다'도 마찬가지다. 이 특수

한 구문은 환유[177]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체와 부분 관계로서 '채소'가 '채소의 값'을 환유하거나, '싸다'가 '값이 싸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유가 이러한 구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추후 다른 연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7b) 구문을 위주로 본다. 새로 검토한 화제 관점 주어 개념에 따르면, 화제인 '철수는'을 주어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술어 '많다'는 주격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돈이'는 주격 또는 주격 보어이다. 그런데 중간의 '아버지가'는 화제인 주어도 아니고, 논항인 주격 보어도 아니다. 바로 이 구문이 화제의 다층 구조를 잘 드러내는 한국어 특유의 이중 주어 구문 또는 화제 연쇄 구문이다. '철수는'은 상위 화제가 문법적으로 실현된 것이고, '아버지가'는 하위 화제가 문법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구문의 화제 구조를 표상하면 (7b')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화제 구조를 통해서 볼 때, 한국어는 대부분의 일반 화제를 화제 표지 '-는'으로 실현하지만, 화제 연쇄 구조에서 하위 화제는 '-가'로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의 '-가'는 '하위 화제' 또는 '연쇄 화제' 정도로 부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또는 화제 주어 개념이라면 '하위 주어'도 가능하다.

7.3.2. 이중 주어와 주격 중출

이 논리에 따르면, '주격 중출'의 문제도 간명해진다. 한국어는 하위 화제를 주격 표지를 빌려 표현하므로, 아래 문장의 주격 표지 '-가'들 중에 술어 논항이 아닌 것은 하위 화제라고 할 수 있다.

---

177) 환유(metonymy)는 구체와 추상, 전체와 일부, 무정물과 유정물의 일반적 대응과 같은 개념 관계도(conceptual schema)에 따라 특성을 나눌 수 있다.(Nunberg 1995: 109)

(8) a. 코끼리는 코가 길다.
a'. 코끼리가 코가 길다.
b. 철수는 아버지가 돈이 많다.
b' 철수가 아버지가 돈이 많다.

(8a, b)와 (8a',b')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일반 화제문과 장면화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8a')는 장면화제인 '지금 저기'와 같은 지각 장면이 있어야 하고, (8b')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또는 '우리 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등의 상위 화제를 상정해야만 온전한 화제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위 문장들의 화제 구조를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9) a. [코끼리] → {[코가 길다]}
a'. [STG] → {[코끼리]} → {[코가 길다]}
b. [철수] → {[아버지]} → {[돈이 많다]}
b' [STG] → {[철수]} → {[아버지]} → {[돈이 많다]}

이렇게 한국어는 화제의 다중 구조 또는 화제 연쇄 구조에서 화제를 연속적으로 윤곽화할 수 있는 구문이 발달해 있다. 이때, 화제 연쇄 구조에서 최상위 화제는 화제 표지 '-는'으로, 하위 화제들은 주격 표지 '-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화제 연쇄 구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제로서의 주어 개념을 채택한다면 다중 주어 구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반면 일본어는, 제6장의 화제 구문 유형론에 따르면, 한국어의 화제 연쇄 구문에 비해 몇 가지 제약이 더 있다. 화제 구조는 동일하게 형성되더라도, 해당 화제 구조를 실현하는 방식은 개별 언어의 윤곽화 가능 여부에서 달라진다. 윤곽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 윤곽화에 대응하는 구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구문의 유무는 언어별 특수성에 해

당한다. 화제 구조에 직접 대응하는 구문이 없을 때에는, 가능한 구문 형태로 윤곽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일본어 '-ga' 제약은, 상위 화제를 윤곽화 하지 못하고 하위 화제를 화제부로 윤곽화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윤곽화 범위에서 최상위 화제가 아닌 하위화제를 화제 표지 '-wa'로 실현된다는 가설이다. 이렇게, 일본어는 특정 의미 유형에 한해, 상위 화제를 윤곽화할 수 있는 구문이 없다는 제약 가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특정 의미 유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판단을 보류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화제 구조가 대표적이다.

(10) a. [STG] → {[여기]} → {[X이다]}
b. [나] → {[이름]} → {[X이다]}
a'. STG → {[여기]} → {[X이다]}
b'. 나 → {[이름]} → {[X이다]}

이 화제구조의 윤곽화 방식은 한국어에서 (10a,b)와 (10a',b')의 윤곽화가 자유로운 데에 반해, 일본어에서는 (10a,b)는 불가능하고 (10a',b')의 윤곽화만 가능하다. 한-일 대조에서 드러나는 이 현상은 위 (9)와 (10)의 화제 연쇄 구조 간에 모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은 상위 화제와 하위화제의 관계가 전체-부분 관계이고 하위화제와 서술의 관계가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향후 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입증이 된다면 두 화제 구조 간의 차이를 화제 구조에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7.4. 보조사의 재해석 : 전경과 배경의 대비

7.4.1. 한국어 보조사의 초점 유형

제5장에서 정보구조 또는 화제 구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화제는 정보처리의 출발점이고, 이 화제와 연결된 기반정보에서 정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활성화된 정보 중 일부를 윤곽화하여 구문으로 실현한다. 이를 표상하여 TOP→{[FG], BG, …}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과정은 화자 측의 정보처리 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청자와의 소통 창구인 초점을 소통적 초점이라고 하여, 일반적 윤곽화인 '[ ]'와 구분하여 '[ ]$_{FOC}$'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초점은 청자 측에서 보면 '배경 정보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자 측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처리 방식은 '배경 정보에서 초점이 선택'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점의 윤곽화는 소통적 요구에 의한 강제적 윤곽화이다. 즉, 화자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정보의 인출이 아니라, 청자의 요구에 의해 강제되는 정보의 인출 방식이다.

따라서 소통적 초점의 윤곽화는 대부분 배경 정보와 강한 대비를 띤다. 질문-대답은 대개 하나의 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비는 '-는[2]'의 대조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Vallduví & Vilkuna(1998)의 '대비'(Kontrast)나 임동훈(2012)의 '세로초점'처럼 배경 정보와의 대비를 말한다. 기존 대조성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경-배경의 '대비'라고 하였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도출한다는 것은 나머지 배경정보는 그렇지 않음을 함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초점의 성격으로 총망라성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초점이 단순히 한 정보의 선택이 아니라, 전경-배경이 대비되는 범위와 유형의

선택을 항상 수반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대비 범위는 총망라적 대비와 부분적 대비가 있고, 대비의 종류는 부각성, 차별성, 유일성, 동일성 등이 있다.

한국어에서 전경-배경 대비는 이 부각성, 차별성, 유일성, 동일성을 각각 '-가[2]', '-는[2]', '-만', '-도'의 구문 형태로 표현한다. 이 구문 형태들의 정보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대비 범위와 어떻게 공조하는지를 볼 것이다. 각 형태들의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다.

(11) Q: (누가 왔니?)

a. 부각: 철수가 왔어. X가 왔다→{[철수Y]$_{FOC}$, … }

b. 상이: 철수는 왔어. X가 왔다→{[철수Y]$_{FOC}$, 영희N, …}

c. 유일: 철수만 왔어. X가 왔다→{[철수Y]$_{FOC}$, 영희N, 민수N}

d. 동일: 철수도 왔어. X가 왔다→{[철수Y]$_{FOC}$, 영희Y, …}

"누가 왔니?"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화자는 '누군가 왔다'는 정보를 화제로 하여 그것이 누구인지의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게 된다. (a)의 경우 가장 우선 활성화되는 전경 정보가 부각되는 것이므로 '부각성'이라고 하였다.[178] 이 경우 배경정보의 진리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철수가 왔어'라는 대답과 '영희도 왔고, 민수도 왔어'라는 후속문은 의미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철수는'은 차별성 대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차별성을 대조성으로 다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윤곽화 정보가 배경정보와 대조된다는 점에서는 (a-d)가 동일하므로, 이 네 대조 방식을 모두 대비 또는 대조성으로 정의하였다. 대비, 대조된다는 점은 동일한데, 어떤 방

178) 이러한 대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논의 중에 고석주(2001), 신창순(1975) 등은 '가'의 성격을 '선택지정'이라고 하였다.

식으로 대조되느냐가 관건이므로, (b)의 성격은 윤곽화 정보가 배경 중 일부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차별성'으로 정의하였다.

(c)의 '철수만'은 유일하게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일성'으로, (d)의 '철수도'는 배경정보 중에서 동일하게 참을 만드는 항목이 하나 이상 있음을 함의하므로 '동일성'으로 정의하였다.

7.4.2. 한국어 보조사의 대조 범위

총망라성 : 배경의 전역 활성화

위의 표상에서, 네 가지의 대조성 중에 항상 총망라성을 항상 함의하는 것은 '철수만'의 유일성뿐이다. 유일성이란 것은 배경정보를 총망라하여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세 대비 유형도 총망라성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형적 초점인 부각성 '철수가' 위주로 총망라성을 설명하는데, 본 연구는 유일성만 항상 총망라성을 띠며 나머지 세 경우는 수의적 총망라성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2) Q: (누가 왔니?)

a. 유일: 철수만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N, 민수N}

b. 부각: 철수가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N, 민수N}

c. 상이: 철수는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N, 민수N}

d. 동일: 철수도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Y, 민수Y}

앞서의 (11)과 달리 (12)의 (b-d)는 잠재적 후보군, 즉 배경 정보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다. 이때, (a, b, c) 세 대비 유형은 유사한 의미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 배경 활성화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 활성화 범위에 따라 (a, b, c)의 의미가 같거나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이 활성화

범위가 대비 유형과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작용하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대조성은 대비의 범위와 대비의 유형이 동시에 작용하는 기제로서 배경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준다. 이때 대비 범위는 배경 정보의 활성화 범위이므로, 총망라성이란 배경의 전역 활성화라 할 수 있다.

배경의 부분 활성화 및 단독 활성화

총망라성, 즉 배경의 전역 활성화와 달리, 배경이 부분적으로만 활성화되었을 때에도 '-가[2], -는[2], -도'는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13) Q: (누가 왔니?)

a. 부각: 철수가 왔어. X가 왔다→{ [철수Y], … }

b. 상이: 철수는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N, … }

c. 동일: 철수도 왔어. X가 왔다→{ [철수Y], 영희Y, …}

(13a-c)의 '철수가', '철수는', '철수도'는 추가적인 배경 정보가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어도 스스로 지닌 '부각성', '차별성', '동일성'을 표시 기능을 유지한다. 이들 중 특별히 '철수가'는 아래와 같이 단독 활성화의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14) Q: (누가 왔니?)

a. 선택: 철수가 왔어. x-왔다→{ [철수=Y] }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소통 초점 관련 보조사들을 대비 유형과 대비 범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보조사들은 가로 축의 대비 유형을 가지며, 세로 축의 배경 활성화 범위는 전경과 대비되는 배경의 범위를 의미한다.

(15) 한국어 보조사의 대조 유형과 대조 범위

보조사		-가	-는	-도	-만
대비 유형		부각성	차별성	동일성	유일성
배경 활성화 범위	단독	O	X	X	X
	부분	O	O	O	X
	전역	O	O	O	O

7.5. 소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논쟁이 거듭되는 주어와 주격 중출, 그리고 보조사의 문제를 시험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룬 한국어 자료들이 일본어, 미얀마어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향후 더 엄밀하고 상세한 이론과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갈 것이다.

한국어는 심리 층위의 보편적 정보구조를 직접적으로 윤곽화하는 구문이 발달해 있는 언어이다. 화제 표시와 영표시의 대립을 통해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므로, 화제를 별도로 윤곽화하는 [화제]→{[서술]} 구조에 대응하는 구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는 다중적인 화제 연쇄 구문 구조가 있어서, 심리 접근 경로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국어 화제 구문에 대한 연구는 인간 언어 능력의 심리적 기제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현재 통용되는 주어의 정의는 술어 논항 기반의 주어 정의인데, 이는

보편적 주어의 정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술어 논항 구조는 개별 언어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보편적 문법 범주를 설정한다 함은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의미 층위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개별 언어의 특정 현상을 반영한 기술적 문법 범주는 이 보편적 의미 범주를 직접 반영할 수도 있고, 간접적 또는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아예 문법 범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중국어의 시제가 대표적이다. 중국어 문법 현상을 근거로 시제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수의적 화제 표시 언어를 근거로 화제는 수의적이라거나 화제가 이동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유사한 측면에서, 인구어의 논항 기반의 주어 개념을 도입할 때는 그 개념이 보편적 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만 한다. 그 결과로 논항 기반 주어 개념은 보편적 문법 범주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등은 화제 표지가 발달하여, 화제 구조의 미세한 차이를 직접 드러낼 수 있다. 정언문과 제언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장면화제의 존재도 입증해준다. 더욱 독특한 현상은 절 내부에서 화제의 심리 경로에 따른 이동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중 주어 구문이다. 이중 주어 구문은 상위 화제와 하위 화제의 연쇄를 직접 구문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제 중심 주어의 재정의와 장면화제의 도입을 통해, 논란이 반복되는 이중 주어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는 보편적 화제 구조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초점 구조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도 좋다. 초점은 청자의 질문에 의해 강제되는 소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윤곽 정보와 배경 정보의 대비를 수반한다. 한국어는 초점 관련 보조사들을 통해 대조의 유형과 대조의 범위를 드러낸다.

제 8 장 결 론

8.1. 연구 요약

문장의 의미는 화제와 그에 대한 서술로 구성된다. 이 관점은 언어학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주장되어 왔다. 이 화제-서술의 의미가 형식으로 대응되는 것은 구문부의 역할이다. 서술은 구문의 의미극에 윤곽을 부여하는 것으로, 언어별 구문의 특수성은 언어마다 윤곽화 범위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언어별, 구문별 윤곽화 방식에 따라 화제는 필수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화제 범주의 일반 화제와 장면화제의 대립적 범주 값 중 하나를 반드시 명세하여 윤곽화한다. 이론적 일반화와 대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일반 화제-장면화제의 대립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므로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로 분류하였다. 반면, 영어는 일부 유표적 구문을 제외하고 화제를 미명세하므로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이지만, 일부 문맥에서는 '필수적 화제 명세' 구문을 가진다. 그리고 미얀마어는 화제 구조 내의 전경-배경 대립을 필수적으로 명세하는 '필수적 배경 명세 언어'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화제의 본질이 정보를 조직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조명함으로써, 정보구조가 언어 구조의 보편적 체계임을 확인하고, 그 체계의 기틀을 이루는 화제 구조의 기본적 구성과 작동 기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능주의 언어 연구와 인지언어학 연구에서 제안된 장면화제, 심리접근 경로, 윤곽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화제→{기반 [서술]}의 화제 구조를 정의하였다. 즉 화제는 정보의 출발점으로서, 주의 체계의 심리

접근 경로를 따라 기반 정보를 활성화하고, 이 기반 정보에서 윤곽화를 통해 서술이 선택되는 동적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제 구조는 화제 구문으로 실현될 때, 이중 윤곽화를 통해 [화제]-[술어] 또는 [장면화제]-[술어]의 문장 구조로 나타난다.

이 화제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전통적 화제 중심 언어관, 인지언어학, 의미-텍스트 이론, 배경-초점 이론 등을 새로운 화제 정의를 중심으로 묶어 내었다. 또한,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화제 구조 재정의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언어의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설득력 있는 분석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화제 중심 관점과 새 정보구조 모델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대조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각 언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는 화제 구조의 보편적 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언어로 판단된다. 한국어에 새로 정의한 화제 구조를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한국어의 주어, 주격 중출, 보조사 등의 문제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의 주격 중출은 화제의 진행에 따른 [화제]→{[하위화제]}→ … →{[서술]}의 화제 연쇄 구조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화제 구조의 세부적 기제를 잘 드러내 준다. 보조사 '-는, -가, -도, -만'은 화제→{[전경], 배경} 구조에서 전경-배경 정보간 대비를 표현하는 문법 현상으로, 각각 차별성, 부각성, 동일성, 유일성을 표현한다.

둘째, 기존 한/일 대조 연구에서는 일본어 화제 표지 '-wa'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응되는 한국어 주격 표지 '-가'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어 화제 구문이 오히려 화제 구조를 직접 반영하고, 일본어는 화제 구문의 실현에 일부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일본어는 지각 장면의 의문문과 일부 '이중

주어’ 구문에서 ‘-ga’ 주격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각적 화제 구조를 별도 범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중 주어문의 화제→{하위화제}→{서술} 구조의 특정 의미 유형에서 일본어는 상위 화제 윤곽화에 제약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셋째, 미얀마어에서 두 주격 표지 ‘-ha/-ka’의 차이는 설명하기 쉽지 않아 분석이 보류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미얀마어는 화제 표지는 없지만,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가 각각 ‘-ha’와 ‘-ka’로 실현되는 대립 체계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화제 구조의 작동 방식의 하나로서 배경 윤곽화 구조인 화제→{전경, [배경], …}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화제 구문의 특수성 연구가 언어 보편성에 관한 근원적 질문들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제 중심 관점의 접근을 통해 언어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술어 중심 관점으로 다소 기울어진 언어 연구의 중심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 수립한 보편적 화제 구조는 인지언어학의 보편적 인지 체계 및 주의 체계의 기본 틀을 정보구조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엄밀한 형식화를 추구하는 의미-텍스트 이론과도 잘 부합하므로, 구체적인 형식화의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다. 비록, 기존 술어 중심의 논항 구조 연구 성과들은 반영하지 못했으나, 화제→{기반 [서술]}의 보편적 구조 속에서 서술 내부의 부분 윤곽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기존 술어 중심 연구들과의 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2. 정보구조 연구의 전망과 과제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현상들을 찾아내면서, 정보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구조 연구는 화제나 초점 관련 현상의 관찰과 해석에 있어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적 화제 명세 언어인 영어를 연구 중심에 놓을 때, 정보구조의 기틀인 화제 구조를 간과하기 쉽다. 둘째,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필수적 화제 명세로 인해 화제 연쇄 구조가 직접적으로 윤곽화된 이중주어 또는 주격 중출 구문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언어 보편성의 측면보다 개별 언어의 특수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컸다. 셋째, 형식 언어학의 경우, 통사, 의미, 화용 층위를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구조를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 층위들을 포괄하는 정보구조는 개별 층위에 분산되어 기능하는 화용적 기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넷째, 여러 대안적인 문법 모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기능주의 언어학이나 인지언어학의 경우, 그러한 층위 구분 대신 구문 중심의 의미-형식 관계를 잘 설명해 왔으나, 필수적 화제 명세 언어를 중심으로 화제를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화제 범주의 일반 화제-장면화제 대립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유형론적 작업을 통해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등이 화제 구조의 세부를 필수적으로 명세하는 언어라는 점을 보인 것은, 정보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은 정보구조 관련 현상들에 대해, 서양학계의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에 못지않은 훌륭한 직관과 해석을 제시해오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화제 구조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다루는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의 특수한 구문들이 드러내는 언어 보편성을 가장 잘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학은 정보구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에 많은 열정을 쏟아왔기 때문에, 정보구조 연구를 위한 자산들이 풍부하게 쌓여 있다. 주제어 논의와 서술절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박철우(2003, 2015, 2017), 전영철(2006, 2009, 2013), 임동훈(2012, 2015) 등에서 최신 정보구조 이론들이 활용되면서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가 지닌 정보구조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기갑(2014)에서는 한국어의 격 중출 현상에 Tomasello(2003)와 Bybee(2006)에서 제안된 사용 기반 문법(Usage-based grammar)을 적용하여, 고쳐 말하기와 구문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활용되는 구문 개념은 소쉬르의 의미-형태 대응을 직접 계승한 개념이다. 기능주의 언어학과 인지언어학 계열의 연구들은 모두 의미-형식 대응의 구문 개념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79] 이 이론들은 의미적 층위의 심층 구조, 개념 구조, 심리 구조 등을 상정하고 있고, 이 구조가 구문의 의미-형식 대응을 중심으로 부호화되어 표면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구체화하는데 풍부한 밑거름을 제공해줄 것이다.

특히 이신형(2010)과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Langacker(2008)와 Lakoff(1987)등의 인지언어학 이론은 한국어의 화제 구조를 설명하는

---

179) 대표적으로, Mel'čuk(1981), Fillmore(1982), Lakoff(1987), Langacker(1987), Mel'čuk & Pertsov(1987), Talmy(1988), Langacker(1993), Talmy(2000), Croft(2001), Mel'čuk(2001), Goddard & Wierzbicka(2002), Taylor(2002), Talmy(2003), Tomasello(2003), Croft & Cruse(2004), Bybee(2006), Evans & Green(2006), Goldberg(2006), Langacker(2009), Mel'čuk(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인지언어학은 유형론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현상들을 경험주의적 입장과 귀납적 방법론으로 통합해 가면서, 인간의 보편적 인지 체계를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인지언어학이 정보구조를 중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참조점 설명 등은 화제 구조의 작동 방식과도 잘 부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화제 구조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한국어, 일본어, 미얀마어의 화제 구문들은 인지언어학의 이론을 상세화하고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문법 기제가 발달한 언어들을 더 찾아내어, 본 연구에서 초보적으로 시도된 정보구조 실현의 유형론을 확장해 나간다면, 그간 개별 언어의 특수성에 갇혀서 포착되지 못했던 언어 보편적 구조의 세부를 속속들이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과 구문 문법뿐만 아니라, Mel'čuk의 형식이론인 의미-텍스트 이론과도 잘 부합된다. 이 이론은 기존의 기능주의 연구들의 성과들을 집대성하여 치밀하게 형식화한 이론이다. 기본적으로 의미-형식 대응의 구문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경향들과 본 연구는 의미-텍스트 이론의 형식을 빌려서 쉽게 형식화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제 중심 정보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기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앞으로 상세한 형식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강창석(2011), 국어 문법과 主語,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47-77.

고석주(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파주: 태학사.

김두봉(1934), “(깁더)조선말본”, 京城: 滙東書館.

김선미(2007),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제(主題)를 나타내는 표지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7월)”,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61-169.

김영희(1978), 겹주어론, “한글”, 162, 한글학회, 39-75.

남기심(1985), 주어와 주제어, “국어생활”, 3, 국어연구소, 92-103.

박순함(1971), 格文法理論의 輪廓, “영어 영문학”, 40, 한국영어영문학회, 45-55.

박승빈(1935), “朝鮮語學. 全”, 京城[서울]: 朝鮮語學硏究會.

박승윤(1986),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한국언어학회, 1-15.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박철우(2005), 국어 총칭문의 의미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132-146.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73, 국어학회, 269-307.

박철우(2017),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정보 단위 획정 문제, “언어학”, 78, 한국언어학회, 131-163.

서정수(1971), 國語의 二重 主語 問題 : 변형생성 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1-28.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 문법연구회, 131-170.

유길준(1909), “大韓文典 / 兪吉濬 著”, 漢城北部: 隆文館.

이기갑(2014), 한국어의 고쳐 말하기(Repair)와 격 중출 구문, “국어학”, 72, 국어학회, 3-45.

이신형(2010), “'화제-초점'의 의미기능과 텍스트 분석 연구”,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정민(1996), Generic Sentences Are Topic Constructions, in T. Fretheim & J. K.

Gundel (e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John Benjamins, 213-222.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5-373.
임홍빈(1972), "國語의 主題化 硏究", 서울: 서울大學校 大學院.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171-200.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담화인지언어학회, 217-238.
전영철(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51-76.
전영철(2013),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국어학회, 99-133.
정승철(2017), 미얀마어의 주격 표지와 정보구조,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7-6, 한국언어학회, 135-144.
정승철(2018),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박이정출판사,
정인상(1990), 주어,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 主題別 國語學 硏究史", 東亞出版社,
주시경(1910), "國語文法. 全", 京城[서울]: 博文書館.
채완(1975), 助詞 '는'의 意味, "국어학", 4, 국어학회, 93-113.
최규수(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임자말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최성호(2013), 교착 통사론, "언어학", 65, 한국언어학회, 3-37.
최현배(1937), "우리말본", 14번째고침[판], 京城: 延禧專門學校 出版部.
허웅(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 어제", 서울: 샘문화사.
홍사만(1983), "國語特殊助詞論", 서울: 學文社.
홍사만(1995), "한・일어 대조어학/논고", 탑출판사.
홍사만(2009), 한,일어 이중주격론의 대조 분석 : 삼상(三上) 장(章)설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33-71.

홍용철(2005), 특수조사 “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생성문법연구”, 15-3, 한국생성문법학회, 397-413.

Harada, Masaharu(原田正春)(1969), ビルマ語の助詞について -Ha~Gaを 中心に–, “言語研究”, 55, 115-117.

Hlaing, Thuzar(トゥザ ライン)(2015), ビルマ語の Hà,Kâ に関する考察 -日本語の「は,が」との対照から- (the Differences between “Hà”, “Kâ”, in Burmese -Contrast from Japanese “Wa”, “Ga”-), “日本語・日本学研究”, 第5号,

Kato, Atsuhiko(2004), On the Markings of Subjects with High Topicality in Pure Colloquial Burmese, in T. Masuoka (ed.), *主題の対照 (Contrastive Studies on Topic)*, 東京: くろしお出版, 57-87.

Kato, Atsuhiko(加藤昌彦)(1996), ビルマ語の助詞-Ha_の特徴について (on the Characteristics of Burmese Particle -Ha), “東京大学言語学論集”, 15, 167-201.

Kato, Atsuhiko(加藤昌彦)(1997), ビルマ語の-Ha_と日本語の「は」についての覚え書き (a Note on Burmese -Ha_ and Japanese Wa), “民博通信 (Minpakutsushin)”, 76, 90-105.

Kikuchi, Yasuto(菊地康人)(1995), “は”構文の概觀, “日本語の主題と取り立て”, くろしお出版., 37 -47.

Kitahara, Yasuo(北原保雄)(1984), “日本語文法の焦點”, 教育出版.

Kobayashi, Junko(小林純子)(1984), 日本語の助詞 {は}{が} とビルマ語の助詞 {Ha}{Ka.} の対照研究, “日本語教育”, 54, 89-98.

Kuno, Susumu(久野 暲)(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27-47.

Kusano, Kiyotama(草野淸民)(1899), 國語の特有せる語法-總主, *帝國文學* 5(5).

Mikami, Akira(三上章)(1960), “象は鼻が長い”, くろしお出版.

Mikami, Akira(三上章)(1974), 文法小論集, くろしお出版, 125-143.

Mio, Isago(三尾砂)(1948), “Kokugohoo Bunshooron”, Tokyo: Sanseidoo.

Noda, Hisashi(野田尚史)(1996), “「は」と「が」”, くろしお出版.

Ohno, Toru(大野徹)(1983), “現代ビルマ語入門”, 東京: 泰流社.

Okano, Kenji(岡野賢二)(2009), ビルマ語の格標示, “チベット＝ビルマ系言語の文法現象1: 格とその周辺(澤田英夫編)”,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39-268.

Sakuma, Kanae(佐久間鼎)(1940), “現代日本語法の研究 (Studies on the Modern Usage of Japanese)”, Tokyo: Kouseikaku.

Sakuma, Kanae(佐久間鼎)(1955), “日本語のかなめ―音韻と語法の法則”, Tokyo: 刀江書院.

Sawada, Hideo(澤田英夫)(1995a), On the Usages and Functions of Particles-Kou_/-Ka. In Colloquial Burmese, “New Horizons in Tibeto-Burman Morphosyntax”, 41, Osaka: 国立民族学博物館, 153-187.

Sawada, Hideo(澤田英夫)(1995b), 現代ビルマ語の２つのスタイル–口語体と文語体(Two Styles in Modern Burmese–Colloquial Style and Literary Style), “言語文化を学ぶ人のために”, 東京: 世界思想社,

Takubo, Yukinori(田窪行則)(1990), 対話における知識管理について -対話モデルからみた日本語の特性-, “アジアの諸言語と一般言語学”, 三省堂,

Tsunoda, Tasaku(角田太作)(2009), “世界の言語と日本語(改訂版)”, くろしお出版.

Umeda, Hiroyuki(梅田博之)(1991),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２　文法・語彙”, 大修館書店.

Yamada, Hikaru(山田光)(1977), 象は鼻が長い, “言語”, 6, 大修館書店, 2-8.

Yutani, Yukithoshi(油谷幸利)(2005), “日韓対照言語学入門”, 白帝社.

Baron-Cohen, Simon, Leslie, Alan M. & Frith, Uta(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1), 37-46.

Bickel, Balthasar & Nichols, Johanna(2007), Inflectional Morphology, i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9-240.

Brentano, Franz(1874),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English Translation(1995):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A. C. Rancurello, D. B. Terrell, & L. L. McAlister, Trans.), London/New York: Routledge.

Büring, Daniel(1997),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the 59th Street Bridge Accent*, London: Routledge.

Büring, Daniel(2003),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5), 511-545.

Bybee, Joan(2006), From Usage to Grammar: The Mind's Response to Repetition, *Language* 82(4), 711-733.

Carlson, Gregory Norman(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Retrieved from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Retrieved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302863258?accountid=6802.

Cesalli, Laurent & Friedrich, Janette(2014), *Anton Marty & Karl Bühler: Zwischen Denken Und Sprache - between Mind and Language - Entre Penseée Et Langage*, Basel: Schwabe AG.

Chafe, Wallac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fe, Wallace L.(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133, doi:10.2307/412014.

Chafe, Wallace 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25-55.

Chierchia, Gennaro(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nd Inherent Generics, in G. N. Carlson &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6-223.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assachusetts: MIT press.

Cornyn, William S. & Roop, D. Haigh(1968), *Beginning Burmes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roft, William(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Croft, William & Cruse, D. Alan(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Östen(1974), Topic-Comment Structure Revisited, in Ö. Dahl (ed.), *Topic and Comment, Contextual Boundness and Focus*, Hamburg: Helmut Buske, 1-24.

Dahl, Östen(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Basil Blackwell.

Daneš, Frantisek(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in F. Daneš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Berlin/Boston: DE GRUYTER, 106-128.

DeLancey, Scott(1990), Ergativity and the Cognitive Model of Event Structure in Lhasa Tibetan, *Cognitive Linguistics (includes Cognitive Linguistic Bibliography)* 1(3), 289, doi:10.1515/cogl.1990.1.3.289.

É. Kiss, Katalin(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 Focus, *Language* 74(2), 245-273.

É. Kiss, Katalin(2001), Discourse Configurationality,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Sprachtypologie Und Sprachliche Universalien/La Typologie Des Langues Et Les Universaux Linguistiques: An International Handbook/-Ein Internationales Handbuch/Manuel International, 1-2*, Berlin, Germany: de Gruyter, 1442-1455.

É. Kiss, Katalin(2002), The Epp in a Topic-Prominent Language, in *Subjects, Expletives, and the Epp*,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107-124.

Erteschik-Shir, Nomi(1997), *The Dynamics of Focus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rteschik-Shir, Nomi(1998), The Syntax-Focus Structure Interface, in P. W. Culicover & L. McNally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29 Academic Press, 211-240.

Erteschik-Shir, Nomi(2007), *Information Structure: The Syntax-Discourse Interface,*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Vyvyan & Green, Melanie(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Fairthorne, Robert A.(1969), Content Analysis, Specification, and Control, in C. A. Cuadra (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4,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73-109.

Fillmore, Charles(1982), Frame Semantics, in T. L. S. o.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111-137.

Firbas, Jan(1962), Notes on the Function of the Sentence in the Act of Communication, *Sbornik Praci Filosofické Fakulty Brněnské Univerzity A* 10, 134-148.

Firbas, Jan(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 267-280.

Firbas, Jan(199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belentz, Georg von der(1869), Ideen Zu Einer Vergleichenden Syntax. Wort Und Satzstellung, *Zeitschrift für Völkerpsychologie und Sprachwissenschaft* 6(1869), 376-384.

Goddard, Cliff & Wierzbicka, Anna(2002), *Meaning and Universal Grammar : Theory and Empirical Findings,* (Vol. 1), Amsterdam; Philadelphia, Pa: J. Benjamins Pub.

Goddard, Cliff & Wierzbicka, Anna(2007), Semantic Primes and Cultural Scripts in Language Learning and Intercultural, *Applied cultural linguistics: Implications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7, 105-124.

Goldberg, Adele E.(2006), *Constructions at Work :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undel, Jeanette K.(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Gundel, Jeanette K.(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 Bosch & R. v. d.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7.

Gundel, Jeanette K. & Fretheim, Thorstein (2004), Topic and Focus, in L. Horn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75-196.

Gundel, Jeanette K., Hedberg, Nancy & Zacharski, Ron(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274-307.

Hajičová, Eva(1983), Topic and Focus, *Theoretical linguistics* 10(2-3), 268-276.

Hale, Austin(1980), Person Markers: Finite Conjunct and Disjunct Verb Forms in Newari, *Papers in South-East Asian Linguistics* 7, 95-106.

Halliday, Michael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Herburger, Elena(2000), *What Counts: Focus and Quantification,* MIT Press.

Hockett, Charles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OXFORD & IBH PUBLISHING.

Hopper, Paul J.(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the Discourse, in T. Givón (ed.), *Syntax and Semantics 12: Discourse and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213-241.

Horgan, John (2016). Is Chomsky's Theory of Language Wrong? Pinker Weighs in on Debate. *Scientific American*. Retrieved from

Hutchins, William John(1975), *Languages of Indexing and Classification : A Linguistic Study of Structures and Functions*, Stevenage: P. Peregrinus.

Ibbotson, Paul & Tomasello, Michael(2016), Evidence Rebuts Chomsky's Theory of Language Learning, *Scientific American* 315(5).

Jackendoff, Ray 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2nd ed.) MIT Press.

Jenny, Mathias & Tun, San San Hnin(2013), Differential Subject Marking without Ergativity: The Case of Colloquial Burmese, *Studies i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37(4), 693-735.

Kassevitch, Vadim B.(2005), Syntactic and Morphological Markers in Burmese: Are They Really Optional, in J. Watkins (ed.), *Studies in Burmese Linguistics*, Canberra: Pacific Linguistic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87-96.

Keenan, Edward(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Li & S. A. Thompson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303-333.

Kibrik, Alexander E.(2001), Subject-Oriented Vs. Subjectless Language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2, 1413-1424.

Kratzer, Angelika(1989), Stage and Individual Level Predicates, in *Papers on Quantificatio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42-45.

Kratzer, Angelika(1995), Individual-Level and Stage-Level Predicates, in G. N. Carlson &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Press, 125-175.

Krifka, Manfred(1991),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Multiple Focus Constructions, in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Vol. 1, CLC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Citeseer, 127-158.

Kuno, Susumu(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Kuroda, S.-Y.(1972), The Categorical and the Thetic Judg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Kuroda, S.-Y.(1992),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 Collected Papers,* SPRINGER-SCIENCE+BUSINESS MEDIA.

Kuroda, S.-Y.(2005), Focusing on the Matter of Topic: A Study of Wa and Ga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4(1), 1-58.

Ladusaw, William A(1994), Thetic and Categorical, Stage and Individual, Weak and Strong, Proceedings at the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Eng.: Cambridge UP.

Lambrecht, Knud & Michaelis, Laura A.(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5).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acker, Ronald W.(1993), Refe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4(1), 1-38, doi:10.1515/cogl.1993.4.1.1.

Langacker, Ronald W.(2001), Discourse in Cognitive Grammar, *Cognitive Linguistics* 12(2), 143-188, doi:10.1515/cogl.12.2.143.

Langacker, Ronald W.(2009),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Walter de Gruyter.

Li, Charles N. & Thompson, Sandra A.(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457-489.

Li, Thomas Fuyin(2013), Chomsky o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Linguistics* 4(1), 1-8.

Longacre, Robert E.(1981), A Spectrum and Profile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1(4), 337-360.

Marty, Anton(1918), *Gesammelte Schriften. 2: Abt. 1. Schriften Zur Deskriptiven Psychologie Und Sprachphilosophie,* Niemeyer.

Mathesius, Vilém(1928), On Linguistic Characterology with Illustrations from Modern English (from Actes Du Premier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es â La Haye), in J. Vachek (ed.),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196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59-67.

Maynard, Senko K.(1997), Synergistic Strategies in Grammar: A Case of Nominalization and Commentary Predicate in Japanese, *Word* 48(1), 15-40, doi:10.1080/00437956.1997.11432460.

Mel'čuk, Igor A.(1981), Meaning-Text Models: A Recent Trend in Soviet Linguistic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0(1), 27-62, doi:10.1146-/annurev.an.10.100181.000331.

Mel'čuk, Igor A.(2001), *Communicative Organization in Natural Language: The Semantic-Communicative Structure of Sentences,* J. Benjamins.

Mel'čuk, Igor A.(2012), *Semantics: From Meaning to Text,*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Mel'čuk, Igor A. & Pertsov, Nikolaj V.(1987), *Surface Syntax of English : A Formal Model within the Meaning-Text Framework*,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1), *Myanmar- English Dictionary*, Myanmar: ThetgatoMya PonHnaiteTai Press.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Thadar, Mayanmarsarahphwe-*

hnit30pyae (1975-2005) Ahhtainahhmat, Myanamar: ThetgatoMyaPon-HnateTai Press.

Myint Soe(1999), *A Grammar of Burmese,* (PhD), University of Oregon.

Nunberg, Geoffrey(1995), Transfers of Meaning, *Journal of semantics* 12(2), 109-132.

Okell, John(1969), *A Reference Grammar of Colloquial Burmese,* Oxford University Press.

Okell, John(2010), *Burmese (Myanmar) :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ry Style*,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Okell, John & Allott, Anna(2001), *Burmese/Myanmar Dictionary of Grammatical Forms*, Richmond [England]: Curzon.

Ozerov, Pavel(2014), *The System of Information Packaging in Colloquial Burmese,* (PhD.), La Trobe University.

Park, Chongwon(2014), Reference-Point and Blending in Korean Non-Nominative Subject Constructions, *Studies i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38(4), 717-751, doi:10.1075/sl.38.4.03par.

Parsons, Terence(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Partee, Barbara(1991), Topic, Focus and Quantification, Proceedings at the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Cornell University.

Paul, Hermann(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English Translation(1891): Principles of the History of Language,* (H. A. STRONG, Trans.), London: LONGMANS, GREEN, & CO.

Prince, Ellen(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223-255.

Prince, Ellen(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in S. Thompson & W. Mann (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 Raising Text*, John Benjamins, 295-325.

Reinhart, Tanya(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Belgium)* 27, 53-93.

Roberts, Craige(1998), Focus, the Flow of Information, and Universal Grammar, in P. Culicover & L. McNally (eds.), *The Limits of Syntax*, ACADEMIC PRESS, 109-160.

Roberts, Craige(2011), Topics, in C. Maienborn, K. von Heusinger, & P.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 2 Walter de Gruyter, 1908-1934.

Rooth, Mats(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Rooth, Mats(1996), Focus,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271-297.

Sasse, Hans-Jürgen(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the Language Sciences* 25(3 [289]), 511-580.

Sgall, Petr, Hajičová, Eva & Panevová, Jarmila(1986),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n Its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ilverstein, Michael(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ommers, Fred & Englebretsen, George(2000), *An Invitation to Formal Reasoning: The Logic of Terms*, Aldershot UK: Ashgate.

Steedman, Mark(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31(4), 649-689.

Strawson, P. F.(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Values, *Theoria: A Swedish Journal of Philosophy* 30, 96-118.

Talmy, Leonard(1978), Relations between Subordination and Coordination, i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yntax*, Vol. 4, 487-513.

Talmy, Leonard(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1), 49-100, doi:10.1207/s15516709cog1201_2.

Talmy, Leonard(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 Concept Structuring Systems,* (Vol. 1) MIT Press.

Talmy, Leonard(2003),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Vol. 1) MIT Press.

Tanaka, Shin(2008), The Aspect-Modality Link in Japanese : The Case of the

Evaluating Sentence, in W. Abraham & E. Leiss (eds.), *Modality-Aspect Interfaces : Implications and Typological Solution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9-327.

Taylor, J. R.(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urgood, Graham(1978), Thematicization and Aspects of the Verbal Morphology in Burmese: 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 Proceedings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Tomasello, Michael(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Tun, Hnin & San, San(2006), Discourse Marking in Burmese and English: A Corpus-Based Approach.

Vallduví, Enric(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Vallduví, Enric & Vilkuna, Maria(1998), On Rheme and Kontrast, in P. W. Culicover & L. McNally (eds.), *The Limits of Syntax*, San Diego: ACADEMIC PRESS, 79-108.

Vallduví, Enric & Zacharski, Ron(1994), *Accenting Phenomena, Association with Focus, and the Recursiveness of Focus-Ground,* HCRC Publications, University of Edinburgh.

Wallace, Stephen(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P. J. Hopper (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Vol.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1-223.

Watkins, Justin(2005), Constituent Focus in Burmese: A Phonetic and Perceptual Study, in J. Watkins (ed.), *Studies in Burmese Linguistics*, Canberra: Pacific Linguistic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7-66.

Weil, Henri(1844), *De L'ordre Des Mots Dans Les Langues Anciennes Comparées Aux Langues Modernes, English Translation(1978): The Order of Words in the Ancient Language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 Languages,* (C. W. Super, Tra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Wheatley, Julian K.(1982), *Burmese : A Grammatical Sketch,* (Ph.D.), Berkeley,

California. Available from http://worldcat.org /z-wcorg/ database.

Wierzbicka, Anna(1975), Topic, Focus, and Deep Structure, *Research on Language & Social Interaction* 8(1-2), 59-87.

Wierzbicka, Anna(2013), *Imprisoned in English: The Hazards of English as a Default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Universality of Information Structure in Korean and Specificity of Topic Constructions - Based on Contrastive Research with Japanese and Burmese -

Jung, Sung-chul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stablishes a new model of topic-oriented information structure, based on the traditional topic-oriented view, notions from cognitive linguistics with Meaning-Text Theory, and several focus theories. The new model is supported by contrastive research on topic constructions among Korean, Japanese and Burmese. Furthermore, the nature of universal information structure is outlin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to the academic world is that the specificity of Korean, Japanese, and Burmese can be the basis for solving the essential problems of language theory. Ultimately, it raises the necessity to change the direction of linguistics from being predicate-oriented to topic-orien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First, the following five views were integrated. (a) Empirical evidence from a new analysis on the three lan-

guages, (b) topic-comment structure from traditional logic, psychology, and functional linguistics, (c) the account on the attentional system from cognitive linguistics, (d) the formal theory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Mel'čuk's MTT, (e) the focus-background theory of formal semantics. Thus, these five views lead to the definition of the topic structure *TOP→{BASE [PRED]}*. Specifically, *TOP→{ForeGround, BackGround, ... }* is realized as the sentence structure *[Top]-[Pred]* or *(stage topic)-[Pred]* according to the profiling device denoted by '[ ]'.

Second, there are a variety of constructions in Korean that directly reflect the topic structure. Thus, *[TOP]→{[SubTOP]}→...→{[PRED]}* can be directly realized according to the topic progression. These characteristics reveal the essence of the psychological nature of topic structure. In addition, Korean nominal suffixes '-NUN[2], -GA[2], -DO, -MAN' express the contrast between foreground and background in the structure *TOP→{[FG], BG}*, and their meanings are differentiation, selectivity, identity, and uniqueness, respectively.

Third, Japanese has a slight difference from Korean. In Japanese,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sage of the '-GA' nominative in perceptual WH question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topic structure *(Perception Stage)→{BASE}* can be separately categorized. In Japanese, there is also a restriction on the realization of the upper topic in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and the lower topic is realized as '-WA', or the topic is transferred to the lower level. In other words, often *TOP→{SubTOP}→{BASE}* is realized as *[SubTOP]-[PRED]*.

Fourth, there is no topic marker in Burmese, but in the *TOP→{FG, BG}* structure, the background and the foreground in the base information are expressed as the '-HA' nominative and the '-KA' nominative, respectively. First corresponds to *TOP*

→{*FG, [BG], ... }* and second corresponds to *TOP*→{*[FG], BG, ... }*. It i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profiling can be applied to the background.

Fifth, based on the theoretical generaliz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phenomena of each individual language, we propose a new linguistic typology related to topic structure. Korean and Japanese are 'obligatory topic specifying languages' that necessarily express the opposition between general topic and stage-topic,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 topic marker. Burmese, like English, belongs to 'optional topic specifying languages', but it is 'obligatory background specifying', thus can be classified as a 'topic-oriented language' that essentially reflects part of the topic structure.

According to this theoretical and typological review, the existing 'subject' concept is based on the predicate-oriented view and cannot be a universal concept. To determine the concept of a universal 'subjec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subject' as a grammatical realization of the topic. In this case, the Korean '-NUN', which realizes the topic, becomes the most prototypical subject marker.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concept of an existing 'subject', this 'subject' should be limited to the descriptive grammar of an individual language.

Keywords : obligatory topic marking, topic-comment, categorical sentence /thetic sentence, stage-topic, background-foreground, cognitive linguistics, Meaning-Text Theory, multiple nominative, double subject

Student Number : 2015-30036